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현대불교

원적외선 사찰 난방 전문
- 난방비가 저렴합니다 -
고정협찬 : MBC-TV 러브하우스,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앙일보와 KTDOM의 베스트 추천업체
시 공 처 : 통도사 백운암, 변산반도 월명암, 정선 불암사, 철원 장안사, 서울시 문화재 2호 봉황각, 유교문화원, 기평 법흥사 등
웰빙 온코리아 http://www.wbkor.co.kr 전화 02)538-8489, 551-3010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11월 10일(음력9월 28일) 수요일 (주간) 제499호

조계종 교구본사 7직 '빈자리' 많아

포교 · 행정 · 사회활동 '미지근'

소임자 공석 · 비상근이 절반… 소신 · 전문성 살려 구성해야

상당수 조계종 교구본사가 총무, 교무, 재무, 기획, 사회, 포교, 호법 등 7직의 부재와 이에 따른 업무 지연으로 본사(本寺)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포교, 사회 국장이 공석이거나 비상근인 본사도 각각 11개, 14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사회전반의 수행 열기에도 불구하고 교구본사들이 이러한 흐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것은 본지가 조계종 24개 교구본사를 대상으로 7직의 보직 여부와 상근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드러났다. 7직은 조계종이 지방종정법을 통해 교구본사가 갖춰야 할 직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구행정의 핵심역할이다.

조사에 따르면 24개 교구본사 중 1/3이나 되는 8개 본사가 아직도 7직을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개 교구본사는 2~3개 직책이 공석이고, 총무 재무 교무 3직만 두고 있는 본사도 있었다. 심지어는 총무 스님만 자리를 지키는 경우도 있었다.

7직 모두 상근하고 있는 곳은 월정사, 불국사, 해인사, 통도사 등 4곳에 불과했으며, 불국사의 경우 교육 문화 국장을 추가로 두고 매일 조회를 실시하는 등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호남지역 A본사의 한 종무원은 "담당 국장 스님이 없거나 상근하지 않는 분야의 업무는 다른 부서의 종무원이 함께 맡게 돼 일이 늦어지거나 아예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총무 스님만 상근하는 영남지역의 B본사의 경우 사찰 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포교는 물론 지역 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같은 지역 C본사는 열악한 종무체계와 행정력 부재로 지역 내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포교와 사회분야를 담당하는 소임자가 없거나 비상근인 교구본사가 절반을 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이 일을 한다는 점에서 보면, 활발한 포교활동과 사회활동이 그만큼 뒤쳐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평창 월정사가 주지 스님과 7직 스님들을 상근시키며 종무행정체계를 바로 세우면서 다양한 문화포교활동을 벌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례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불국사와 해인사, 통도사 등도 다양한 문화 · 신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역민과 불자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충청지역 D교구본사의 한 국장 스님은 "행정업무 외에도, 산사음악회와 템플스테이의 활성화, 크고 작은 지역현안 등으로 대부분 교구본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포교와 사회분야에 대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계종 관계자들은 7직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주지스님의 인맥에 의한 인사와 담당 스님들의 사명감 부족을 우선 꼽는다. 인사 기준이 능력과 전문성보다는 '자기 사람 심기'에 있다 보니 국장스님들이 최선을 다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스님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나 교육 등의 동기부여가 적어 다수 스님들이 소임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직 체계 확립과 함께 국장 소임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종단 관계자들은 우선 경영, 회계와 같은 사찰 운영분야 뿐만 아니라 포교, 사회일반 등 날로 확대되는 사회적 역할에 맞게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식교육과 실무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해서는 7직 임기제를 도입하고 재가 종무원들을 충원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또한 교구본사 7직을 수행하면서 말사의 주지를 겸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부장 무관 스님은 "교구본사 국장 스님들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음식물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11월 4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앞에서 '빈그릇운동' 캠페인을 벌였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제종길 · 배일도 의원, 탤런트 김수미 씨, 뒷줄 오른쪽 첫번째부터 이경재 위원장, 단병호 의원. 사진=박재완 기자

"적게 먹고 아껴 쓰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 '빈그릇 운동' 캠페인

'적게 먹고 아껴 쓰자'는 불교사상에서 출발한 환경운동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호응을 받으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정토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식당 앞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을 줄여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기금을 모아 불우이웃과 기아 어린이들을 돕자는 환경 캠페인 '빈그릇 운동'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이경재 환경노동위 위원장, 제종길, 배일도, 이재오, 단병호 의원과 탤런트 김수미 씨 등이 동참했다.

이경재 의원은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5조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며 "'빈그릇 운동'을 실천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북한 기아 어린이와 불우이웃을 돕자"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 · 737-8881(대)

社 告

제10회 신행수기 공모에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마감 12월 15일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당선작 발표: 2005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및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성명과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시상내역
▷대상(유마상) ▷우수상(본사 사장상)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 천태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 총화종 총무원장상 -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돈) 열쇠를 각각 수여합니다.
※ 10~11월 두 달간 현대불교신문과 붓다뉴스를 통해 수필가 맹란자 선생(에세이문학 발행인)의 '수기 쓰기 이렇게'를 연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서 교육사업 편다

실천승가회 내년 학교 설립 계획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이하 실천승가회, 공동의장 효림 · 성관)가 불교국가인 캄보디아 불우 청소년을 지원하는 보육 및 교육사업을 펼친다.

실천승가회는 11월 2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5년부터 캄보디아 시엠 립 지역에 고아원과 초등학교, 기타 교육시설을 설립 운영하는 'Beautiful World of Cambodia(이하 BWC)'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천승가회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10월 22일 소칸 캄보디아 부총리를 만나 BWC 프로그램과 관련한 협약서를 교환했다. BWC 사업은 오랜 내전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교육시키고, 앙코르와트 사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불교국가 캄보디아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실천승가회에 따르면, 향후 50년간 총 200만불이 투자돼 100여 명의 고아를 수용하는 고아원, 한 학년 30명씩 총 여섯 학급이 운영되는 초등학교, IT와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교육시설 등이 3단계에 걸쳐 건립된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2004 포교사고시' 대비 실전 모의고사 부록 발행

"천성산 판결 신중해야"

범불교운동본부 법원에 의견서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고속철 천성산 구간과 관련한 부산 고법 판결을 앞두고, 불교계 신행 · 환경단체로 구성된 '도롱뇽 소송 100만인 서명 범불교운동본부(이하 범불교운동본부)'는 재판부의 신중한 판결을 청원하는 의견서를 11월 3일 부산고법에 제출했다.

범불교운동본부는 의견서에서 "천성산 관통터널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국토를 농단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국책사업을 막을 분수령적인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범불교운동본부는 이어 "(법원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일방적으로 시공사측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유신 기자

'할'



그림 · 조태호

범룡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신간
禪 너는 누구냐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
선원장 스님들의 사자후

2004년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대법회'에 초청된 선원장스님 11분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특별법문을 엮은 『禪 너는 누구냐』

선 수행 현장에서 실참실수하고 있는 조계종 선원장 스님들이 일러주는 '참선, 어떻게 할 것인가'



■ 고우 스님(봉화 각화사 선덕) -선의 본질과 의미 ■ 무여 스님(봉화 축서사 주지) -화두 드는 법
■ 대원 스님(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선과 깨달음 ■ 함주 스님(보은 법주사 총지선원장) -마음은 무엇인가
■ 현산 스님(구례 화엄사 선등선원장) -비우고 쉬는 공부가 선 ■ 영진 스님(前 조계종 기초선원장)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 지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 -선 수행의 요체 ■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선원장) -머무는 곳마다 주인되어 진실되게 사는 법
■ 현응 스님(美 버클리 육조사 주지) -한국선의 세계화와 생활선 ■ 도현 스님(하동 쌍계사 금당선원 선덕) -선 스스로 만드는 행복
■ 설정 스님(덕숭총림 수덕사 수좌) -단박 깨침이란 무엇인가 ■ 특별법문: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경허 · 만공 선사의 가르침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www.yosiamun.com 종로구 견지동 110-33 여시아문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국제교류 인력양성 시급

최근 불교계에서 국제교류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JTS, 이웃을돕는사람들, 우리는선우, 참여불교재가연대 등을 주축으로 각종 학술 · 문화교류와 협력에서부터 개발도상국 불교계에 대한 지원과 복지증진활동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불교계의 국제교류 증가는 한국불교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한편, 절대적인 빈곤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대해 동체대비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사회적 공헌의 기회를 넓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은 물론 양적인 증가를 뒷받침하기에는 인적자원이 준비돼 있지 않다. 게다가 교류대상 국가의 문화상황을 이해할만한 정보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특히 국제교류사업을 이제 갓 시작하게 된 단체들은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언어·실무 극복이 최우선 과제
단체간 정보교류 · 협력해야

단적인 예로 얼마 전 필자는 최근 불교계의 한 단체로부터 지원 대상국에 체류하면서 실무자로 일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청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긴급구호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해외구호에 열의와 신념을 갖고 있는 한 후배에게 의향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이 후배는 마음을 정한 곳이 있다고 했다. 그 후 몇몇 주변사람들을 통해서 적임자를 찾는데 도움을 주려했으나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단체는 현지에 파견할 실무인력들이 필요하지만 몇 년씩 해외에 나가서 거의 자원봉사 수준의 급여를 받고 일할 사람을 구하기 매우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불교단체들 가운데에는 정부 산하기관인 국제협력단을 통해서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이 불교적인 정서와 마인드를 갖춘 인력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교류추진 단체간의 교류와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 다른 곳보다 먼저 교류사업을 추진해온 선발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후발단체들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단체들의 이후 교류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오류와 한계점들을 개선해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다.

또 국제적 마인드와 소양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실무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봉사자 뱅크 구축, 실무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해외단체 파견연수, 실무자교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계획 속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과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개별단체가 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 교류단체협의체 또는 종단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민정희(서울 중구 장충동)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기회오면 떠나겠다" 41%

종립학교 교사들 시설 · 복지등에 관심 주문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 700명 설문

조계종 종립학교에 근무중인 교직원의 상당수는 공립학교로 이직이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전근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는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택)가 지난 9월 한 달간 조계종 산하 22개 종립학교 교사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설문조사에서 교직원들은 만약 공립학교로 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근 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25%)와 그렇지 않다(59%)로 엇갈렸다. 단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의 비율이 높아 보이지만 일부 무응답자 · 기타 응답자를 포함하면 암묵적으로 전근의사를 표시한 비율이 41%로 높아져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들 교직원은 열악한 학교시설(36%)과 급여, 진급, 복지(32%)에 대한 불만족 의견을 높게 표출했다. 이는 종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사립학교에 비해 재단의 재정적 기여(시설투자)가 부족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재적사찰을 갖고 신행활동을 하는 그룹의 교직원들은 교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설문 대상자 가운데 현재 자신의 교직활동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경우는 70%를 차지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교직에 대한 자부심(51%), 불자로서 종립학교에 근무하는 만족감(22%)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종립학교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선발과정에서 신행활동의 열의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직원들은 종립학교 재단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그에 따른 미미한 투자가 학교발전의 가장 큰 장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의 종립학교에 대한 역할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은 재정적 기여라고 답한 응답자가 51%나 차지했다.

또한 종립학교 관리자의 자질 향상(16%), 종립학교 확대(10%)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대신에 건학이념을 강요(4%)하거나 재단의 지나친 간섭(9%) 등에 대한 불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타종교 재단 학교들의 전횡은 불교계 종립학교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관위 위원장 원택 스님은 "종립학교들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첫 시도"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종단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조계종 22개 종립학교에 재직중인 남자 480명 여자 218명 등 7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교직 경력은 만 5년 차부터 25년차까지 다양했다. 연령별로는 주로 30~40대(70%) 교직원들의 답변이 많았다.

조용수 기자

중앙신도회 최우수단체

조계종 포교원 '우수 포교사업' 선정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종단 포교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포교 10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제안 우수단체 선정작업'에서 '신도교육과정의 재편과 신도교육 인프라 구축 계획' 등 12개의 사업을 제안한 중앙신도회가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고 11월 3일 밝혔다.

우수단체로는 '불교상담전문인력 육성' 등 7개를 제안한 불교상담개발원과 '산사에서 즐기는 시네마 천국' 등 7개를 제안한 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각각 선정됐다.

강지연 기자

무구 스님 종정추대 본원종, 5일 법회



본원종 제4대 종정 무구 스님(사진) 추대법회가 11월 5일 서울 연화정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원로의장 대종 스님, 총무원장 대화 스님 등 본원종 중진 간부 및 사찰 대표자 5백여 명이 참석했다. 무구 스님에게는 종정을 상징하는 주장자와 불자(拂子)가 전해졌다.

1929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난 무구 스님은 46년 김천 김용사에서 화산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평창 상원사, 울진 불영사 등의 선원에서 20안거를 성만했다. 89년 태허 스님, 석천 스님 등과 본원종 창종을 주도했으며 원로의장, 부종정, 종정대행 등을 역임했다.

박봉영 기자

"본사주지 선관위장 안돼"
교단자정센터 법개정제안

조계종의 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보은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이 선출된 것과 관련,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 이하 자정센터)는 11월 1일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자정센터는 논평을 통해 "현행 종헌종법에는 교구본사 주지의 중앙선거위원 겸직과 관련한 금지 조항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입법미비 사항일 뿐, 사회적 상식과 통념에만 비추어 보아도 응당 금지해야 할 사안"이라며 겸직금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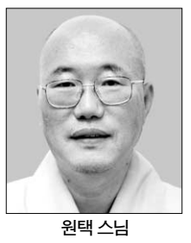
자정센터는 또한 "관련법령의 포괄적 개정을 위해 전문가, 불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유철주 기자

의장에 법등 스님

수석 부의장 장주, 차석 원택 스님


장주 스님


원택 스님

조계종 165회 정기종회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제165회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법등 스님을 2년 임기의 후반기 종회의장으로 선출했다. 법등 스님은 무기명비밀투표 결과 총 79표 중 51표를 얻어 27표를 획득한 법조 스님을 14표 차로 앞섰다.

법등 스님은 1961년 녹원 스님은 은사로 수계, 총무원 총무국장, 조계사 주지, 9 · 10 · 11 · 12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인터뷰 3면)

중앙종회는 또 수석부의장에 장주 스님, 차석부의장에 원택 스님을 선출했다. 사무처장 법진 스님 임명에도 동의했다.

하반기 각 상임분과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그러나 상임분과위원회 구성과 '해종행위자(대종단 소송제기자)에 대한 중징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놓고 진통을 겪기도 했다. 또 종회장 앞에서 통영환경운동연합 관계자가 미륵산 케이블카 건설 중단에 도움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165회 정기중앙종회는 4일부터 8일까지 중앙종무기관 종정감사를 한 뒤 9일 오전 10시 속개된다. 여기에서는 멸빈제도를 삭제하고, 중앙종회의원 3분의 2이상 동의 없이 중앙종회의원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종헌 · 종법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남동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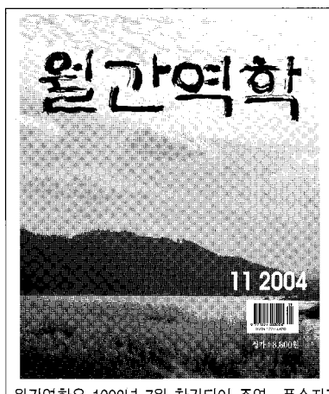
조계종 13대 후반기 상임분과위원회 명단

총무분과위원회	영배(위원장) · 영담 · 상운 · 선광 · 토진 · 정안 · 종광 · 정호 · 도각 · 원담 · 원정 · 일면 · 효림 · 혜원(동국대) · 현공 스님
교육분과위원회	진구(위원장) · 지욱 · 정인 · 지하 · 흥륜 · 본각 · 혜원(한마음선원) · 도완 · 진구 스님
포교분과위원회	지현(위원장) · 광조 · 지홍 · 도후 · 설송 · 장주 · 계호 · 정성 스님
사회분과위원회	학담(위원장) · 일화 · 일문 · 수현 · 이암 · 종열 · 지만 · 법경 스님
재정분과위원회	장적(위원장) · 정문(간사) · 장윤 · 원행 · 성월 · 향적 · 보경 · 종훈 · 정광 · 자승 · 법광 · 초격 · 인행 · 경륜 · 월우 스님
호법분과위원회	종삼(위원장) · 의연(간사) · 장곡 · 진만 · 탄우 · 혜림 · 도문 · 운달 · 법보 · 성국 · 무이 · 지준 · 무자 · 성직 · 선각 스님
법제분과위원회	동광(위원장) · 정도(간사) · 도문(비구니) · 보선 · 법조 · 법안 · 정휴 · 원택 · 중원 · 혜승 스님

부산 선암사문제 책임 규명 촉구

재가연대등 11개 단체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11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부산 선암사 사태의 바른 해결을 위한 불교단체 연석회의'는 11월 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일은 사찰 재산을 사사로이 유용한 공금횡령 사건"이라고 규정 "선암사 주지 정야 스님과 법주 중원 스님은 지금이라도 대중 앞에 공개 참회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단의 자주권 확보를 위한 합리적 균형적인 대처를 촉구하면서 "이번 사법부의 가처분 판결은 종단내부의 적법한 자정절차를 인정치 않은 심각한 결함을 안고있다"고 지적했다. 유철주 기자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되어 주역 • 풍수지리 • 사주명리 • 관상학과 유 • 불 • 선의 심오한 사상을 알기 쉽게 실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배포하는 국내 유일의 동양학 전문지로 99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훌륭한 잡지 입니다.

월간역학에서는 역학전문학원인 **월간역학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학원 졸업생에 대한 혜택-

- 수료증 및 자격증 수여
- 재택 상담사로 100% 취업 보장
- 인터넷(www.kbs.cc) 수강자도 동일한 혜택 전국어디서나 저렴한 비용 (3개월분 10만원)

역학 수강생 모집

과 목: 사주학, 관상학, 수상학
- 사 주: 월간역학 주필 이재운 박사 직강 〈성공하는 운 실패하는 운〉 저자 기초부터 실전까지 완벽한 지도. 4개월 완성. 11월 15일 개강. 주2회(월·목 오후 6시30분)
- 관상, 수상: 화요일 오후5시.

위치:동대문운동장역 1번 출구. 경동교회 뒷편

명당탐지기 관룡자!!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당신 손으로 확인 하세요.



관룡자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풍수지리서인 〈금낭경(錦囊經)〉에 의하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잡거나 황제의 묘터를 잡을 때,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은밀히 사용되던 옥척(玉尺)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0년 7월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한국의 진산실업(주)에서 이 옥척을 현대 과학적 형태로 개발 한 것이 관룡자입니다. 조계사, 해인사, 수덕사, 상원사, 월정사 등 오랫동안 번성해오는 사찰과 서울 명동성당,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천도교당 등 번성하는 종교단체의 건물, 세종대왕릉, 남연군 묘,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여러 문중의 묘, 일본 동경의 황거(皇居)와 오사카 성, 북경의 자금성을 비롯한 황제들의 릉, 대만의 중정기념당(장개석 동상) 등 세계적인 유적과 시설물에서는 틀림없이 관룡자가 작동됩니다. 또한 아직 찾아내지 못한 명당자리도 국내에는 많습니다.

저희는 관룡자가 불티나게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관룡자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분들 가운데 몇 분을 제외하고는 친구나 친지에게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이 기구를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분들의 심성이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것은 자신만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므로 '터(명당)에 대한 욕심에는 형제도 없다'는 속설이 증명되는 것이지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 교회 등 건물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감정할 때, 산소나 납골당, 공원묘지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자리를 감정할 때 사용합니다. 이때 명당에서만 발산되는 특별한 지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혈(穴)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좌향(방향) 까지 잡을 수 있으며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의 교수, 사업가, 전문 경영인, 법률가, 풍수전문가 등 500여 명이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며, 풍수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장면이 TV에 여러 차례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관룡자는 88만 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80만 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관룡자 휴대용 주머니+월간역학 1년분+수맥탐지기 1세트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구입방법 : **우리은행: 064-301374-13-001 예금주: 진산실업(주)**로 80만 원 입금하신 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관룡자와 수맥탐지봉은 자세한 사용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리며, 앞으로 1 년간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
- 신용카드 소지하신 분 12 개월 분할가능. 기업체에서 구입시 세금 계산서 발행.
- 월간역학 1 년분 구독료는 105,600 원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9만 원으로 할인+수맥탐지봉 1세트 무료 증정
- 월간역학은 지난호도 모두 정가 판매합니다만, 지금 신청하시면 과월호 12 권을 선착순 100 분에 한하여 7만 5천 원에 드립니다. ('99년1월호~2003년 12월호까지)
- 수제품 황금 18k 헤드 관룡자 주문제작 · 육효용 수제품 서죽과 산목셋트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청옥빌라트 101호

www. kbs. cc

당신의 궁금한 모든 것!

월간역학 필진 · 월간역학교육원 교수들과
직접 상담하세요.060)800-2424

이 름	통화번호	이 름	통화번호	이 름	통화번호
이재운주필	02	박일봉원장	09	김옥주원장	18
박인산원장	03	김애영원장	11	최정미원장	19
전종효원장	04	마정만원장	12	전주범원장	21
홍진보원장	05	이정호원장	13	김영순원장	22
신갑용원장	06	경태우원장	15	김순양원장	23
백명길원장	07	조성애원장	16		
김태현원장	08	김정석원장	17		

한 마디로 격이 다릅니다!

월간역학에는 어중이 떠중이 역술인이나 헛소리하는 무당이 없습니다. 역술인들을 교육하는 교수 · 필진등 학계의 권위자들이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정확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국 시외전화 요금 없이 3분간 무료통화. 이후 30 초당 900 원. 15 분에 1사람 상담하면 2만1천6백 원, 30 분에 3 사람 상담하면 4만 8천 6백 원이므로 역술원에 가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편리하며 정확합니다. 불편신고 (02) 2264-0258

조계사 복합문화공간 만든다

인사동 연결 지하도 등 250억 규모 불사 계획


조계사 중창불사 기본계획 조감도. 대웅전을 제외하고 전체가 새롭게 중창된다.

조계사(주지 원담)가 일반시민들의 신행 · 교육 · 수행의 공간 뿐 아니라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조계사는 현재 진행 중인 대웅전 보수공사를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일주문과 만불보전, 보제루, 문화사업관 신축 등 2008년까지 250억 규모의 중창불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조계사와 인사동을 잇는 지하보도 건설을 통해 경복궁과 인사동 등 인근지역을 문화벨트로 조성해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해 일반시민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조계사로 이끌 방침이다.

조계사는 11월 1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불교의 중심도량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양한 교육 및 신행, 문화의 공간으로서 21세기 새로운 불교문화의 틀을 제시하기 위해 총 4단계에 걸친 중창불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단계는 지난 2002년부터 진행 중인 대웅전 보수공사 마무리 작업이며, 2단계는 조계사의 틀을 다지는 작업으로 12월 중 일주문 불사를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보제루 및 문화사업관을 건립하게 된다. 일주문은 정면 3칸 규모로 세워지며,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될 보제루는 정면 7칸, 측면 3칸,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또한 지하 3층, 지상 5층 건평 897평 규모의 문화사업관을 설립, 시민 및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 및 공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3단계는 극락전과 종각, 조계사와 인사동을 잇는 지하보도 및 주차장과 지하식당, 신도회관 등을 건립 혹은 리모델링하는 작업이다. 현재 대웅전 우측에 위치한 극락전은 해체 복원해 법회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종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 2층 규모로 재정비해 신행공간과 각종 문화행사시 야외무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 1층 건평 500여평 규모의 지하보도 건립은 경복궁과 인사동을 찾는 사람들을 조계사로 끌어들여 상당한 포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사 중창불사는 4단계 만불보전 및 해탈문 건립으로 마무리 된다.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그 동안 조계사가 한국불교의 상징이자 총본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격(寺格)에 걸맞는 도량정비를 해오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중창 불사를 통해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회당학원 이사장 18일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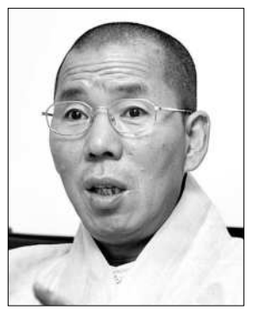
학교법인 회당학원(이사장 진당)은 11월 18일 오후 1시 법인회의실에서 제329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19대 이사장을 새로 선출한다. 현 이사장 진당 정사의 임기가 오는 12월로 만료되기 때문.

차기 이사장 후보로는 진각종 통리원장을 지낸 성초 정사와 중앙종의회 의장 진산 정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박봉영 기자

종단안정 · 충실한 종회기능 모색

인터뷰 조계종 13대 후반기 종회의장 **법등 스님**



▲당선 소감은?

–종단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일조해 달라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 종회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로 알고 있다. 부족한 저를 선택해 준 종회의원 스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번 종회의장 선거는 각 종책모임(계파) 간에 지지후보가 뚜렷하게 엇갈렸다. 경쟁자였던 법조 스님을 지지한 금강회나 보림회를 어떻게 껴안고 갈 것인가?

–특정한 계파의 의장이 아니라 종회의원 전체 의장으로서 부의장 스님들과 의정 활동을 뒷받침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껴안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역대 종단 분규의 발상지를 보면 중앙종회다. 따라서 종단 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종회가 안정돼야 한다. 부의장 스님들과 협의해 종단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겠다.

▲중앙종회 권한 강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분과위 활성화로 토론 · 합의 기구돼야

–중앙종회의 권한이 이전보다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중앙종회에 권력이나 힘이 부여된 것은 누리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적합한 활동을 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나 자신부터 주어진 책무에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 반성하게 된다. 다만 현 제도가 꼭 불합리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종단 개혁 10년 맞아 향후 종회 운영에 대한 각오는?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다소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제도나 의식이 개선됐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부분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종헌종법을 보면 사회법 그대로 인용한 경향이 있다.

여러 스님들이 종단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우리 것을 찾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여론들을 종합하면 승가다운 법체계가 나올 것이다.

▲전반기 아쉬웠던 점과 개선점은?

–전 의장 지하 스님이 오랜 경험으로 종단 안정에 기여한 점이 크다. 이러한 점을 후반기에도 이어받아 종회를 운영할 것이다. 전반기 종회 가운데 본회의 중심이 아닌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역할이 활발했으면 하는 아쉬움 있었다. 앞으로는 즉흥적인 안건 상정보다는 해당 분과위 차원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정착시킬 것이다.

남동우 기자

사찰체험 · 산업체 견학

中 청년지도자 수교12주년 기념 방한

한중수교 12주년을 맞아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주최, 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도영)와 내원청소년단(이사장 정련) 공동주관으로 중국 청년지도자 방한단(단장 탄홍지에)이 9박10일 일정으로 11월 1일 방한했다.

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환영만찬회는 한국 측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포교원장 도영 스님,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연기영 교불련 회장과 중국 측에서 주치양 중국공청단 제1 서기, 리빈 중국대사, 장광핑 국제연락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환영만찬회에서 법장 스님은 "이번 중국청년지도자 초청사업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중의 협력동반자관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청년지도자 방한단은 3일 에버랜드 방문을 시작으로 해인사 불국사 석굴암 봉은사 등 사찰체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산업시찰, 부산 인천 서울 투어, 한국전통문화 체험, 홈스테이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11월 10일 출국한다.

강지연 기자

불교 자원봉사, 타종교 비해 저조

복지부 2003 사회복지 통계

많은 개선노력을 하고 있지만 불교 자원봉사활동은 여전히 타종교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에 비해서도 자원봉사자 증가율은 개신교와 가톨릭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회가 발표한 '2003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144,623명의 자원봉사자 중 불교신자는 29.1%(9568명)로 개신교 42.2%(13,862명)보다 크게 적은 수치였다. 또한 전년에 비해 2003년 불교 자원봉사자는 4,000여명 증가한 반면, 개신교와 가톨릭은 각각 5,500여 명, 4,600여 명씩 증가, 자원봉사자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봉사자 1인당 한해 평균봉사시간은 불교가 36.8시간으로 개신교 28시간, 가톨릭 33.1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03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1,585개소 중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로 지정되어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김은경 기자


10월 30일 열린 '우리함께' 회관 개원식에서 축하 떡을 썰고 있는 참석귀빈들.

NGO 보금자리 우리함께 회관 문열어

재가 불교운동의 새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 이하 재가연대)와 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용)는 10월 30일 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우리함께' 회관 개원식을 열었다.

이날 '우리함께' 회관 개원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김종서 재가연대 고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두 단체의 발전을 기원했다.

박광서 재가연대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에 걸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고, 성태용 우리는선우 이사장은 "회관 개관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뜻 있는 일을 하겠다는 서원을 세워본다"고 말했다.

이날 개원식 후 참석자들은 '우리함께 회관' 현판식을 봉행하고 지하 1층에 마련된 잔치마당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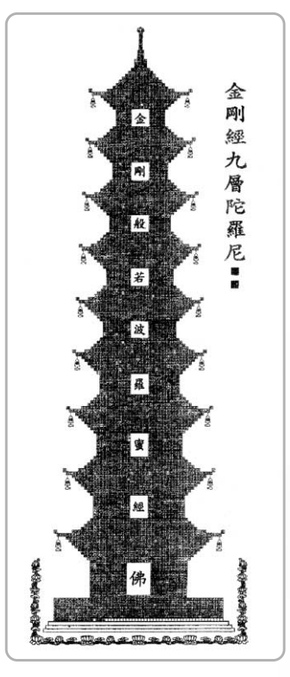
이 회관에는 청소년문화센터, 불교인력개발본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국제참여불교정보센터, 종교사회화센터, 경영정보교육센터, 생활수행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재가연대와 우리는선우는 그동안 각각 사무실을 임대 사용해왔다.

강유신 기자

오대산 월정사 포교원 법종사

봉행

업장소멸과 영가천도를 위한 금강경 탑다라니 사경 및 천도재 동안거 백일기도



귀의삼보하옵고

법종사에서는 금강경 탑 다라니 사경과 함께 동안거 백일기도 내에 불자님들께서 직접 사경한 탑다라니를 불단에 모시고 영가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사리나 경전을 봉안하여 부처님을 상징하는 탑의 모양으로 금강경을 사경할 수 있게 하여 한자 한자 써 나감으로서 부처님의 탑을 완성해 나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 사경수행에 지루함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먼곳에 있어 자주 못 오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사경수행 할 수 있으니 많은 동참으로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 크기 : 가로 75Cm × 세로 208Cm

■ 천도재 동안거 백일기도
- 입재 : 불기 2548년 11월 16일(음, 10월 5일) 일요일 오전 10시
  ※ 법종사 회주 현해 큰스님의 법문이 있습니다
- 초재 : 불기 2548년 11월 28일 일요일 오전 10시 • 2재 : 불기 2548년 12월 12일 일요일 오전 10시
- 3재 : 불기 2548년 12월 26일 일요일 오전 10시 • 4재 : 불기 2549년 1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
- 5재 : 불기 2549년 1월 23일 일요일 오전 10시 • 6재 : 불기 2549년 2월 6일 일요일 오전 10시
- 회향 및 천도재 막재 : 불기 2549년 2월 23일 일요일 오전 10시 (현해 큰스님 법문)
  ※ 동참금 : 위패 1위당 1만원

■ 금강경 강의
- 일정 : 불기 2548년 11월 21일부터 매주 일요일 • 장소 : 법종사 4층 천불전 • 시간 : 오후 1시

■ 금강경 탑다라니 사경지도
- 일정 : 불기 2548년 11월 16일부터 매일 • 장소 : 4층 천불전 오후 2시 ~ 오후 4시

■ 금강경 탑다라니 사경 및 백일기도 동참금 : 십만원(탑다라니 사경 3장 포함)

■ 접수 및 문의
- 법종사 종무소 : 02)905-6666, 905-6777 / 팩스 02)902-6777
- 온라인계좌번호 : 국민은행 081301-01-000799 (예금주 : 성찬회)

■ 미리 접수 바라오며 대중공양(떡, 꽃 과일) 하실 분은 종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4호선 쌍문역 2번 출구 하차, 마을버스(1121번, 5번) 법종사



대한불교조계종 재단법인성찬회 오대산 월정사 포교원 법종사

문광부 종무실 축소 '파장'

1실 2과에서 1실 1과로 … 업무 지연 · 종무실 위축 우려
종교지도자協 "자체적인 대책 세우겠다" 성명 준비

종교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화관광부 종무실 축소가 확정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편에 대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장 법장 · 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지협)는 조만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결된 개편 안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종무실은 기존의 1실 2과에서 1실 1과체제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종무관과 종무과장 1석이 없어지고 종무과의 명칭도 '종교행정과'로 바뀐다. 종무실 직제가 '종무실장-종무관-종무1 · 2과장'체제에서 '종무실장-종교행정과장'체제로 개편되는 것이다.

종교계는 개편에 따라 정원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업무 지체와 이에 따른 종무실의 위축을 경계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사이비 종교문제 대처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종무실 관계자는 "현재 17명인 정원이 축소되더라도 고유업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종교단체 관련업무 지원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 ·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주요업무는 현재와 같이 유지토록 했다.

하지만 종교계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조계종 기획실장 여연 스님은 "문광부는 종무실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업무수행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종교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종무실 축소는 문화종교시대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정연택 사무총장 역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종교가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종무실 축소는 옳지 않다"며 "종지협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계는 이미 2003년 종무실 폐지계획이 알려졌을 때도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며, 최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이보경 종무실장에게 "종무실은 축소의 대상이 아니라 '종무청'으로 확대 강화돼야 하는 부서"라고 강조하기도 했었다.

종무실은 1968년 문화공보부 문화국 산하의 종무과로 출발해 1979년 종무국으로 개편된 뒤, 1982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현재의 종무실체제로 확대됐다.

개편 안은 대통령 재가와 11월 말~12월 초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직제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가장 큰 수행은 용서 존재하는 모든 것 한 가족"

'용서' 공동저자 빅터 챈 한국 독자와의 만남



달라이 라마의 '용서'를 저술한 빅터 챈 교수(가운데)가 11월 3일 보성 대원사를 찾아 한국의 불자들에게 달라이 라마의 특별 메시지를 전했다.

달라이 라마의 저서 <용서>(오래된 미래 刊)가 세인의 주목을 끌고 있다. 21세기 최고의 지성이자 전 세계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종교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이번에는 '용서해야 행복해지며, 가장 큰 수행은 용서'라며 한국 불자와 독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3일, <용서>의 공동저자이며 30여 년간 달라이 라마의 지근거리에서 함께해온 빅터 챈이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 티벳 박물관에서 '독자와의 만남'시간을 가졌다. 빅터 챈의 한국방문은 <용서>를 번역한 류시화 시인의 초청에 따른 것. 홍콩출신 중국계 캐나다인인 빅터 챈은 현재 캐나다 콜럼비아 대학 동양학 연구소 교수다.

빅터 챈은 달라이 라마와의 첫만남을 "엉뚱한 시간에 엉뚱한 장소에 있었기 때문이다"며 독자와의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1972년 대학 졸업 후 떠난 세계 여행길에서 달라이 라마를 친견하게 됐다. 빅터 챈은 달라이 라마가 인도 망명 후 13년만에 만난 첫 중국인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우정은 3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50년 넘게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한 가족입니다. 그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강연할 때 한사람 한사람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달라이 라마의 '동체대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빅터 챈은 한국방문에 앞서 '달라이 라마가 한국인들에게 전하는 특별 메시지'를 영상에 담아왔다. 9분 분량의 영상메시지에서 달라이 라마는 "한반도는 불행하게도 남북으로 분단돼 있고, 남한 내에서도 종교, 사상의 견해차로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용서의 실천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다"고 강조했다.

글 · 사진=이준엽 기자

日서 훔쳐온 고려불화 반환 안해도 될 듯

검찰, 최종 구입자 정상물품으로 알고 '선의 취득' 인정

일본 학림사에서 훔쳐온 고려불화의 반환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4부(이홍훈 부장)는 10월 30일 일본에서 도난당한 고려불화 '아미타삼존상'이 대구지역 암자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검찰청은 10월 12일 일본 경찰청의 수사 공조요청에 따라 일본사찰에 들어가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47점(감정가 합계 31억 원 상당)을 훔친 김 모씨와 황 모씨 등 2명을 검거해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이 훔친 아미타삼존상(阿彌陀三尊像, 감정가 10억원), 성덕태자회전(聖德太子繪傳, 감정가 6억원) 등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국보급 문화재들이다.

김 씨가 일본에서 훔쳐온 불화는 범행직후 중개상에게 넘겨졌으며, 여러 단계를 거쳐 한 조선족을 통해 개인 사업가에게 4억 원에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업가는 또 다른 사업 파트너에게 투자조건으로 불화를 증여했다. 불교신자인 사업 파트너는 대구의 모 암자에 이불화를 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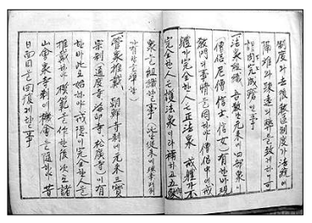
검찰은 "고려불화를 구입한 개인 사업가가 감정을 거쳐 4억 원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선의 취득'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법상 장물이더라도 현 점유자가 정상물품으로 알고 합당한 가격에 구입한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돼 일본에 넘겨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고불총림, 불교 정화 위해 출범"

발굴화제 - 김광식 교수 논문 '고불총림과 …' 서 주장





언론에는 처음 공개되는 만암 스님이 친필로 쓴 고불총림 강령 책자. 강령을 보면 호법중(대처승)을 인정하면서 5부중 제도를 제안했음을 알 수 있다.

"고불총림의 출범은 기존 교단과의 차별성에서 출발했다. 해방 당시 혼란을 거듭하고 있던 불교의 정화를 위한 것이었으며, 급진적 개혁론이 주류를 이뤘던 것과는 달리 대처승을 인정하는 등의 현실적이고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정화를 주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김광식 교수(부천대)의 논문 '고불총림과 불교정화'는 고불총림 출범 당시 마련된 강령과 규약을 근거로 고불총림의 개요와 성격을 불교정화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고불총림에 대한 학술적 접근도 특이하지만, 불교정화라는 관점에서 고불총림의 성격을 규명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고불총림을 이끌었던 만암 스님이 왜 대처승을 인정하자고 제안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면서, '온건하게 정화를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불교계의 분열은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 논문은 11월 중순 경 발간될 홍선 스님(前 중앙승가대 대학원장)의 정년퇴임 논총에 실릴 예정이다.

김 교수는 고불총림을 불교정화 측면에서 접근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을 수반하지 않고 정화운동을 할 수는 없었는지, 또 대처승을 반드시 승단과 사찰에서 축출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강령에서 대처승 인정
현실바탕 점진적 개혁
"역사적 재평가 돼야"

일제 식민지 불교 체제하에서 발생한 불교계의 모순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1954년 시작된 불교정화운동은 조계종단을 재정비한 한국 현대불교사의 커다란 사건이었다. 당시 불교정화는 공권력 및 언론의 지원을 받은 이른바 비구승 측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그 당시 불교정화의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온건하게 불교정화를 주장한 스님이 있었는데, 바로 만암 · 효봉 · 법흥 스님이 그 부류에 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만암 스님이 고불총림을 조직하면서 11개 항의 강령을 마련했는데, 그 가운데 기존의 4부중에서 5부중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대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11개 항의 강령 중 제 4항 '법중(法衆)조직'에는 승려를 '호법중(護法衆 · 대처승)'과 '정법중(正法衆 · 비구승)'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대처승을 승단의 구성원으로 인정한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라며 "이것은 식민지 체제하에서의 계율파괴가 불가피했음을 인정하고, 제도권에서 대처승의 생존과 활동을 보장하자는 의미를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삼보사찰인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부터 청정 비구들이 운영을 주도케 하고 여타 사찰은 점진적으로 비구 중심의 사찰로 전환케 한 것은 현실을 인정하지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정화에 뜻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불교정화 측면에서 고불총림은 귀중한 역사성을 갖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교단과의 차별성, 현실성, 개방성, 점진성 등 고불총림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국태민안과 2005APEC성공개최기원
제5회 불교전통문화 팔 관 회

팔관회 동참안내
시민 불자 여러분이 소망을 담은 연등접수 및 영가천도재 접수를 통해 팔관회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1.**팔 관 회 연 등**(1인 1등 10,000원) : 희망 시민·불자
2.**호 법 광 명 등**(1인 1등 100,000원) : 각 사찰, 행단체 대표 및 희망 시민·불자
3.**부산발전기원등**(1인 1등 500,000원) : 각계 지도자 및 희망 시민·불자
4.**수륙고혼천도재**(영가 1위 5,000원) : 희망 시민·불자

팔관회 실천운동 자비의 쌀 모우기
일일 한끼를 금식하고 절약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자비의 쌀은 11월 14일(음.10.3)일요일 팔관회가 열리는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직접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팔관회 실천규범 팔재계 지키기
1.불 살 생(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2.불 투 도(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3.불 음 행(음행을 하지 말라)
4.불 망 어(거짓말, 악한 말, 꾸미는 말, 허황된 말을 하지 말라)
5.불 음 주(술을 마시고 취하지 말라)
6.지나치게 향을 바르고 가무를 삼가 하라
7.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라(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지 말라)
8.때 아닌 때 먹지 말라

※부산불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팔관회 동참접수는 가까운 사찰에 문의바랍니다. ☎051)867-0501

11월 14일(음10.3)일요일 오후 4시
해운대해수욕장
식전행사·오후 3시 국태민안기원 영산재
대법회·오후4시

▶주 최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051)867-0501
▶특별후원 : 문화관광부, 부산광역시
▶후 원 :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부산불교실업인회, BBS부산불교방송, 불교TV부산방송,교계 각 언론사



제5회 불교전통문화 팔관회
국태민안과 2005 APEC 성공개최기원

불국토 · 부산여대 '실버와 그린이 마주보는 세상' 행사

어르신께 젊음을 학생들엔 공경심을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음식으로 우리를 귀빈처럼 모셔주고 대접해주니 더할 수 없이 고맙고 기뻐요. 학생들! 고마워!"

10월 29일 부산여자대학 관광교육센터 연회실, 호텔조리과 학생들이 직접 만든 호텔 음식으로 점심을 드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흡족한 미소가 넘쳤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이사장 혜총)와 부산여자대학이 공동으로 마련한 '실버와 그린의 아주 특별한 경로효도잔치'에 초청된 독거어르신 50분은 대학생 손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에겐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어르신에겐 다양한 사회경험과 활력을 되찾아 주기 위해 시작된 '실버와 그린이 마주보는 세상' 프로그램 중의 하나.

행사에 참여한 최진용, 조한용 호텔조리과 교수를 비롯 1학년 학생 80여명과 호텔 푸드 코디네이트과 학생 10여명은 요리와 서빙을 도맡아 하며 어르신들을 모셨다. 하루 전부터 신선한 재료를 골라 장을 보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한 음식 종류는 모두 12가지. 동태탕, 불고기, 닭볶음, 잡채, 해물파전, 탕평채, 호박죽, 떡산적 등 학생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 어르신들의 입맛을 돋웠다. 특히 호텔 푸드 코디네이트과 학생들은 진토닉, 스크루 드라이버 등의 칵테일을 즉석에서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독거노인 초청 효도잔치
호텔조리학과 80여명 참가
차 · 피부미용 등과 연계 계획

"할아버지, 할머니의 입맛에 맞을지, 너무 짜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준비했는데 맛있게 드셔서 기분이 좋아요." 서수진 학생(호텔조리과 1)의 말에, 옆에서 설거지를 하던 김은혜 학생(호텔조리과 1)도 "다 끝나고 나니 너무 뿌듯하다"며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오면 더 잘 대접해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바쁜 손길로 칵테일을 만들던 서선미, 심윤희 학생(호텔 푸드 코디네이트)도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순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다"고 말하며 수줍게 웃었다. 또한 도우미로 참석한 사회복지과 실습생들과 부산여자대학 졸업생으로 불국토에서 근무하는 선배들은 안내와 서빙 등을 맡아 도왔다.


부산여대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을 어르신들에게 챙겨드리고 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한마당 잔치가 벌어졌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장기자랑이 펼쳐지며 구수한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박수소리가 흥겨움을 더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판소리를 준비했다는 박선영 할머니는 춘향가로 앵콜을 받았다. 이어진 댄스팀의 춤. 학생들로 구성된 댄스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선보이는 활기 넘치는 춤동작에 박수소리가 더 높아졌다. 학생들의 과격한 춤 동작에 어르신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기도 했지만 얼굴에 피어난 행복한 웃음꽃은 지워질 줄 몰랐다.

개금복지관 박용하 관장은 "어르신들과 학생들의 교류는 여러 방법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실버와 그린에 참여하고 있는 안경공학과, 차문화복지과, 피부미용과, 제과제빵과 등과 함께 어르신들에겐 기쁨을 학생들에겐 어른공경의 마음과 보람을 주는 행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 사진=천미희 기자

포항 불교계, 시장 퇴진운동 전개

홀리클럽, 개인활동 불과 … 공식사과 난색

정장식 포항시장의 종교 편향적 행동에 대한 포항불교계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 시장이 사과 의사를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정 시장은 11월 3일 지역 불교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시민들과 불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이해와 관용으로 봉합해 주기 바란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세계 성시화대회의 명예 준비위원장으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범죄율이 낮은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의 모임에 종교를 초월해 참석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시 재정의 1%를 성시화 대회의 사업 진행에 사용 한다'는 준비 안에 대해서도 관여한 바가 없어 전혀 몰랐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포항 불교사암연합회가 11월 1일 포항 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기독교 기관장 모임인 홀리클럽 탈퇴'에 대해서는 "탈퇴 의사가 없다"며 이해를 구했다. '신문 지면을 통한 공식 사과 요청'에 대해서는 이미 M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며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포항지역 불교계는 정시장이 먼저 홀리클럽에서 탈퇴 후 사과해야 하며, 이러한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구, 경북지역 불교계와 연대해 정 시장 퇴진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봉사는 실천수행의 으뜸이죠"

무량사, '희연' 거주노인 무료급식

창원 무량사(주지 무이) 신도회는 11월 2일 사회복지법인 '희연'과의 자매결연 1주년을 기념하는 무료급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무료급식에는 '희연'에 살고 있는 어르신과 지역 어르신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무량사 신도회 회원 30여명이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 준비와 대접을 도맡았다.

무량사 신도회는 2003년 무량사 개원 행사 당시 인연을 맺게 된 노인복지시설 '희연'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정기법회를 열고, 2개월에 1번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 무료급식 행사를 펼쳐왔다. 특히 무량사 신도회 소속 자원봉사자들은 '희연'이 실시하는 간병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을 수료, 자원 봉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기도 하다. 무량사 신도회는 '희연'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이전부터 바라밀 장학회를 설립, 초 · 중 · 고 결식 학생들에게 학비와 식비를 지원해왔다.

무이 스님은 "앞으로 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 빨래가 어려운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이동 빨래방을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요가로 몸 튼튼, 좌선으로 마음 튼튼


10월 29일 개원한 청량선원 개원법회에서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인도 전통요가 시민선방 개원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150여 평의 인도 정통요가 시민선방인 '선아헹가 요가선원, 청량선원'이 10월 29일 개원했다.

인도 정통요가 특강을 통해 지난 3월부터 매주 300명이 넘는 대구시민들을 팔공산 동화사로 불러들였던 동화사 교무국장 현천 스님이 대구시민들의 호응에 맞춰 개원한 것이다.

스님은 "요가는 의미가 넓은 개념이며 압축하면 선(禪) 그 자체"라고 말한다. "특히 아헹가 요가는 200여개의 요가 자세와 14가지 호흡법을 정형화시켜 뼛속 깊숙이 잠재해 있는 긴장을 풀어내며, 좌선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번에 개원한 '선아헹가 요가선원, 청량선원'은 각종 도구(베개 · 벨트 · 의자 · 로프 등)를 갖춰 몸이 굳은 사람도 쉽게 요가를 배울 수 있고, 또 메디칼 요가(질병치료요가)도 가능하다.

현천 스님은 "요가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불교 포교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아헹가 요가선원은 몸이 굳은 사람, 비만, 어린이, 임산부를 위한 특별 요가수련과 함께 수요일마다 불교 기초 교리 강좌와 법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053)753-1737, www.bksiyengar.co.kr 배지선 기자

팔공산 갓바위에 부처님을 찾는 참배객과 등산객을 위한 아늑한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화제다.

선본사(주지 보정)가 최근 갓바위 중단에 개설한 10여 평 규모의 무료찻집에는 찻집 6개의 좌탁과 20벌의 다구 세트가 갖춰져 있다.

법향 느끼며 차한잔…좋구나!
선본사, 갓바위에 무료찻집

선본사 재무 상인 스님은 "다구 세트만 갖췻둔 상태지만 앞으로 불교경전을 비롯한 200여권의 책과 스님들의 법문 테이프 · 고승열전시리즈 등을 비치해, 녹차를 마시면서 불교방송을 청취한다거나 명상 · 음악법문을 듣고,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본사 · 갓바위 상주 스님들과 신행상담도 가능하다. 배지선 기자

바다와 같이 불법 널리 퍼지길
통영 연화사 보덕암 불사 회향



통영 연화도 연화사(주지 도응)가 11월 3일 보덕암 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고산 스님, 진의장 통영시장을 비롯한 1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회향법회에서 고산 스님은 "바다 한가운데 한 송이 연꽃처럼 연화사와 보덕암이 전국 불자들의 기도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화도에 연화사가 창건되면서 기도객들과 관광객들이 급증하자, 통영시는 연화도를 포함한 관광벨트화를 추진하고 있다. (055)641-3670 천미희 기자

해동中 다목적 강당 신설

종립학교 해동중학교(교장 곽우신)가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다목적 강당을 신설하는 등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갖췄다.

2003~2004년 2년에 걸쳐 진행된 교육경관 개선 사업에 의해 본관 교실, 복도 바닥 보수, 도서실 개선, 컴퓨터실 개조 등의 공사를 끝냈으며 2층 160평 규모의 다목적 강당을 신설했다.

다목적 강당은 1층에 체육교과실, 축구부실, 특별실, 운동부 식당, 샤워실 등을 갖추고 2층은 강당으로 학부모들을 위한 특강, 학생들의 공연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10월 29일 열린 다목적 강당 개관식에는 재단 이사장 흥교 스님,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곽우신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50년이 넘은 전통 있는 사학인 해동중학교가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갖추고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높이고 심성교육에도 더 주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동중학교는 이날 개관식과 함께 가진 진로진학 설명회에서 2005년도 고입설명회와 이영덕 대성학력 개발평가 실장, 박만제 부산진학지도협의회 회장을 초빙해 특강을 열었다. 천미희 기자

고산장학회 장학금 전달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10월 30일 제 9회 혜원 경로잔치와 고산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연산 1 · 4동을 비롯 관내 어르신 1천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경로잔치에서는 이동응 할아버지(85)에게 장수상이 김재용 · 최두여 노부부에게는 화목상이 수여됐다. 이어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노래잔치가 펼쳐졌으며 혜원정사 합창단의 축하 공연, 사물놀이, 초청가수 공연 등으로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다.

한편 고산장학회는 동국대에 재학 중인 인경 스님을 비롯한 21명의 중 · 고 · 대학생에게 총 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천미희 기자

바이오연옥® 기능성돌침대

기능성 돌침대 - 돌침대의 생명은 석판!!

후레임(침대틀)도 고급자재로 멋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과의 직결은 오직 석판일뿐입니다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후회없는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품질 검증 보증서 아주대학교 기계 및 산업공학부 회전전자파(氣)측정 연구팀 지도교수 오흥국 박사

한국경제 2004년 9월 14일 화요일
신뢰받는 성장 기업… 한국경제를 이끄는 CEO리뷰
수면병 '맥반석 건강 침대'로 다스린다

서울신문 2004년 9월 24일 화요일
바이오 연옥 맥반석 건강 침대 '화제 집중'
충주산 맥반석-춘천산 연옥 결합 원적외선-음이온 방출
혈액순환 원활, 신진대사 촉진, 근육통-어깨 결림 등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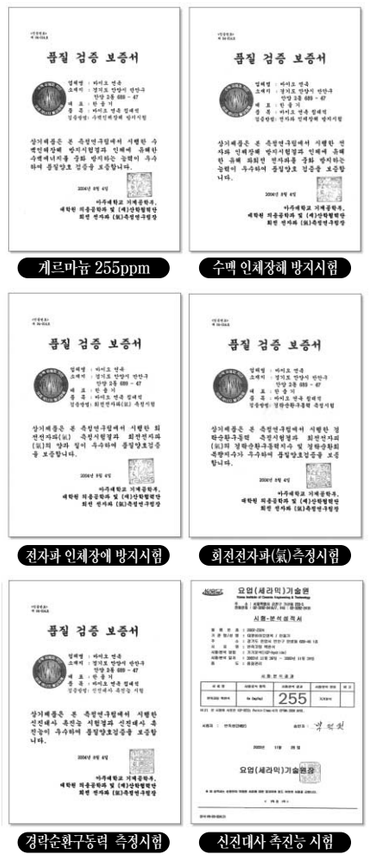
※ 게르마늄 : 인체 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노화를 지연시키고 생체조직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

바이오연옥은 이미 아주대 기계 및 산업공학부 회전전자파 측정 연구팀의 '수맥인체 장애 방지시험'.'전자파 인체 장애방지 시험',
'회전전자파 측정시험','경락순환 구동력 측정 시험' 및 '신진대사 촉진시험'등 수많은 품질검증과 요업(세라믹)기술원장 시험성적서 게르마늄 255ppm으로 이미 그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바이오연옥맥반석 침대'와 관련해 경상대 자연과학대학 백우현 교수는 "바이오 연옥 맥반석 건강 침대에서 내뿜는 고효율 원적외선은 인체의 피로회복과 자연 치유력 향상을 지녔다"며 "원적외선의 온열효과를 지혜롭게 이용해 온 우리 선조들의 온돌문화에 바탕을 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또 충북대 한충수 교수 역시 "이론과 실험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상업적으로만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 반면 이 제품은 인체의 신진대사와 식물 생장 및 저장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기사 일부



「기존 돌침대 '석판'만 교환 가능합니다」



A/S : 080)445-0005
www.바이오연옥.com

전국대리점 본사 031)444-0005 서울 02)777-0105 부산 051)552-1959 청주 043)257-8929 속초 033)635-8323 강릉 033)646-3656 분당오리역(한국까르프) 2층 031)728-6250

한신대생들 불교나들이

'불교의 이해' 수강생 25명 갑사서 템플스테이

기독교계 대학생 첫 사찰체험
일부학생 예불 불참하기도
참선 등 실천적 수행 긍정적

10월 29일 저녁 공주 갑사. 저녁 예불 시작을 알리는 사물(四物)이 울리자 30평 남짓한 법당에 황색수련복을 입은 학생들이 차례로 들어섰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불에 참석했지만 일부 학생들은 법당 밖에서 다른 학생들의 예불모습을 지켜보았다. 종교가 달라 예불을 올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올 2학기부터 시작된 신설 강좌 '불교의 이해'를 수강중인 한신대 대학생 25명의 1박2일 템플스테이는 그렇게 시작됐다.

기독교계 대학이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교양과목인 이 강좌의 수강생은 110명가량.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이번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학생 가운데는 신학과 종교문화학 전공자도 5~6명이나 포함됐다.

다음날 새벽 3시 새벽예불을 마친 학생들은 용담 스님의 지도로 참선을 한 뒤, 발우를 가지런히 펼쳐 놓고 새벽 5시 때이른 아침을 받았다. 다소 어색해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지만 불과 하루 만에 절집 분위기에 익숙해진 모습이다.

숲길 걷기와 울력을 마친 오전 8시에는 갑사만의 독특한 체험과정인 '불무도' 특강이 시작됐다. 불교무술 고유의 여러 가지 동작과 호흡법을 배우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주지 스님과 함께 하는 다담시간은 학생들의 종교에 대한 거침없는 토론장으로 변모했다.

유범식(신학과 1) 학생은 "지금까지 잘 몰랐던 불교의 형식과 철학적 깊이를 새롭게 발견한 것은 큰 소득"이라고 밝혔다.

할아버지가 한신대의 전신 '조선신학교'를 나와 3대가 한신대 동문이라는 강승구(신학과 3) 학생은 "지금까지 하나님께만 갈구하던 나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며 이틀간의 사찰체험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자신의 종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광고 강의석 군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학교 측의 비상식적 대응을 성토해, 사회와 교단의 모순에 대한 젊은 학생들의 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사찰체험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지자의 이름을 가진 오바댜(종교문화학 2) 학생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불교의 참선이나 호흡법 같은 실천적인 수행의 전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음 기회에 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종교간 벽을 허물기 위한 서로 다른 종교 성직자들의 노력이 낯설지 않은 요즘도 기독교대학에서 불교관련 강좌가 개설된 것은 흔치않은 일이다. 더구나 강좌제목에 '불교'라는 단어가 들어간 과목은 국내 처음이다.

강의를 맡고 있는 이효원 강사는 "학생들은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종교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행사의 성과에 만족해했다.

공주=조용수 기자


수련복을 입은 한신대생들이 불교무술 특강에서 여러 가지 동작과 호흡법을 배우고 있다.

더불어 잘사는 세상 가꾸자

금산사 1405주년 개산대재
'미륵 10선계 보살수계식' 봉행


금산사 개산대재 법요식 모습.

미륵성지 김제 모악산 금산사(주지 평상)는 11월 2일 개산 1405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헌공다례와 미륵10선 수계식을 봉행했다.

대적광전 앞에서 열린 법요식에는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을 비롯해 성타(불국사 회주), 도영(조계종 포교원장), 정락(용주사 주지) 등 스님 100여명과 김완주 전주시장, 유성엽 정읍시장, 곽인희 김제시장 등 지역기관장,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등 신행단체장, 재가불자 2000여명이 참석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에서 "우리 사회는 중생심 때문에 갈등에 휩싸였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가꾸어 가자"고 당부했다.

개산대재에 이어 방등계단에서 열가지 선행을 닦아 정진을 다짐하는 '미륵 10선계 보살수계식'이 봉행됐다.

이준엽 기자

지역민 모두의 수행공간으로…

화순 전남대병원 법당 개원



화순 전남대 병원(병원장 강형근)은 10월 29일 지하 1층 종교실에 불교법당을 마련하고 개원식을 가졌다.(사진)

이날 개원식에는 범희승 지원실장, 간호부장 등 병원관계자와 현장(자비신행회 이사장), 보화(화순불교사암련 회장)스님 등 지역사암 대표, 자원봉사자가 참석했다.

법당 개원에 앞서 지도법사 일장 스님(유마사 주지)은 인사말에서 "병원 법당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 병원임직원, 자원봉사자. 지역민 등 모두의 수행공간이다"며 "자비손길이 많이 필요로 하기에 자원봉사 활동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개원식에 이어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는 화순병원 법당 개원을 기념하는 '희망나눔 사랑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전남대 병원 법당에서는 정기법회(금요일), 간병, 자원봉사 등의 활동이 펼쳐진다. (061)379-7932

이준엽 기자

쌍계사, 국화展 20일까지

진도 쌍계사(주지 진현) 국화전시회가 10월 30일 개막됐다. 진도 소리여행 템플스테이를 겸한 개막식에는 지역 사암 스님들과 김경부 진도 군수를 비롯한 지자체장,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쌍계사 국화전시회는 진현 스님이 신도들과 함께 손수 가꾼 대국, 소국, 국화 분재 등 500여점이 전시되며 11월 20일까지 계속된다. (061)542-1165

이준엽 기자

태고종, 남원성 순국선열 추모

남원성을 지키다 순국한 선열의 넋을 기리는 영산대재가 11월3일 남원에서 열렸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향산)은 이날 만복사지 광장에서 '호국영령 영산대재 및 국태민안 기원 영산법회'를 봉행했다.

만복사지 법당지에 괘불을 세우고 열린 법요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원로의장 남파 스님을 비롯한 관내 100여개 사암 스님과 최진영 남원시장 등 지역 기관장, 재가신도 1000여명이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남파 스님은 법어를 통해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은 '나보다 남을 더 위하는 선조'들의 뜻을 이어 더불어 사는 것이다"고 설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격려사에서 "생활속에 부처님 가르침을 놓치지말고 열심히 정진하자"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광보사, 농민 위로잔치 열어

땅끝 해남의 작은 사찰 광보사(주지 자황)가 10월 25일 가을걷이에 지친 지역민을 초청해 '부처와 대중과의 만남'을 주제로 한 문화 잔치 한마당을 펼쳤다.

해남 옥천면지역 주민과 신도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가을잔치는 만등법회에 이어 광주가톨릭대 교수 조용대 신부의 사회로 소프라노 최춘미씨와 아그네스 중창단의 가곡이 선 보였다. 또한 주민들이 함께 부르고 즐기는 노래잔치가 펼쳐졌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일산 여래사

법향 가득 풍기는 복합문화공간


일산지역 불자들이 여래사 법당에서 열린 법회에 참석해 법문을 듣고 있다.

'템플처치' 프로그램 운영…영화 · 연극 상설 공연
문화단체 지원 · 이발봉사 등 다양한 활동 추진

2000년 개원한 불보사찰 통도사의 일산 포교당인 여래사(주지 각현). 여래사를 보통 흔한 도심포교당으로 생각하고 찾아온다면 일단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최신식 법당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상시 가능한 230석 규모의 극장과 주변 여건을 두루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년 내내 영화 상영과 연극 공연이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이 바로 여래사인 셈이다.

이런 여건을 갖췄기에 여래사는 경기도내 성당, 교회들과 함께 올 3~8월 매달 3, 4회씩 재즈, 음악회 등 공연을 선보이는 '템플처치(Temple-Church)'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관광부가 공연단체들에게 2천만 원씩 지원, 지방 공연장에서 활동케 해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시행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경제난 때문에 많은 단체들은 연습장소는 고사하고라도 공연장을 구할 수가 없었다. 이 때 여래사의 훌륭한 문화인프라는 이런 어려움 극복에 톡톡하게 기여했다. 그 때문에 템플처치 프로그램 개막작인 '양덕원 이야기'가 3월 여래사에서 백도웅 목사와 신부 수녀 등 수많은 이웃 종교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연될 수 있었다. 또한 일산시민들과 불자들도 문화 행사에 참가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여래사가 문화도량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문화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올 여름 '맘마미아'란 뮤지컬을 공연한 극단 '신시'를 몇 해 전부터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희극배우와 퓨전 클래식 팀, 마술 팀들에게 연습 · 공연 공간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이들 단체들도 틈만 나면 무료공연을 해주는 등 여래사를 문화도량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여래사는 내년부터 절 운영에 변화를 준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여래사의 존재를 꾸준히 알려왔지만 불자들의 참여가 예상보다는 부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마련해 이웃을 돕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도 합창단 사물놀이 전통무용 이발봉사 등을 할 수 있는 신행 프로그램을 연차적으로 갖추어 나간다는 복안이다.

여래사 주지 각현 스님은 "신도시 불자들은 대개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남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정신은 부족한 것 같다"며 "자기 희생하는 마음을 심어 조금씩이라도 봉사하는 신행활동을 하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일산=강유신 기자



수행·복지·포교 삼박자 '척척'

경남 진주·하동·남해

박자가 잘 맞는 노래나 음악을 듣고 있으면 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흥이 난다. 흥겨운 음악처럼 진주, 하동, 남해 불교는 수행, 포교, 복지의 삼 박자를 고루 갖추고 지역 곳곳에 '흥'을 전하고 있었다. 불교가 지역민들 마음속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때론 삶의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는 하는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 현장이었다.


진주의 대표적 재가 수행 도량인 연화사 시민선방에서 불자들이 수행정진하고 있다.

진주 이웃과 나눔의 축제 30년 관록

하동 '차문화 원조' 긍지 포교로 승화

남해 보리암 '명성' 화방사 '실천' 자랑


남해 노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화방동산 직원들이 아침 조회를 하고 있다.

 # 진주 충절과 교육, 문화, 예술의 고장으로 이름난 진주. 조계종 통합종단 2대 종정을 지냈고 정화불사를 주도했던 청담 스님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남부지역의 중심지인 진주는 청담, 고암 스님 등 선지식들의 수준 높은 법문과 수행지도를 받아온 재가 불자들이 많아 수행 욕구가 유달리 높은 도시이기도 하다.

특히 진주의 높은 수행 욕구는 포교와 실천으로 이어져 복지 분야의 활동도 두드러진다. 여래원의 불국정토회와 성양원, 부처님 나라(주지 진명)의 자비의 집, 해인사자비원이 운영하는 진주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무료급식을 비롯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불국정토회 활동이 돋보인다. 30년 전부터 1년에 한번 경남문화예술회관에 진주 시민을 초청, 잔치를 열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10명, 독거노인 10명, 교도소 재소자 15명 등에게 꾸준히 재정적 후원을 해주고 있다. 또한 지역 어르신들 800명을 초청, 생일상을 차리기도 했다. 특히 불국정토회 재정은 신도들이 투명하게 관리하며 보시 문화 확산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성양원(주지 정혜)은 불교계에서는 하나뿐인 무의탁결핵환자 무료요양원이다. 30대에서 70대까지 환자 12명이 생활하고 있다. 정혜 스님은 환자를 돌보다 세 번이나 쓰러져 결국 한쪽 폐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을 정도로 결핵환자들과 동고동락하고 있다.

도심포교당인 연화사는 진주의 대표적인 수행도량이기도 하다. 매일 3천배, 또는 1만배 기도를 하는 이들이 많아 '절박사들이 오는 도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인간방생회를 중심으로 무료급식도 하고 있다.

진주에서 최초로 생겼고 하나뿐인 교육기관인 진주불교회관 불교대학을 재가자들이 운영할 정도로 재가 불자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1993년 문을 연 진주불교회관은 이사 12명과 청년회원, 일반 후원 등의 회비로 운영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포교 의욕만은 결코 시들지 않고 있다. 40여 차례 이어진 문화답사, 10회를 맞은 여름불교학교, 11회 개천합창제 등 시민들을 향해 활짝 열린 공간이 되고 있다. 격월간지 <불해(佛海)>를 통해 지역 불교계 소식을 전하고 있다.

 # 하동 섬진강이 흐르고 지리산을 경계로 전라도와 경상도가 나눠지는 지점인 하동엔 유별나게 사찰과 토굴이 많다. 쌍계사에서 칠불사에 이르는 자락에만 100여 개의 사찰이 있을 정도. 그러나 대부분의 사찰들이 개인 수행을 위한 토굴들이어서 사찰 수에 버금가는 불교 활동을 담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나마 하동 쌍계사가 차문화를 통한 포교에 주력하며 하동 불심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매년 5월 열리는 하동야생차문화축제 기간 동안 쌍계사 경내에서 스님들이 다도시연회를 열어 일반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가 하면 (사)한국선다회(이사장 고산)를 구성, 진감초의 헌다례와 녹차세미나를 개최하며 차 문화 저변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쌍계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하동사암련은 매년 한차례 섬진강에서 방생법회를 열고 있으며 지리산 위령재를 통해 지난 역사의 아픔과 한을 풀어가고 있기도 하다.

아자방(亞字房)으로 널리 알려진 칠불사는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이곳에서 수도 후 모두 성불했다고 전해지는 대표적인 수행 도량이다. 예로부터 동국제일선원(東國第一禪院)이라 하여 금강산 마하연(摩訶衍)선원과 더불어 남북으로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 참선도량이다. 지금도 운상선원엔 평생 걸망하나 짊어지고 공부외길을 가는 수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하동청년회, 하동 중고등학생 법회 등도 칠불사에서 명맥을 잇고 있다. 15년 전부터 활동해오던 하동청년회가 내년부터 새롭게 활동을 시작할 예정으로 수행과 실천을 원하는 젊은 불자들을 수용하고 있다.

 # 남해 남해불교는 푸른 바닷물에서 갓 건져 올린 해초처럼 싱싱하다. 불교가 가진 무궁무진한 재료로 맛깔 나게 만든 복지, 포교 프로그램들이 넘쳐난다. 남해군민들은 물론 남해에서 활동하는 스님들과 불자들 스스로가 뿌듯함을 느낄 정도로 최근 남해 지역의 불교 활동상은 두드러진다.

그 모든 활동들의 중심에는 남해 불교의 맏형, 보리암이 버팀목이 되고 있다. '보리암 주지로 어떤 스님이 왔는지에 따라 남해불교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 남해에서 보리암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할 수 있다. 89년 묘유 스님이 부임한 이후 남해불교 전반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하자 남해불교는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남해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불사 재정확보에 보리암이 절대적인 역할을 해주는데다, 남해사염련 활동에도 적극 나서면서 불교가 남해 각지의 생활로 다가설 수 있게 됐다.

보리암 자체도 확 달라졌다. 냄새나는 화장실이 사라졌고, 산신각, 종무소, 요사, 의상대, 전망대가 재단장됐다. 많은 이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묘유스님의 뜻에 따라 장기 불사 계획이 수립돼 불사중이다.

그중에서도 관심을 끄는 불사는 보리암이 있는 금산의 전깃줄을 땅속으로 묻는 것. 산에 거미줄처럼 엉켜 금산의 비경을 망쳐놓던 전깃줄을 땅속에 정리해 '비단'이라는 뜻의 금산이 본모습을 찾게 됐다.

화방사(주지 효천)는 남해 전역을 누비며 불교를 실질적으로 알리는 남해 불교의 일꾼이다. 화방복지원을 설립, 노인무료복지시설인 화방동산을 운영한 지 2년.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노인복지를 도맡아왔다. 이 밖에도 도시락 배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이동목욕 차량 사업 등을 펼치며 없어서는 안 될 복지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남해자활후견기관에 선정돼 간병인 파견사업, 집수리 사업, 청소사업단 등을 꾸려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남해읍 포교당 법흥사의 변화에 눈에 띈다. 허물어져가는 남해 관사였던 법흥사는 이제 51평 규모의 외 7포, 내 9포의 전통목조양식의 대웅전을 갖추고 11월 29일 고산 스님을 초청, 준공 및 봉불점안법회를 봉행하게 된다. 남해읍 중심에 우람하게 중창된 대웅전은 남해불자들의 자긍심을 대변하며 포교와 수행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진주 · 하동 · 남해 = 천미희 기자

■ 주목! 여래원 황토찜질방

피로는 가고 신심은 쑥쑥

진주 여래원엔 주지 동봉 스님의 신도 사랑이 온기를 더하는 황토찜질방이 있다. 3~4 사람이 들어가면 꽉 차버릴 정도로 작은 이 황토찜질방은 동봉 스님이 직접 황토를 져 나르고 돌을 쌓으며 1년 정도 걸려 손수 만들었다. 경로당 봉사, 생일상 차리기, 교도소 방문 등의 봉사활동을 마치면 온 몸이 쑤시고 물 먹은 솜처럼 지친 신도들의 피로회복을 위해 만든 것이다. 서로 아껴주는 마음의 온기가 찜질방 온도보다 더 뜨거울 정도. 자원봉사자들은 이곳에서 찜질을 하며 피로를 풀고 또 이어질 봉사를 준비한다.


여래원 동봉 스님이 직접 만든 황토방.

찜질방 땔감도 스님이 직접 도끼질을 해서 마련하고 있다. 동사무소에서 폐 나무가 생기면 가져다 줄 정도이며 태풍으로 부러진 나무도 모두 이곳으로 직행했다. 오늘도 '나무꾼 스님'은 신도들을 위한 도끼질을 멈추지 않는다.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차와 벗꽃 '포교 테마'로



우담 스님
하동 쌍계사 주지
경남불교연합회 회장

쌍계사엔 멀리서 오는 신도들이 많다. 자랑거리로 들리는 말끝에 우담 스님은 사하촌인 화개지역 포교가 안 돼 걱정이라고 말을 덧붙였다. 그만큼 스님은 쌍계사를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사찰로 가꾸고 싶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하촌 정비사업도 사찰과 사하촌 상인들이 두루 득이 되는 정비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게 스님의 지론.

또한 스님은 '차'와 '벚꽃'이라는 매개를 통한 문화적 접근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하동군과 더불어 하동야생차축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경남 지역의 교구본사 모임인 경남불교연합회 회장을 맡아 경남지역 불교 역량을 결집하는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칠불사 복원의 주역



동림 스님
하동 칠불사 주지

동림 스님 방 한쪽엔 개미들을 위한 과자 부스러기가 놓여있다. 개미들이 먹이를 찾아다니다 밟히거나 쓸려 죽는 것을 막기위한 스님의 배려다. 개미들과의 공생이 아름다운 동림 스님. 통광 스님의 맏상좌인 스님은 칠불사로 출가해 관음전, 대웅전 불사를 통광 스님과 함께 한 칠불사 복원의 산증인. 스님은 차량도, 길도 변변히 없었던 당시, 목재를 인력으로 옮기며 힘겹게 불사를 마무리했다. 선방으로 떠났던 스님이 3년 전 칠불사 주지 소임을 맡으며 가장 먼저 한 일은 칠불사로 오르는 진입로 재정비. 자연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진행된 불사는 자연과 공생하는 스님의 면면을 또 한번 보여주었다.

불국정토회 30년 이끌어



동봉 스님
진주 여래원 주지
불국정토회 총재

"불교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 평소 신도들에게도 늘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봉 스님은 진주 지역의 복지를 구석구석 챙기고 있는 불국정토회를 만들었다. 스님은 수행, 정진, 포교 모두 앉아서는 안 된다는 지론에 따라 소년소녀가장 돕기, 독거노인을 위한 경로잔치, 재소자위문법회 등 소외되고 아픈 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베풀어왔다. 벌써 30년이 넘도록 이어진 스님의 실천력을 불국정토회 회원들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무엇이든 나눠주길 좋아하는 스님이 가장 아끼는 재산은 재소자들이 보내온 편지들. 위문 법회에서 인연이 된 재소자들이 편지를 보내오면 아무리 바빠도 언제나 친필로 답장을 보낸다.

청담·고암 스님 원력 계승



혜오 스님
진주 연화사 주지

성당과 나란히 위치한 연화사는 진주 도심 포교당의 역사가 서린 곳이다. 12년 전 이곳 주지로 부임한 혜오 스님은 청담, 고암 스님의 수행 정신이 깃든 이곳을 재가자들의 수행 도량으로 만들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쇠락해가는 도량을 일신한 후 가장 정성을 기울인 불사는 시민선방 건립. 목재로 스님들의 선방에 버금가는 선원을 조성하고, 사물함과 차를 마실 수 있는 다실을 갖춘 재가자들의 휴식공간도 마련했다. 연화사에서 가장 좁고 열악한 공간은 주지실일 정도로 신도들의 수행과 편의를 먼저 배려해왔다. 특히 어린이 포교에 대한 앞선 관심으로, 넉넉지 못한 사찰 부지를 쪼개 연화유치원을 건립, 새싹 불자들을 길러내는 터전을 일궈놓았다.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공심'강조하며 불사



묘유 스님
남해 보리암 주지
남해불교련 회장

보리암에 온지 6년. 8채의 당우를 다시 지었거나 보수했고 아직도 불사가 진행 중이다. 시주밥 먹었으면 '공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불교 전체, 남해 전체를 위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 남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사나 행사 대부분에 보리암의 재정적 지원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남해의 맏형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문사 요사채, 법흥사 대웅전, 운대암 불사 등에 천문학적인 불사금을 조달하는 한편, 연간 1억이 넘는 재정을 장학금,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하면서도 더 못 주는 심정이 안타깝다고 할 정도로 주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

어린이포교·종교화합 앞장



혜문 스님
남해포교당 법흥사 주지

"제대로 된 법당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다 허물어져가던 가난한 포교당에 부임한 스님은 부처님 전에 이렇게 발원해왔다. 발원덕분에 51평 규모로 전통 목조 양식의 대웅전 불사가 묘유 스님의 도움덕에 기적적으로 성사됐다. 부임 직후 성당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포교당의 특징을 살려 크리스마스 때면 성탄 축하 메시지를 걸었고 그 후 초파일이면 성당 벽에 연등이 걸리고 있다. 가장 마음을 기울이는 부문은 어린이 포교. 80년대 초 포항에서 150명이 참여하는 어린이법회를 혼자서 꾸릴 정도였던 스님은 남해에 와서도 제일 먼저 연꽃어린이집을 시작했다.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주지실을 조립식 건물로 옮겨 불편을 감수했을 정도.

복지불사로 지역에 '효도'



효천 스님
남해 화방사 주지

강원시절 도반이 양로원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섰던 것이 효천 스님과 노인 복지와의 첫 인연. 5년 전 '복지가 곧 포교'라는 생각으로 복지에 관심을 기울인 끝에 지금은 노인들을 위한 무료 복지시설인 화방동산 원장이 됐고, 남해지역 노인복지의 선두에 섰다. 과감한 투자와 전문가 채용으로 불과 2년 만에 남해지역의 복지에선 빼놓을 수 없는 법인이 됐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들 노릇을 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화방동산을 찾는 스님은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화방동산 부속동을 준공, 어르신들에게 좀 더 편안한 여생을 약속하고 있다. 남다른 행정 능력과 추진력을 갖춘 스님의 활동은 불교에만 국한되진 않는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 대표를 맡으며 남해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체를 이끌고 있기도 하다.

생활불교 심기 평생화두



윤대권 거사
진주불교회관 이사장

진주불교회관이 운영하는 불교대학에 불교를 배우러 왔다가 현재 진주불교회관 살림을 총괄하는 이사장이 됐다. 진주불교회관을 통해 신행생활 자체가 사회활동이 되는 불국토를 실현하고 싶었기 때문.

사회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윤 이사장은 앞으로 불교가 사회속으로 좀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며 어린이집 수탁, 복지사업 등을 구상 중이다. 동문들과 더불어 봉사활동을 하고 개천불교음악제를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하는 이유도 모두 불교의 대중화로 귀결된다. 벼룩시장을 통한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회관을 진주 재가자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중심으로 키우고 흩어진 불심을 하나로 모으는 일, 그것이 윤대권 이사장의 요즘 화두다.



안국선원은 7군단 호국상승사에 범종각을 건립 · 기증했다. 사진은 타종하는 모습.



안국선원은 재가불자들에게 화두수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간화선 수행열풍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재가불자들이 서울 안국선원에서 안거에 들어 용맹정진하는 모습.

집중수행 · 점검으로 간화선 지도

대형 도심사찰 성공비결

1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2 구룡사
3 능인선원
4 부산 삼광사
5 안국선원
6 한마음선원

간화선이 불자들의 보편적인 수행법으로 자리잡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안국선원. 최근 거세게 일고 있는 재가불자들의 수행 열풍의 진원지를 따라 가다보면 안국선원(원장 수불)에 이르게 된다. 그만큼 안국선원의 간화선 수행을 통한 포교는 일찍, 서서히 빛을 발해 왔다.

1989년 10월 안국선원이 부산 진구 가야동에 개원할 당시 첫해 신도수는 2천여명. 15년만인 올해 부산 안국선원은 9배가 늘어난 1만8천명의 신도를 거느린 대형사찰로 자리매김했다. 또 96년 서울과 99년 창원에 선원을 개원해 각각 7천명, 1천명의 신도가 안국선원을 찾고 있다. 여기에 미국 L.A.와 휴스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분원을 설립해 한국불교를 세계화하는데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 안국선원의 경우 96년 개원당시 서초동의 80평 임대건물에서 200여명의 신도들이 모여 법회를 열었으나 2001년 가회동에 600여평 규모의 선원을 개축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이처럼 안국선원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스님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간화선 수행을 재가불자들의 수행법으로 끌어들인 것이 주효했다. 재가불자의 수행에 대한 갈증이 안국선원에서 간화선과 스승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풀린 것이다. 재가불자 안거를 실시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수행하고 싶으면 안국선원으로 모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다. (02)732-0722, (051)892-9803, www.ahnkookzen.org

현대인 생활패턴에 맞춰 하루 6시간 안거 진행
'신도'되기 어려워…장학사업 등 대외활동 활발

●간화선 생활 · 대중화 '일등공신'

재가불자 간화선 수행도량으로 유명한 안국선원. 일년 두 차례 실시되는 안거 때는 불자들로 가득 차 발 디딜 공간이 없을 정도다.

"바른 불교를 해보겠다고 이 절 저 절 다니기를 십수년, 안국선원에서 비로소 가야할 길을 찾았어요. 이 법당에 있는 불자들은 그렇게 모였어요. 이제는 '이 길 따라가면 내가 찾던 불교가 보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국선원 총신도회장 천양자(64 · 무량심)보살이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이다. 여기저기를 찾아다녔지만 원하는 가르침을 얻지 못해 답답했던 가슴의 응어리를 풀어준 곳이 바로 안국선원이었다. 천 회장은 안국선원에서 자세한 간화선 수행법을 접한 후, 도반들과 함께 화두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안거라고 하면 대부분 스님들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안국선원은 이같은 통념을 깨고 재가불자 안거를 진행함으로써 재가불자들도 간화선 집중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초심자 과정을 마친 신도만 참가할 수 있는 안국선원의 안거대중은 1천5백명을 넘어선다. 올 하안거때 방부를 들인 불자 수는 부산 안국선원 6백여명, 서울 안국선원 8백여명, 창원 안국선원 1백30명이었다.

안거 방식은 불자들의 생활패턴에 맞춰 운영된다. 선원에서 오전 · 오후 각각 2시간, 가정에서 2시간 등 하루 6시간으로 정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배려했다. 하루 6시간씩 화두드는 안거대중은 선원장 수불 스님의 점검을 받으며 용맹정진한다. 스승과 공간이 마련됐으니 훌륭한 수행여건을 갖추게 된 셈이다. 안국선원이 재가불자들의 최고 참선도량으로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안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안국선원에는 4백명 이상이 늘 화두에 몰두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재가불자들이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화두를 놓지 않는 점이 안국선원의 저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총신도회 산하 모임에 자동 배속

안국선원 신도들의 자긍심은 상당히 높다. 아무나 신도가 될 수 없는 까다로운 등록과정과 사찰운영 및 봉사활동 참여, 잘 짜여진 신도조직체계 등에서 저절로 자부심이 몸에 밴다. 수행을 통해 얻는 높은 만족도도 자긍심을 높이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먼저 안국선원에 신도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계종에서 정한 신도 기본교육 외에 행해지는 초심자 과정의 별도교육이 그것이다.

초심자 과정은 여느 사찰과 달리 초심자법회와 집중수행으로 이뤄진다. 일단 화두공부를 신청한 불자들은 초심자법회에 참가해 수불 스님의 '종교를 믿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법문을 듣는다. 이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안국선원에서 1주 내지 10일 가량의 집중적인 화두공부를 해야 한다.

초심자들은 매일 수불 스님의 점검을 받고,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법명을 받을 수 있다. 아무나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50%정도만이 간신히 '합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출되는 인원은 매월 50~80명에 달한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친 다음 신도용 법복을 입을 수 있으며, 안거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신도가 되면 연령 및 신앙 경력 등을 고려해 총신도회 산하 각종 모임에 자동으로 배속돼 신행과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

총신도회는 고선회, 도림회 등 7개 모임으로 구성된 거사회와 대각회, 성불회 등 30개의 모임을 거느린 보살회로 구성돼 있으며, 선원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총신도회는 부산, 서울, 창원의 안국선원 건립불사를 비롯해 해외분원 건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사를 총괄하는 등 사찰운영을 주도한다.

신도들은 이 외에 다도회, 꽃꽂이회, 산악회, 합창단 등의 특별 활동을 통해 여가 및 봉사활동을 벌이면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총신도회는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불국토 지원, 보리방송문화상 상금전액 후원, 12사단과 7군단 법종각 건립불사 지원 등 대외적인 활동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안국문화원·해외분원 등 '세계속으로'

안국선원은 2001년 재단법인 설립을 인가받아 '(재)조계종 안국선원'으로 한단계 끌어올리는 변화를 시도했다. 내년 4년 개원 예정인 부산 안국문화원에서도 업그레이드된 안국선원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기공해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건립중인 안국문화원은 3천6백여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2천평 규모로 총 3개동의 종합불교회관이다. 250평의 대웅전은 1천여명이 동시에 정진할 수 있는 규모다.

안국문화원은 불자들의 신행 · 수행공간은 물론, 교육 · 사무공간, 문화생활공간을 갖추고 간화선과 불교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도심속의 수행 · 교육 ·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간화선 불교대학, 각종 불교강좌,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개교하는 불교대학은 간화선을 주요 커리큘럼으로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불교대학과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의 선불교를 세계속에 알리기 위한 해외분원 설립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설립돼 있는 미국과 뉴질랜드의 3개 분원 외에도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지에 내년 상반기중 새로 분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원활한 해외포교를 위해 국제선연구원을 중심으로 영문불서 발간, 법문 번역, 외국인을 위한 기초반 개설 등 지원활동도 강화해 나간다.

전 · 현직 대학교수, 문인, 사업가 등으로 구성된 안국선연구원은 재가불자들의 수행풍토 확산을 위해 '간화선 수행지침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안국선원은 꽃꽂이, 합창단, 다도회 등 특별활동을 통해 신도들의 봉사 ·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사진은 다도반의 강습 모습.

인터뷰

"사찰의 힘, 신도들에게서 나옵니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신행도 중요하지만 수행이 더 중요합니다. 수행이 빠지면 반쪽의 불교를 믿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재가불자를 비롯해 일반인들에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사진)은 참불교를 펴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계종 종지에 따라 간화선을 근간으로 하는 안국선원을 개원하고 재가불자들을 이끈 것도 이같은 신념에서다.

수불 스님의 생각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다. 포교의 길을 나선 이상 불교의 참맛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간화선의 대중화 · 생활화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재가불자도 간화선 수행을 해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참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바로 보고 불성을 닦는데 남녀노소, 종교를 가릴 것이 없습니다. 간화선이라는 바른 길이 있는데 다른 길을 택할 이유가 없지요."

수불 스님은 사찰운영에 있어서도 신도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사찰 운영은 물론 크고 작은 모든 불사를 신도들의 힘으로 이루도록 해, 안국선원 신도들의 자긍심과 주인의식은 대단하다. "사찰의 힘은 신도들에게서 나온다"는 스님의 믿음은 그대로 적중했다.

수불 스님은 수행자에게 있어 좋은 스승을 만나는 일만큼 큰 복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좋은 스승에게 배워야 바른 가르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가불자도 마찬가지다. 좋은 스승 밑에서 공부해야 참불자가 된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는 스승이 있어야 참선이든 염불이든 제대로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가불자들도 반드시 스승을 모시고 공부하길 바랍니다."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봉선사 일주문 상량식 현장

일주문에 '福藏'이 모셔진 뜻은?



"오늘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하면 떠오르는 4무(四無=일주문 · 암자 · 입장료(문화재관람료) · 큰 법당(대웅전) 한자) 가운데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봉선사에도 이제 일주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11월 5일 새로 건립되는 봉선사 일주문 상량식에서 주지 철안 스님의 감격스런 한마디였다.

청량한 가을하늘 고운 단풍이 화려한 광릉 봉선사에서는 조실 월운 스님, 회주 밀운 스님, 주지 철안 스님을 비롯 조계종 25교구 본말사 스님들과 신도 200여명이 모여 일주문 상량법회를 봉행했다. 상량식이 시작되자 월운 스님이 직접 작성한 상량문을 능엄학림 중강 정원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렸다.

지난날 예종 원년(1469)에
선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이절을 창건하니
칸수로 따져 89칸이었네.
임진 병자 두 난리에 모두가 불탔는데
낭혜와 계민 두 스님의 주선으로 복원한 이래,
사격은 교종본산에 이르렀고
(중략)
꼭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일주문이 없이
마실 집과 맞닿아 있으니
마치 즐비한 고궁이나 재실 같아서
찾아오는 이들이 신심내기에 부족했네(후략)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맨 오른쪽)과 주지 철안 스님(왼쪽 끝) 등이 새 일주문 천정복장에 들어갈 청동수장고의 덮개를 봉인하고 있다.





천정복장에 올릴 청동수장고는 불교식 '타임캡슐'. 오른쪽은 수장고 봉안물 중 하나인 현대불교신문 CD.

월운 스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상량문 봉독을 마치자 정인 스님의 신중작법이 이어졌다. 정인 스님의 염불소리에 맞춰 주지 철안 스님과 산중의 어른 스님들은 곧 올라갈 상량보의 파여진 홈에 상량문과 향을 넣고 봉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후대에 이 문을 중수하는 이들이 봉함을 열면 일주문의 내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날 상량식에서는 상량문 외에 다른 하나가 더 추가됐다. 상량보 위에 '천정복장(天井福藏)'이 올라간 것이다. 보통 불상을 봉안 때 '복장(腹藏)'을 넣는 의식은 흔하지만 건축물에 '복장(福藏)'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봉선사에서는 이번에 특별히 가로, 세로 너비가 70cm인 초대형 청동 수장고(收藏庫)를 마련했다. 수장고 제작은 사리함을 전문으로 만들어온 금속공예가 이종길 씨가 맡았다.

철안 스님이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수장고에 30여 가지 복장물을 순서대로 차곡차곡 넣었다. 먼저 밀운 스님이 평소에 모시던 종유석 부처님이 들어갔다. 다음으로 밀운 스님이 대종사 법계 품수 때 받은 불자(拂子), 당시 입었던 가사 장삼, 목발우 등 불교용품 일습이 놓였다. 불교관계 논문 40여권, 각종 경전, 사경들도 포함됐다. 이밖에 고려대장경 CD, 사리탑, 월남침향, 백두산 천지의 돌, 봉선사본 말사지(1950刊), 금강저, 동국역경원 불교성전, 현대불교신문 창간호부터 최근 10년 동안의 PDF파일이 담긴 CD, 불교신문 창간호 동판, 도목수 김배능 거사의 대패 등이 함께 봉안 됐다. 마지막으로 철안 스님이 소장하던 티베트 구게왕국 출토 '티베트장경'이 들어갈 무렵 밀운 스님은 붉은 팥 한 줌을 들어 복장물을 넣는 대중들을 향해 뿌렸다. 액막이였다. 그동안 신도들은 '화엄성중'을 목청껏 외치며 정근을 이어나갔다.

뚜껑이 닫히고 무명천으로 사방을 묶은 청동함은 곧 일주문 지붕 아래로 들려올라 갔다. 봉선사 일주문의 천정복장은 일종의 불교식 '타임캡슐'인 셈이다. 하지만 타임캡슐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단지 개봉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불교 복장은 불사의 영험을 비는 고차원적 의식이라는 점에서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철안 스님은 "일주문에 복장(福藏)을 하게 된 것은 시대의 문화 · 사회 · 역사성이 더해지는 것이 좋겠다는 어른 스님의 뜻에 따라 산문을 들어서는 대중들이 머리위에 경전을 이는 것과 같은 공덕이 쌓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우리시대 문화 · 정신 영구히 간직
청동 수장고에 30여종 넣어 봉안
가사 · 논문 · 현대불교 CD 등 담아



청동수장고 안에 넣은 복장물들. 우리시대 정신 · 문화를 상징하는 경전 · 가사 · 봉선사지 · 불자 · 각종 논문 등이다.

4개의 기둥이 한 줄로 서서 거대한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봉선사의 일주문은 다포집 가운데서도 가장 화려하다는 조선후기 양식의 '외 9포' 형식이다. 지난 8월부터 고건축장 김배능(중요무형문화재 제439호 기능보유자) 거사가 도목수를 맡아 일주문 불사를 진행해 왔다. 기둥에 쓰인 목재는 밀도가 높고 단단해 물에 가라앉는 아프리카산 특수목 '부빈가'를 사용했다. 그 밑으로 기둥을 받치는 화강암 하나의 무게는 무려 7톤이나 나간다. 김배능 거사는 "100~200년 후에도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사찰장엄의 전형을 만든다는 원력을 세우고 불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일주문 낙성은 오는 12월 15일 경.

처음 일주문 불사를 계획했던 前주지 일면 스님은 이날 사중 소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일주문은 사찰로 들어서는 첫 문이며 한마음으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주문의 모양이 기둥 한 줄로 서 있는 것은 어디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곧바로 서있고 이 문에 들어서면 누구나 중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라며 일주문 건립 의의를 되새겼다.

회주 밀운 스님도 "산문을 연 969년 이래 1000여년 만에 처음으로 일주문이 생겼다"며 감격스러워 했다.

대중들이 반야심경 봉독이 시작하자 상량보가 기중기에 걸려 천천히 올라갔다. 상량보가 위치를 잡을 무렵 일제히 "불! 법! 승!" 삼보를 외치는 대중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꿍꽝' 거리며 상량보를 두들기는 목수들의 망치 소리가 광릉 숲을 퍼져나가는 가운데 이날 상량식이 마무리 됐다.

봉선사=조용수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11월 27일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출발

여행경비 : ₩850,000원 (10명이상 출발)

일 시	교통편	기 간	일 정
11월 27일	MU5042	07:00 09:05/11:30	인천 공항 모임 인천 출발 / 상해 도착 임시정부, 옥불사 참관 호텔휴식
11월 28일	고속페리	09:05/11:30	선편으로 보타산 이동 조음동, 보제사, 해제사, 남해 대불 참배 호텔 휴식
11월 29일	고속페리	13:30/16:00	선편으로 낙가산 이동, 낙가산 참배 선편으로 영파 이동 / 아육왕사, 천동사 순례 항주로 이동 / 호텔 휴식
11월 30일	전용버스		서호유람, 영은사, 육화탑 참배 상해로 이동 / 호텔 휴식
12월 1일	MU5041	09:15/11:55	항공편으로 상해 출발 / 인천 도착

※ 개인 경비 외에 모든 경비 포함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호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저사, 응화궁)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20,000원
3. 천진, 북경, 오대산 7일 (운강석굴, 화엄사, 현통사) ₩620,000원
•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팁 불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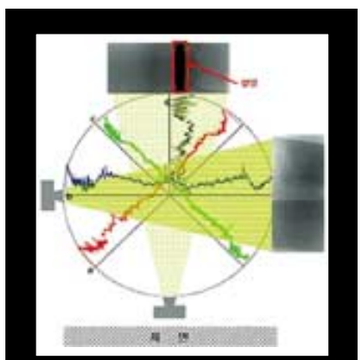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85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85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80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80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179만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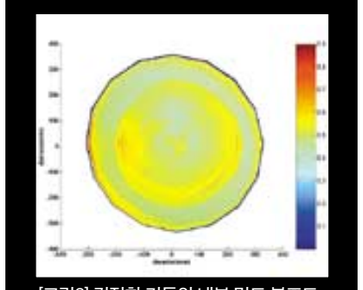
사찰용 목재 "속 보고 씁니다"

기둥 · 대들보 등 핵심 자재 '비파괴검사'로 사전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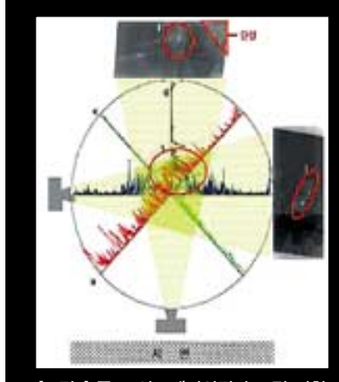
이전제 교수팀 조계사 대웅전 공사에 첫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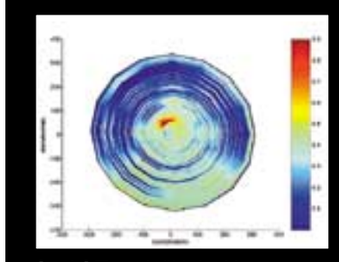
[그림1] 기둥27의 X레이사진과 드릴 저항검사 결과. 검은 부분은 할렬(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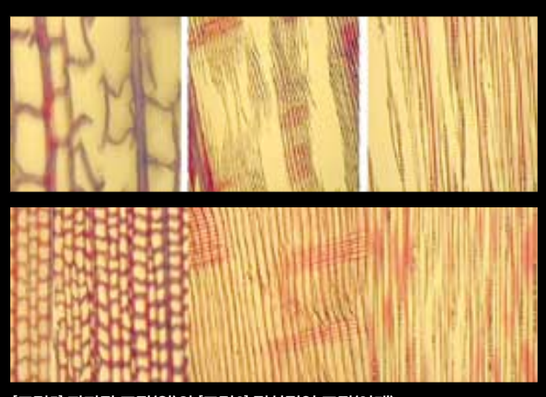
[그림2] 건전한 기둥의 내부 밀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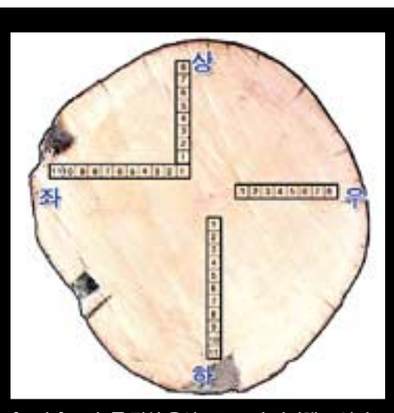
[그림3] 중보5의 X레이사진과 드릴 저항검사 결과



[그림4] 중보5의 내부밀도 분포도.



[그림5] 파괴된 조직(위)와 [그림6] 정상적인 조직(아래).



[그림7] 그림5를 정상 육안으로 보면 멀쩡해 보인다.

기둥, 대들보, 중보 등에 사용되는 전통 사찰건축의 핵심적인 부자재인 목재의 가장 큰 약점은 미생물에 의한 부후와 곤충 등에 의한 식해(食害)에 취약하다는 것.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한 목재의 변질과 질적 저하 현상을 열화(劣化)라 한다.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열화 상태가 심각한 부재를 교체해야만 한다. 열화 상태 판단은 육안에 의존하는데, 육안으로 내부 상태를 완벽하게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부재를 잘라 속을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같은 딜레마를 해결해줄 수 있는 비파괴검사법이 이전제 서울대 교수팀(임산공학과)에 의해 개발됐다.

비파괴검사법이란

이 교수팀은 직접 개발한 열화상태 비파괴검사법을 조계사 대웅전 공사에 적용, 육안으로는 건전해 보이는 기둥과 보의 내부 상태를 알아내기 위한 연구 '비파괴검사법을 이용한 조계사 대웅전 주요 목재부재의 열화상태 조사'를 최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육안으로는 건전해 보이는 목재에서 심각한 손상을 발견하는 등의 개가를 올리며, 비파괴검사법의 효과를 입증해보였다.

이번 연구에서 이 교수팀이 비파괴검사에 사용한 주요 방법은 X레이 · 드릴 저항검사. 원래 초음파검사법도 사용하지만 직경이 60~70㎝나 되는 조계사 대웅전 기둥에는 초음파검사법이 무용지물이어서 제외됐다.

X레이검사는 부재 내부의 전반적인 열화상태 파악과 결함의 존재여부 및 위치 · 크기 확인에 활용됐고, 드릴저항검사는 X레이검사를 통한 부재 내부의 열화부분을 집중조사하고, 내부상태를 확인하는 데 활용됐다.

드릴저항검사란 드릴이 회전하면서 목재에 구멍을 내면서 목재로부터 받게 되는 저항값을 측정, 이를 영상화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단면 영상으로 만들어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술은 검사법의 핵심. 이 교수팀은 열화상태 비파괴검사법 개발에 들어간 3년여 전부터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어 목조건축물 해체보수공사에서 나오는 폐부자재를 수거해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한편, 데이터 처리 기술을 개선해왔다.

#사례1 - 틈은 있지만 건전한 경우

연구팀이 기둥27로 명명한 이 부재는 육안으로 틈(할렬)이 확인되는 경우다. 이 기둥의 한 지점에 대해 직각방향으로 X레이를 촬영하면 [그림1]과 같은 사진이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밝은 부분은 부재의 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어두운 부분은 밀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어둡게 나타나는 부분에서 부재에 할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드릴저항값은 기준선에서 일정하게 떨어져 있는데, 이를 통해 저항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밀도가 높고, 조직이 건전함을 의미한다.

이 단면의 상태를 영상화한 것이 [그림2]다. 파란색은 밀도가 낮음을, 빨간색은 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색상으로 미루어 이 부재는 건전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결론) 이 부재는 전체적으로 할렬이 나타나지만 열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할렬이 압축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므로, 기둥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은 없다. 따라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할렬이 커지지 않도록 철륜을 설치할 필요는 있다.

#사례2 - 건전해보이지만 열화가 심각한 경우

중보5는 할렬이 짧게 나타나는 부재인데, 할렬이 없는 부위의 단면을 조사해봤다. [그림3]의 X레이 사진부분을 보면 상대적으로 밝은 부분이 많으므로 밀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열화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드릴저항값에서 또한 c 방향의 값이 0에 가깝게 나타나는 등 밀도가 상당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영상으로 표현하면 [그림4]와 같이 나타났다. 이 교수팀은 중보5는 밀도가 낮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하고, 해부학적 분석을 시도해봤다. 그 결과 [그림5]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직이 연결되지 않고 끊어지거나 누렇게 비어있는 부분은 조직이 파괴된 것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림6]과 같아야 한다. 재미있는 것은 [그림5]를 육안으로 볼 때에는 [그림7]과 같이 멀쩡해 보인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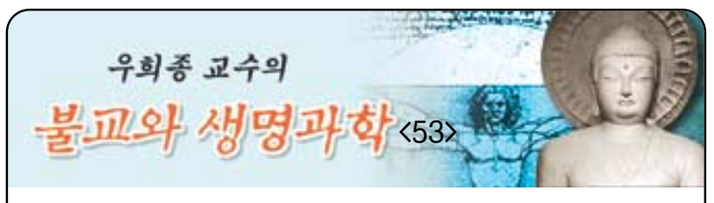
(결론) 이 부재는 열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므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비파괴검사법의 과제

연구를 지휘한 이전제 교수는 앞으로 이 검사법이 △보수공사시 부재교체 여부 판단 △보수공사 필요성 진단에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의 연구성과는 지난 6 · 8월 핀란드와 일본 목구조학회에서 발표돼 큰 호응을 받았다. 이 교수는 오는 11월 일본 목재학회에서 비파괴검사법의 목조문화재 적용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질 계획이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시간과 무소유

생명체는 존재하는 순간부터 주위에 의존하게 된다. 열역학적으로 볼 때 흩어져야만 하는 자신의 운명을 거역하며 잠시나마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위로부터 무언가를 섭취하여 그 에너지 차이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존재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연기적 관계는 결국 소유라는 형태를 통하여 안전한 자신의 존재 유지를 하고자 한다.

생명체가 지닌 이러한 자기 유지에의 끊임없는 욕망은 생존의지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워지지만, 인간은 그 탐욕성에 있어서 매우 독특하다. 사자와 같은 육식동물은 배부르면 옆을 지나가는 사슴이 있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필요한 것을 소유하고도 만족하기 보다는 더욱 소유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경쟁하고 노력한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팽창하면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인간 문명도 인간이 지닌 이러한 모습의 또 다른 한 면일 뿐이다.

소유에 대한 집착은 행복 주지 못해
물질 · 정신 · 시간 다 벗어나야 '자유인'

인간이 지닌 탐욕은 끊임없는 생산과 소유를 미덕으로 하는 자본주의 속에서 정당화되면서 인간들은 소유를 위한 삶 속에서 자신들의 탐욕에 갇혀 평생 개미처럼 일하다가 사라져간다.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속에 빠져 허덕이며 사는 이들에게 행복과 자유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소유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소유의 삶이 될 때 얻어진다는 것을 많은 현인들이 이야기해 왔다.

하지만 무소유의 삶의 완성은 정신적, 물질적 무소유 외에 시간의 무소유로부터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음으로 향해가는 있는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있지도 않는 시간을 상정한 후 그것을 소유하고자 함으로서 스스로가 만들어 낸 시간의 노예가 된다.

시간에 대한 소유를 근거로 하여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은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되면서, 과거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 삶의 무게로 현재를 힘들어 하며,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은 희망의 무게로 현재를 힘들어 한다. 한편, 현재라는 시간을 소유한 사람들은 지금을 만끽하고 즐기기 위하여 삶을 소진하고 있다. 결국 시간의 무소유란 무엇인가. '지금 이 자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살게 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는 시간에 대한 소유마저 비워버릴 때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는 지금 이순간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종종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를 위해 살라는 말은 여전히 시간을 소유하고 그 속에 갇혀 있는 잘못된 표현인 것이다.

불행히도 인간만이 시간을 탐욕스럽게 소유한다. 특히 서양 근대 문명은 과학이라는 방법을 통해 시간의 소유를 조장해왔다. 현재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도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시간 소유량을 증가시키고자 애를 쓰는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진정 대자유인이되고자 한다면 물질과 정신적인 소유 외에 시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아야 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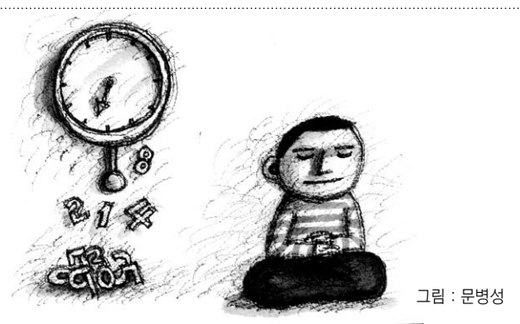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갑신년 冬安居 결재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취운선원에서는 야산 청운큰스님의 지도 아래 참선수행 정진하실 갑신년 동안거 결재 동참 대중을 모십니다.

- **결 재 :** 불기 2548년 11월 26일(음 10월 15일)
- **해 제 :** 불기 2549년 2월 23일(음 1월 15일)
- **입방자격 :** 참선수행에 원을 세운 남녀, 누구나
- **신청기간 :** 불기 2548년 10월 부터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전화접수
- **접수문의 :** 취운선원 종무소 055)383-6479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96

※ 자세한 내용은 취운선원 종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재기간 매주 특별 참선 법문이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취운선원

禪 카이로프락틱, 제3기 교육생 모집

1. 설립취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구제와 더불어, 주며 베푸는 떳떳한 스님을 양성키 위해 **유능한 카이로프락터**로서의 정통교육에 힘쓰고자 설립함.

2. 교 과 목 : 1) 카이로프락틱(허리, 어깨, 골반, 경추등 척추교정술) 이론 및 실기
2) 해부학, 근육학, 운동처방학
3) 경락, 스포츠 맛사지
※ 미국 팔머대학의 교재로 확실히 강의함

3. 교육기간 : 1) 2급과정 2개월(총 108시간)
2) 1급과정 1개월(총 54시간)

4. 지원자격 : 학력 경력 제한없음

5. 입학일시 : 2004년 11월 11일(목) 13:00

6. 원서교부 및 접수 : 본원 교학과 042)635-8186, 8187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41-14 호산빌딩 內



인 사 말 씀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 2기 교육생을 수련시키면서, 많은 긍지와 보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 스님과 불자님들의 반응 또한 기대 이상이라서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본 연수원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성을 다해 一路 매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정토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포교당 -

- 위치 : 서울 강북
- 법당 : 60평
- 요사 : 60평
- 임대료 : 480/50
- 시설비 : 2500만원

- 위치 : 충북 괴산
- 법당 : 30평
- 요사 : 20평
- 부지 : 1,000평
- 가액 : 1억5천만원

- 위치: 대구근교
- 법당 : 60평
- 요사 : 60평
- 부지: 800평
- 가액: 3억 5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안내

- 서울 3억 / 5억 / 10억
- 경기도 : 7천 / 8억
  11억 / 13억
- 서울. 수도권사찰. 사찰터 다량보유

양도 운영 하실분 상담환영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당안내

- 위치 : 인천 부평동 롯데백화점 부평시장 2분거리
- 특징 : APT밀집, 포교최적지, 시설완전구비됨 (시설비 5천 무료보시)
- 평수 : 3층 – 법당 50평 2층–요사채 50평
- 가액 : 보증금 1억4천만원 월세 90만원

현대불사 018-267-0988

사찰(급) 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7억 (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사찰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3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상담후 결정)

031)826-0376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 부지: 1000평
- 법당: 30평 목조
- 요사: 30평
- 가액: 8억

① 서울 사찰 15억 미만 급히 구합니다
② 충청, 강원도 암자 2억 미만 구합니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사직동 3동
- 평수: 38평
- 전세 1000만원 월세 25만원 권리금 1000만원

051)503-0908
019-291-5558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김천, 상주에서 20분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300만원 (집기일체포함)

011-462-5275

포교당(급) 안내

- 위치: 대구시내 포교 최적지
- 2층건물 중 2층
- 건물: 40평(법당 20평)
- 시설: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5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6-640-8133

사찰(급) 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임
- 대지: 159평
- 총건평: 25평(요사채 12평)
-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8천만원 (답사 후 절충可)

019-503-7959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 110평(전통한옥, 등기필)
- 건물 2동(안채, 사랑채)
-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된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토굴이나 가족휴양처로 최적으로 장소
- 가액 : 9천만원(가격 절충)

041)753-3766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근교
- 부지 : 700평
- 법당 : 30평(목재)
- 요사 : 80평(2동)
- 양도가 : 12억

- 위치 : 경기도 이천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목재)
- 요사 : 30평(목재)
- 양도가 : 6억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 평수 : 42평(4층 건물 중 4층)
- 법당 및 방 4개, 주방, 거실, 욕실
- 보증금 4천만원, 월10만원 시설비 : 1천8백만원

031)338-1356
017-372-8968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울산 중구 반구동
- 평수 : 50평
- 2층 건물 중 2층
- 보증금 5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2천 5백만원

052)293-1237
017-856-361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강동구 길동
- 3층. 약 35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75만원 시설비 2800만원
- 방2, 공양간1, 화장실2, 도시가스시설
- 몸만들어와도 즉시 법회기능

010-9907-3157

산중수련원 및 개인선방안내

- 위치 :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 평수 : 980평(대지 + 전)
- 건물 : 본채 2층(60평, 방 4개, 화장실 3개)
- 별채 1층(10평 방 2개)
- 심야전기, 보일러
- 가액 : 3억 4천만원
- 특징 : 치악산 비로봉이 정면으로 보이는 전통적인명당 마을과 동떨어져 산꼭대기에 위치함

017-470-0170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시장 사거리
- 평수: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아파트 밀집지역 (경남호텔뒷편)
- 평수 : 40평
- 가액 : 2천만원에 월 180만원 시설비는 답사 후 결정

016-396-1624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평수 : 대지 48평
- 건물 : 법당 1동, 산신각 1동
- 요사채 1동
- 가액: 삼존불 포함6천만원

041)841-3090
017-337-4168

사찰(불교대학) 안내

- 위치 : 인구 60만 대구달서구소재
- 건물 : 3층(70평)법당30평 방 4개
- 특징 : 8차선대로변 지하철역 1분거리(편리한교통)
- 가액 : 보증금 2천5백만원 월 70만원(시설비 : 답사후 상의)

011-9366-8929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만촌동 도로변
- 4층 건물 중 3~4층 사용
- 평수 : 220평
- 가액 : 보증금 7천만원 월 170만원

053)745-3334
017-501-7369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인근섬
- 대지 : 120평, 밭200평
- 법당 : 30평(삼존불,각단탱화)
- 건물 : 요사채 18평(방 4개)
- 특징 : 불심있는 지역임
- 가액 : 1억 7천만원 (답사 후 조정可)

011-9576-1648
054)832-1648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시장 2분거리 버스정류장 근접
- 평수 : 45~50평
- 삼존불,신중탱화,산신,용궁, 큰방2개,베란다,욕실,집기일체
- 전세 : 5천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8422-7772

사찰안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 백운산 운장사 법당
- 10m 돌탑영험부처님
- 가액 : 1억 7천 5백만원

033)766-0057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 면적: 임야 대지 포함 11400평
- 법당: 목조 40평
- 요사: 벽돌 110평 1동 창고겸 요사 45평 1동
- 가액: 3억7천만원

011-9457-706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 150평
  법당목조 : 12평
  요사 벽돌 : 25평
- 가액 : 8500만원

016-652-7547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 팔공산
- 2층 건물, 건평 75평
- 법당, 방5개, 주지실
- 가액 : 1억 8천만원

011-541-998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동래 사직운동장옆
- 4층건물. 35평, 옥상사용가능
- 가액 : 전세 4천(시설비절충)
- 완벽시설. 법회 즉시 가능
- 주지스님 이동으로 급매원

018-622-9865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대사찰
- 도량내에 승용차 80대 주차가능 교통편리함
- 가액 : 16억

011-563-1545
018-565-1229

사찰(급)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대지 : 110평
- 법당(40평)
- 요사채(1~2층) 60평
- 시설 : 소불 천불 모셔져 있음
- 가액 : 3억 5천만원

011-9853-3843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12만원 집기 포함 시설비 1500만원

011-9238-9960

암자안내

- 위치 : 서부 경남 (동 진주 I·C 30분거리)
- 면적: 임야 약 5000평중에 등기 900평
- 특징: 산세가 수려하고 물 좋은 20년된 암자
- 가액: 1억5천만원(절충가능)

055)674-7839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 땅 : 1000평(등기상) 과외로 300평
- 법당 : 20평, 요사채 2동 종교부지, 시설완벽
-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 3억(절충가능)

017-403-6627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시장 뒷편
- 평수 : 60평, 2층 – 방 3개 3층 – 방1개
- 전세 : 1천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 2천만원

051)554-2406
051)556-1457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3분거리
- 3층 건물에 2층 50평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 1,000만원

017-347-740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광명
- 평수 : 60평
- 5층 5층 건물
- 보증금 2000만원 월 70만원
- 삼존불, 산신각 , 방2개
- 시설비 차후 결정

011-750-5424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북구 소재
- 부지(건물) : 330평
- 법당 : 30평, 공양간 30평 요사채, 부속건물1층완비
- 현재 운영중
- 가액 : 13억(절충가능)

011-817-2889

사찰안내

- 위치: 경남 남해 바닷가(한려수도)
- 평수 : 약 1,000평(대지 516평, 밭 400평) (법당20평, 삼성각10평, 지장단10평, 요사채20평, 기타 : 화장실, 창고)
- 특징 : 인근 골프장과 스포츠 파크 있음
- 가액 : 3억 (한려수도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어 경관이 수려함)

011-627-0290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 평수 : 종교부지 150평 기타 1000평
- 법당 20평, 요사 18평 주지실 5평(황토방)

017-804-3587

포교당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 산현리
- 대지 : 108평
- 법당 : 21평
- 요사 : 20평
- 면소재지, 교통편리함
- 주방 욕실 보일러 완비
- 가액 : 6천 5백

054)533-1477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질양
- 대지 : 216평
- 각 층 : 30평(총 90평) 1층 공양간, 2층 소불, 옥불 3층 법당
- 특징 : 편도 8차선으로 공단입구 교통편리 아파트 밀집지역
- 가액 : 3억 8천(시설비 포함)

011-829-3455

사찰(급)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산외면 길탕리 산세 좋은 명당지리
- 14,200여평 중 대지 200평
- 토목공사 2천평, 조립식건물 25평 창고 25평
- 4차선도로에서 5분거리
- 가액 : 1억 5천만원

043)255-2773
016-402-1159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울산 중구 학성동 부근
- 법당 : 10평,삼존불,각단탱화
- 건평 : 25평,방 1개,공양간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700만원)
- 불사관계로 급 안내함

016-9393-1377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봉덕 3동
- 평수 : 약 80평
- 법당 : 약 25평 정원이 아름다움
- 전통한옥(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1천만원

019-473-7600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충북 제천시(중심지)
- 대지 : 80평 ● 임법당 : 한옥 25평 요사채 : 스라브 1동 15평, 합 : 건평 40평
- 즉시 법회 가능 ● 현재 시가보다 이하
- 가액 : 1억 6천만원

043)648-6422
011-9408-6422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현풍 근교
- 대지 120평, 하천부지 500평
- 2층 법당 23평, 큰방 1, 1층 요사채, 큰방 4, 목욕탕, 창고, 부엌, 다용도실
- 가액 : 9천 5백만원(절충가능)

010-7163-1961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 다세대 주택 3층 건물 3층에 법당 있음
- 가액 : 3억 5천만원
- 대지78평, 건평150평
- 전세보증금 7천 5백만원 포함. 월세 100만원 수익

011-9108-5484
031)416-5484

포교당안내

- 위치 : 성남 밀집 주택지역
- 법당, 거실 넓음
- 방1개, 주방, 화장실, 베란다
- 평수 : 45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
- 시설비 : 후일 지급해도 됩니다

011-678-080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시내
- 평수 : 600평
- 법당 : 25평(전통목재)
- 요사채(전통목재단청), 방 5개
- 지하수 및 주차장 완비
- 가액: 2억

011-563-0108
055)222-9486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인구멸접지역
- 2층 건물 중 2층(32평)
- 법당 : 15평,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포함)

016-640-8133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 신림 IC에서 2분거리 불광사
- 대지 144평, 전답 138평 총 282평
- 절, 방2개, 화장실, 창고
- 가액 : 1억 3천만원

019-290-8130

포교당안내

- 위치 : 대전시 서구 도마동
- 평수 : 50평. 오존불. 주택가 인근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천만원에 월 20만원. 시설비 : 500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0-6412-3993
011-9819-1330

포교당(급) 안내

- 위치: 부산 주례동
- 평수 45평, 3층건물 2층
- 큰법당 1칸, 방 2칸, 입식 부엌 및 화장실
- 법당에 삼존불 및 후불탱화 지장불 및 지장탱화, 신중탱화, 산신불 및 산신탱화, 용왕불 및 용왕탱화 영가단 설치
- 전세 5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모든집기 포함) 1500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함
- 타지역 이사 관계로 급히 연락바람

051)327-0477
019-556-604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 대지: 200평(주차장 600평) 총 800평
- 공터: 400평
- 건축: 법당(고려시대 부처님상 아미타), 요사채, 방. 총 46평
- 가액: 3억 5천(답사후절충가능) (융자 6500만원포함)

011-9378-5637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 부평구 부개1동 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건물 2층내) 법당1, 방2개, 후원1개 대중방 포함
- 주차 : 도로상 일렬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 2800만원 (삼존불, 영단, 복사기, 팩스 etc 집기류 일체)
- 불법홍포와 신심있는 분들을 위해 바로 운영 가능함

017)269-2629
032)517-300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 대지 : 1700평
- 법당 : 30평, 요사채 40평 (방5,주방1,거실,화장실)
- 삼존불 각단탱화
- 특징: 하천댐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쾌적한 공기
- 가액 : 3억 3천만원(답사후절충가능)

016-9771-2736

포교당안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사지 옆 (3층건물중 2층 시내)
- 건평 65평, 법당, 방4개, 거실, 세면장, 부엌, 수돗물 지하수 이용
- 보증금 2000만원에 월50만원 권리금 1500만원(절충가능)
- 집기일체 양도

043)268-9183
017-378-8380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7천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55)323-2858
011-9542-5726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암사동
- 평수 : 약20평, 큰방2, 주방1
- 삼존불, 108 지장 소불
- 월세 35만원, 권부합 2천 3백만원
- 철학관 하실분 환영. 약간의 보시금으로 평생 절을 함께 불사 운영할분 포교원 확장이사 불사중

016-261-2068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certificate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2005년 달력 주문 받습니다
주문전화 02)732-1520 마하몰
사찰명, 주소, 연락처 인쇄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앗사 055-882-3455
016-428-6665

불교 각종 행사 염불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
010-4816-6454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천도재 49재	점안식	용왕산신재	바라나비춤	상가영불	천도시식전문	명리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비구니스님이 만든 야생오미자차
高山에서 자생하는 오미자
기관지,천식,간장병,신장병
쉽게 피로하며 잘 붓는 사람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슈잔드린 함유
055)345-6667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레이키(Reiki · 靈氣)를 배우면
- 누구나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 피로회복/스트레스해소/질병치료 생명력활성화 등 웰빙의 도구
- 우스이레이키 60만원/카루나레이키 40만원
- 교육기간 : 2~3일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전화: 02)720-5719
720-5682

역학개인지도
사주에 필요한 모든것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밝은미래를 여는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神 비법 강의
요즘 불사 어렵죠, 초종파 불문하고 무조건 찾아오세요. 이곳에 선지식 한분 계시니 속지 않을 겁니다. 우주법계가 자신속에 있지만 모르면 道 아니다. 배우고 나면 누구나 훌륭한 道人이 되어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해용사 석담 법경 합장
※좋은인연이란 주고받는 거래일뿐이다. 그게바로 福
- 강 의 : 매주 월 화 수 10시 30분부터~17시 30분 까지 5시간 강의
- 연락처 : 055-573-7832 / 010-3189-3525
- 주 소 : 경남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330번지

신묘한 구성학
사주없이 간단한 숫자만으로
래방객의 래정 및 처한
상황등을 쉽게 알 수 있는
구성학을 개인지도함
(출장가능)
02)2274-0443
019-446-4755

스위스 이태리 강화 온돌마루
(시공비만 받습니다)
연대홈쇼핑 줄시중
~~평 195,000~~ → 115,000
수입업자 → 소비자
(주)크로노하우징
011-850-6355

치 질 치 루
- 치열이 있는분
- 통증이 심한분
- 재발이 잦은분
- 한방비법과 운동요법으로 완전 정복함

(스님들께는 특별보시함)
팔공산 천룡정사
017-533-1356,054)336-0052

제7회안산불교음악제
- 일시 : 2004년 11월 22일(월) 오후 6시 30분
- 장소 :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 극장
- 주최 : 안산 불교연합회 031)492-7060 031)438-2428 안산시불교합창단
- 주관 : 국악중심
- 후원 : 안산시, 불교TV.BBS불교방송 안산시불교합창단

행자모집
신산유곡의 조계종
전통사찰 참선수행도량으로
출가할 뜻이 있는분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011-9221-129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환영)
정릉02)917-3363

공양주보살님
(女)행자모십니다
02)386-0926
011-286-030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출,퇴근 가능. 80만원)
강남구청역 4거리
016-475-1108
010-5541-6568

수행 비구니스님 및 행자모십니다
▷나이 : 20 ~ 40세
부산 시내 포교원
018-801-2355

해를 보고 기도하면 해가 돌아가는 약사부처님가피력으로 신병도 만져서 치료
▷약왕사
031)746-6795
017-257-6795

천일기도부전스님 모십니다
처사님 같이 모십니다
(경남 김해)
011-693-7742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 **대원사**
032)433-5147

부전스님 필요하신 사찰 연락바랍니다
(10년전 강원 졸업)
010-4562-3198

화주보살 구합니다
02)952-7277

부전자리 원합니다
▷ 43세 (비구스님)
016-347-4739

천일기도스님이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50대 초반 비구)
016-853-5519

행자구합니다
출가하여 수행코저 하는자
고졸이상. 19세이상 30세미만인 남자

부전스님구합니다
하루 3분 정근. 예불 마치고 1시간씩
부산시 사하구 시내 (35세미만)
011-509-0124

사찰운영하고 싶은 비구, 비구니,보살님 초빙합니다
철학상담.
약간의 자금 소유자 환영
017-390-0909
02)2201-0796

기도스님 모십니다
(비구스님)
지장기도 잘 하시는분
033)455-2471

조계종 스님 설립 부산 전 지역의 중심이자 전철 교통 중심지에 130평 2층 빌딩(전세임)
산승은 평생 산중환경에 익숙하나 도시환경에는 맞지 않아 포교에 관심있는 인수 받을 능력있는 스님을 찾고 있음.
그리고 40 ~50대의 깊은 불심이 있는 공양주도 구함
- 부산설법원 : 051)441-1430(부산)
- 소백산내원암 : 054)653-1180 (경북) 행자구함

혈당 조절
- 혈당조절 특허물질
- 콜레스테롤 조절성분
- 혈액순환 촉진성분
- 기타 천연성분, 미네랄

특수영양식품

당화혈색소 관리가 합병증 예방에 필수조건입니다.
15일 후에 혈당측정, 2개월 후에 당화혈색소(HbA1c)를 측정 해보면 혈당관리용 제품의 품질을 확인해 볼 수있습니다.
농림부장관 특별상 - 발명 특허 물질
눈밝은 세상 02)2237-8004
일본 수출중!

봉은 불교 미술원
탱화. 벽화 전문
※ 천불탱 괘불탱 팔상탱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관음탱(천수천안) 지장탱 감로탱 지옥탱 팔금강탱 나한탱(오백나한) 산신, 용왕, 독성탱
※ 먹탱화 홍탱화 ※ 무속종합탱(각종족자)
041)541-3545.3547 / 016-751-3545
홈페이지 : www.bongen.pe.kr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1구 493
(불모 오재택의 작품 사진 300여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모 오 재 택

불교, 홍범구주학, 명리학, 한의학 고전, 고대사, 문화사 분야의 출판원고 대필
- 한문고전 번역.
- 천지명양 무차대회, 생전예수재, 구병시식, 천도재 등을 학문적으로 기획하여 집전합니다.

소양호 청평사 토굴
최남석 (일묵) 011-368-3910

연락바랍니다
- 승려가 되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
- 승려가 되고자 하나 불우한 청소년기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분.
- 이미 삭발은 하였으나 조계종 승려가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분께 학비 일체와 승려가 되는데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연락 바랍니다.

조계종 승려(비구니)가 되고자 하는 행자도 모십니다
연락처 02)932-1412 / 934-2230 (팩스겸용) 청화 법조 합장

이십팔숙 특별지도
- 역술과 이십팔숙의 특수비법을 쉽게 설명 — 이십팔숙은 부처님이 설하신 묘법 —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지도 : 대주스님

☎ 02)926-1259 / 011-741-0867

궁중비법 사주명리 학인모집
구. 성수철학원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기간 : 1개월 완성반(주간, 월 ~ 금)
- 지도교수 · 강사 : 백운 성수 (본학회 회장)
- 교육장소 : 본 학회 2층 강의실 (최고시설완비)

전국 최대의 회원 양성 기관임
※ 본학회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시행 합격자에게는 자격증을 수여함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운세 10초내에 맞추면 수강신청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똑같은 사주라도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일이 없습니다.
조상의 흐름을 찾으세요.
http://www.speedunse.com에서 핸드폰 · 카드결제됨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21C는 불교로 간다! 전국 제 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감포도량, 뉴욕도량, 서울도량
- 신입생 주, 야간반 모집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일반신도교육, 조계종포교사배출기관
  - 도심속7층대법당, 최첨단시설
- 행자(예비스님, 남녀) 모집
  - 행자원있음(엘리트 스님양성 - 40세 이하, 고졸이상)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우학스님('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의 저자) 직접지도합니다.
문의 : 011-9852-0075
053-474-8228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교정 : 초급, 고급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임상실습
- 개강 : 2004. 12. 1.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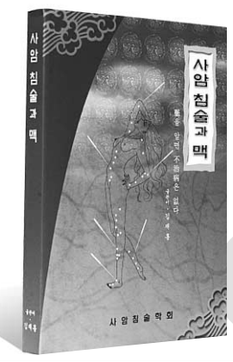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암침술학회
장소 :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더 이상의 획기적인 침술서적은 없다!!!
사암침술의 맥

침술인의 필독서(必讀書)
1. 정확한 취혈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등분법)
2. 황제 내경 맥진법을 하루에 터득 할 수 있다
3. 복합처방으로 난치병도 두렵지 않다
4. 一鍼에 완치 시키는 즉효 요법이 있다
5. 중풍맥을 건강한 맥으로 즉석에서 교정한다
6. 100가지 질병 치료법을 쉽게 터득한다(고급과정)

※득이 없는 막연한 공부는 이제 그만합시다



김재홍 저
505쪽 신국판
정가 80,000원

구입문의: 사암침술학회
02)2267-9136

녹음테이프로 공부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사주배우기가 너무 쉬워졌다)

중국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새로운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개업할수 있다.
中國四柱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끝이없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배우기가 매우 쉽고 자상하며 간단명료해서 구체적이고 논리가 정연함으로서 차분하고 능소 능대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생생하다.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 흥미 진진하게 설명하므로서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녹음테이프를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완성하고 인간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20여년간 강의하고 연구개발한 太極四柱는 오관과 실수가 없다. 中國命理學과 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안내서 무료 배부)

※ 그동안 많은 독자의 호응에 감사드립니다.

-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전화하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테이프(14개)와 교재 代金 30만원
  ▶농협 : 100080-56-022361 (손선영)
- ※ 스님 및 포교사 특별할인 (2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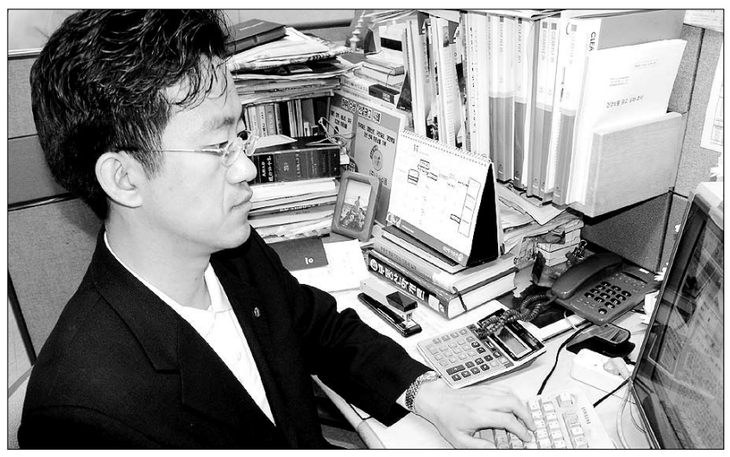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 324-2468 / 326-4585
釜山支部 : (055) 384 - 2303 大邱支部 : (053) 641 - 2334
龜尾支部 : (054) 465 - 2642 慶南支部 : 016 - 274 - 3170
慶北支部 : (054) 553 - 5145

대승불교 사상 대강연회

주제 : **정역(正易)과 대승사상**
(후천사상의 불교적 이해)

- 내용 : 가) 정역의 핵심사상
  나) 대승불교의 본질
  다) 법신사상과 후천사상의 관계
  라) 일승신앙의 의미
  마) 주역에서 본 정토신앙
- 대상 : 스님 및 신도
- 일시 : 2004년 11월 13일(음 10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 강사 : 대승불교대학 학장 **원통**

대구 대승불교대학 부설 범음 · 범패 의식교육원 · 정토사
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헌동 1914-5 (월촌역4거리)
전화 : 053)622-0333 / 011-699-9120



소비자보호원 불자회 김종관 총무가 불교계 정보 사이트들을 서핑하며, 중요소식들을 개인 카페에 올리고 있다.



대한민국경찰불자연합회 김진홍 사무국장이 11월 4일 경찰청 정기법회를 찾아 경찰불자들의 신행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있다.

"우리 직장불교회 소식 내가 알린다"

카페·매거진 운영… 전천후 '불교 알림이'

각종 법회·교리 등 자세한 정보제공
행사 취재·자료 찾기 바빠도 보람 커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지치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각종 신행활동을 펼치는 직장불자들이 많다. 출근길 경전 독송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업무 틈틈이 사경과 참선 등으로 하루를 알차게 설계하는 이들. 주말이면 밀린 잠도 자고 싶고 아이들과 인근 공원이라도 나가고 싶지만,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자비를 실천한다. 하지만 이러한 직장불자 뒤에는 '불교 알림이'를 자처하며 직장 불교회들의 활동사항과 불교계 소식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직접 사진을 찍고 뛰어다니며 관련 정보들을 취합해 불교회 홈페이지와 사보 등을 통해 전하고, 카페나 커뮤니티 등을 개설해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 불교회 가교역할

대한민국경찰불자연합회(이하 대한경불회) 김진홍(67·선의) 사무국장. 이미 경찰제복을 벗은 지 6년이 지났지만, 대한경불회 사무국장직을 맡아 산하 106개 경찰불교회들의 운영지원은 물론 활동을 장려하고 돕고 있다. 사진기를 들고 경찰불교회 곳곳을 누비며 관련소식을 전하는 그의 모습은 이미 모두에게 익숙하다. 경찰불교회 일이면 대소를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며, 직접 사진을 찍고 관련내용을 사이버 경찰서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올려 전국 경찰불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불교회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다른 경찰불교회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신행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지난 10월부터는 경찰불교회와 일반인들의 연계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cafe.daum/knpbuddha)를 개설하고, 불교 기초교리들과 관련행사소식, 경찰불교회의 활동사항 등을 알리고 있다.

"현직 경찰들은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는 업무의 특성상 정기적인 신행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 박현남(43·자성월) 간사 또한 공불련 행사 곳곳을 아 다니며 관련 소식을 홈페이지(www.gongbul.or.kr) 상에 올리고 있다. 감사원 불자회, 건설교통부 불자회, 서울특별시청 불자회 등 소속 불자회들의 성격이 제 각각 인만큼 이들을 공불련 안에서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법회활동 등의 불자회 공통분모를 부각시켜주는 게 효과적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공불련 안의 대의원총회와 관련 회의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해 회원들이 공불련의 운영상황을 항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불련처럼 연합불자회의 경우, 관련 소식은 물론 불자회 운영모습을 이렇게 알리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불자회의 활동에서 본인이 소속된 불자회의 활동모습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보다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니까요."

△ 인터넷으로 포교를…

소비자보호원 불자회 총무 김종관(38·송주) 거래조사국 과장. 그는 인터넷을 통해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있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와 클럽만도 3개. 조계사 청년회 법우들과 함께 하는 불교스터디 모임인 '벗과 다르마'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은 싸이월드 클럽(doban.cyworld.com)을 통해 지인들과 공유하고, 불교계 신문과 각종 모임에서 얻는 불교계 소식들과 기초교리 등의 정보는 네이버 카페(cafe.naver.com/buddhist)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하고 있다. 또한 불교소식 사이트(www.emag21.com)를 운영하며 '연꽃나라의 불교이야기'라는 이메일 매거진을 발행하고, 조계종 중앙신도회(www.joongsin.or.kr) 객원기자로 활동하며 사찰탐방기사를 인터넷 상에 올리고 있다.

김 과장이 이렇게 인터넷 포교사로 활동하게 된 이유는 20여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직장불자들이 일과 신행을 병행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상식과 교계정보들을 인터넷 상에 올려 직장불자들의 신행생활을 돕기로 했다.

"점심시간과 퇴근 후 저녁시간. 인근 사찰을 찾기는 힘든 시간들이지만 직장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불교정보들을 살피고, 각 종 신행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하고 전문적인 정보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불자회원 한범수(56·대광) 잠실역무관리소장 또한 인터넷 포교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카페 '직장불교(cafe.daum.net/officebuddha)'는 불교기본 상식부터 경전해설, 불교사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불교를 접하지 못한 직장인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지만 불교에 대한 기반지식이 없어 안절부절 못하는 초발심자들을 돕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우리은행 불자회원 현동관(48) 은평구지점장과 농협중앙회 불교회원 이종훈(48) 경영검사부 팀장 등 많은 직장불자들이 불교관련 정보들을 사내전산망과 회사 홈페이지 커뮤니티 등에 올려 많은 직장불자들의 신행생활을 유도하고 있다.

△ 전문적인 지식창으로

박수호 중앙승가대 부설 불교사회과학연수소 선임연구원은 인터넷 부처님터 천불동(www.buddhasite.net)을 통해 전문적인 불교지식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있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담보로 잘못된 불교상식들과 편향·왜곡된 정보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원으로서 알고 있는 불교 관련내용들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려나감으로써 불교를 깊이 있이 알기를 원하는 불자들과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취하고자 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부산공무원 불자연합회

부산 불심(佛心)의 구심점. 부산공무원 불자연합회입니다. 우리 불자회는 15년 전인 1990년도에 18명의 회원으로 창립돼 현재 부산시청 내 16개 구·군 소속 회원 800여명이 끈끈한 정과 깊은 신심을 공유하고 있는 불자회입니다.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회원 개개인들의 직무로 자주 법회를 열지는 못하지만, 지난 15년간 두 달에 한번씩 모든 회원들이 서구 보타원(주지 보광)에 모여 정기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법회로 채우지 못하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갈증은 올해 2월에 개설한 홈페이지(www.busangongbul.or.kr)을 통해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치이고 몸과 마음이 늘 기는 직장불자들이 손쉽게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는 불교이해하기, 사찰을 찾아서, 사이버법문 등의 각 카테고리를 통해 회원들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주요사찰들을 찾아 사찰건축기법과 그 안에 모셔진 불상, 탱화 등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사찰을 찾아서' 코너는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찰을 그냥 참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를 통해 불교 전반과 사찰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얻고 찾았을 때 그 감흥이 정말 달랐다는 반응이 입소문을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자회는 정기법회 이외에도 성지순례를 중요한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화합과 신심고취를 위해서는 성지순례만큼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지순례는 회원들뿐만 아니라 불자가 아닌 근무처 직원들과 회원들의 지인들이 함께 해 포교효과도 상당합니다. 일반적으로 2~3곳의 사찰을 참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느끼는 사찰의 고즈넉한 멋과 철야정진법회 등을 통해 느끼는 심신의 안정은 어느 법회 못지않은 큰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이밖에도 우리 불자회는 부산 내 장애인복지관 및 어린이·노인복지시설 등을 항시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원들 모두가 시정활동에 관여하는 공무원이니만큼,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무관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는 못해도 수시로 관련 기관과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생필품을 지원하고 거동을 돕거나 목욕봉사 등 필요한 노력봉사 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 모두가 스스로 상을 내서는 안 된다며 활동을 쉬쉬해 정확한 활동사항을 집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공무원 불자연합회는 부산의 불심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의봉 총무(도시개발심의관실)



부산공무원 불자회원들이 지난 3월 성지순례를 위해 백련사를 찾은 모습.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인도, 네팔 성지순례(20일간)에 동참하실 스님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만을 위한 성지순례를 최상의 조건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인도 불교 8대성지와 산치대탑,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 카주라호, 포카라 등 인도와 네팔의 성지 및 주요 유적지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유롭게 순례하는 최상의 일정입니다.

■ 출발일 : 12월 25일 동참금 297만원

※ 20명 한정 (현재 8분) 안내 : 이상일 이사 (60여회 인도순례)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카주라호-아그라-상카시아-코삼비-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투만나

■ 인도, 네팔 성지순례 15일 (출발일 : 1월 13일) 257만원

사부대중 누구나 동참 가능한 인도 성지순례 15일은 인도와 네팔의 주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정통적인 순례 일정입니다.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

■ 인도 성지순례 10일 (출발일 : 12월 28일, 1월 14일) 198만원

성지순례 10일은 부처님의 자취가 어린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 일 정 : 델리-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라-바이샬리-파트나-라즈기르(영취산)-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

■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12월 9일) 138만원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순례합니다.

● 일 정 : 인천-양곤-바간-만달레이-양곤-인천

대불광 이전

대불광이 작은마음으로 문을열어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제방스님 불자님들의 관심과 은덕에 힘을 입어
새로운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개관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일일이 전해야 하지만 우선 지면으로
인사 여쭈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1월 대불광 대표 허길량

마음을 다하여 초대의 글을 올립니다.

개 관 안 내

일 시 : 2004년 11월 18일 오후 5시
장 소 : 대불광빌딩 5층 전시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4-8 대불광빌딩 5F 전시관 02)738-1117

일주문



국태민안 기원 팔관회

부산시불교연합회장 대성 스님은 국태민안과 2005년 APEC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팔관회를 11월 14일 오후4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개최한다.(051)867-0501



대불련에 500만원 지원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스님은 최근 수상한 제 7회 효령대상의 상금 1000만원 가운데 500만원을 대불련에 지원하기로 했다.



태고 보우국사 다례재 봉행

양평 사나사 주지 화암 스님은 11월 3일 태고보우국사 탄신 703주년을 기념하는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031)772-5182



제1회 정광문화제 개최

울산 정광사 주지 도정 스님은 11월 4일 정광사에서 화정회, 다도회, 서예반, 민요반 회원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제 1회 정광문화제를 개최했다.



목조각전시장 대불광 이전

불교목조각분야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허길량 씨가 11월 18일 서울 조계사 맞은편으로 상설 전시관인 대불광을 이전한다. 이전식은 오후5시. (02) 738-1117



치악산 상원사 · 견성암 참배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최성휴 신도회장은 10월 30~31일 법형제회원들과 함께 치악산 상원사, 견성암을 참배했다.



습의사 선본 스님의 지도로 발우공양을 체험하는 문화재청 직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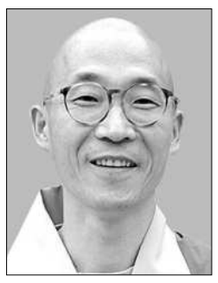
문화재청 직원들 통도사서 사찰체험

문화재청(청장 유홍준) 직원 160여명이 10월 29 · 30일 양일간 통도사(주지 현문)에서 템플스테이를 겸한 문화재 현장 혁신토론회에 참가해 사찰 생활을 체험했다. 정부기관의 연찬회가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형식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 29일 템플스테이 입재식에서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현장체험을 하는 것이 문화재 행정을 한 차원 올리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인사했다.

문화재청 직원들은 1박2일 동안 발우공양, 사물시연관람, 예불, '고려선박 발굴' 등 현장 혁신사례보고, 성보박물관 관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통일과 북 사찰 복원 원력 성취됐으면…"

신계사 복원불사 도감 제정 스님



"변변한 요사채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이 많겠지만 남북통일과 금강산 유점사, 표훈사, 장안사 등 금강산의 유서 깊은 사찰 복원을 기원하는 기도를 매일 하겠다"는 스님은 신계사 대웅전에 모실 부처님과 함께 11월 11일 금강산으로 떠난다. **강유신 기자**

"남북한 민간교류 역사에서 남한 종교인이 북한에 머물며 종교활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사찰이었던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맡은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11월 2일 조계종 신계사복원불사추진위원회(위원장 종상)로부터 신계사 복원불사 도감에 임명된 제정 스님(사진)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

"북한 거주 기간은 2007년까지입니다. 신계사에 머물며 대웅전, 일주문, 요사채 등을 차례로 복원해 대가람의 면모를 갖추어가겠습니다. 금강산과 신계사를 방문하는 일반시민과 불자들에게 옛 금강산 불교의 찬란한 전통을 알리는 역할도 수행하고 싶습니다."

제정 스님은 1989년 출가해 동국대서 미술사학을 전공했고 미국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며 포교에 전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한 것이 도감에 임명되는 계기가 됐다는 후문이다. 스님은 "비록 대형 불사를 맡아본 경험은 없지만 해인사에서 오래 생활하며 장경각 불사를 도운 경험과 불교 미술사 지식을 토대로 신계사를 원형 그대로 재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활시설 보완에 최선"

소쩍새마을 새 원장 성묵 스님



"208명 식구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편안한 시설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11월 2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임명한 장애인 복지시설 소쩍새마을의 신임 원장 성묵 스님(사진)의 '숙제'는 소쩍새마을의 시설문제와 자활지원. 조건부복지시설인 소쩍새마을을 내년 7월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다.

스님은 "5월부터 시작한 게이트 볼 게임은 치료효과가 높아, 다른 신체자활프로그램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며 "업재활훈련을 확대 시행해 식구들의 자신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033)762-9870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조직정비로 신행 강화"

대불청 제23대 회장 김익석 씨



"와해되어 가는 지구 지부 지회 등 조직 복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단위조직부터 조직 분석기법을 도입해 진단하고 조직복원을 위한 대안을 도출해낼 계획입니다."

10월 31일 공주 갑사유스호스텔에서 열린 대한불교청년회 제 48차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102명의 만장일치로 선출된 김익석 씨(44 · 사진)는 "대불청이 대불청의 조직 구축과 더불어 청년회원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자는 수행 · 참선 · 통일 · 환경 학교와 연차 · 직급별 교육 등을 강화하고 청년회와 포교사들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지연 기자**

"치유 위한 배아복제 허용돼야"

프린스턴大 틸먼 총장 황우석 교수 만나



"불치병 치유를 위한 배아복제는 허용돼야 합니다." 11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황우석 교수(서울대 수의학과)를 만난 셜리 M 틸먼 프린스턴대 총장(57 · 사진 오른쪽)은 이같이 밝혔다.

틸먼 총장은 20여 년간 쥐의 줄기세포를 연구했던 자신의 경험을 거론하며 "배아복제 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기술은 나쁜 목적으로 쓰일 때 위험해진다" 며 "치료 목적의 배아복제는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5년 이상 그리고 폐기처분될 냉동배아에 대한 과학적 실험은 미국, 일본 등 각국에서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 며 "불치병을 고치기 위한 의학연구 활동이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승보종찰 송광사 역사사진전 개막



'승보종찰 송광사 역사사진전'이 서울 법련사(주지 보경) 불일미술관에서 11월 3일 개막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법련사 회주 현호, 송광사 주지 영조,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과 조계종 종회의원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동국대에 1억원 장학금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1월 4일 동국대학교(이사장 현해)를 방문해 1억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불교대(74명), 문과대(3명), 이과대(2명), 법과대(2명), 사회과학대(3명) 등 모두 100명이다.

청교련 혜명양로원 방문 봉사한마당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가 10월 31일 혜명양로원을 찾아 '할아버지 할머니 효 실천-손녀 손자되는 날' 행사를 벌였다.

시설노인 70명과 청소년 70명, 대학생 지도자 20명 등 총 160명이 참여했다.

부불운전기사회 창립 16주년 법회



개인택시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박평진)는 11월 4일 코모도 호텔 충무홀에서 창립 제 1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부산불교신도회 공병수 신도회장,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등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제2회 종단협회장배 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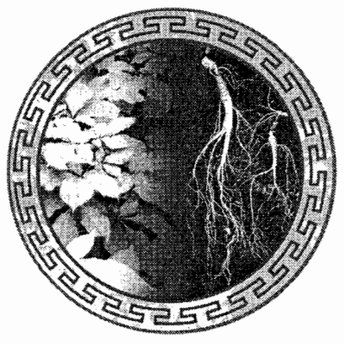


제 2회 종단협 회장배 체육대회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한국불교기자협회 주최로 10월 30일 김포 중앙승가대 운동장에서 열렸다. 이날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 BTN 조재룡 사장을 비롯 각 언론사 기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공주대학교 식물과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2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마니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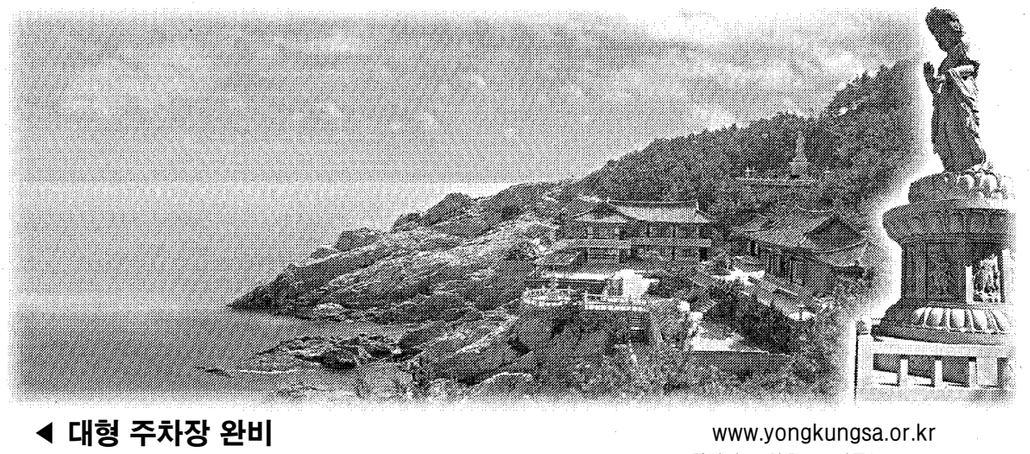
오가피 묘목분양 오가피 묘목분양 상담 공장 및 농장견학회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55-1114 (주)현풍F&B HYUN PUNG F&B CO., LTD.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불자 세상보기

이 희 재
광주대 철학과 교수

미국의 대선읽기 코드는?

예전과는 달리 세계화 · 지구촌화의 추세로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우리의 지근거리에서 많이 살고 있다. 미국선거가 부시의 재선으로 마무리 된 후, 미국인 친구들과 점심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상당한 반감의 대상이기도 한 부시대통령이 재선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여러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대답은 '도덕적 가치'가 보수적인 시민들이 이미 증명된 부시를 선택한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바꿔 말하자면 케리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그의 도덕적 불투명성에 있다는 것이다.

세계 으뜸의 삶으로 여유와 미소를 잃지 않고 사는 그들에게 테러리즘이야 말로 가장 두려운 위협이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도 일종의 적극적인 테러와의 전쟁으로 받아들였으며, 무엇보다도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의 상품화를 비롯한 도덕적 혼돈, 그리고 가족의 붕괴 등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들이 약간은 진보적인 케리 후보에게서 불안을 감지하고 이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라는 것이다.

부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졌으면서도 자신의 소신에 대해 항상 '나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함으로써 동지에게나 적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정치가들이 여러 이익집단들의 상충된 이해관계 때문에 눈치를 살피는 성향에 반해서, 분명하게 '아니다'를 말하는 것이 사실에서 신뢰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법하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황우석 교수가 연구하는 배아복제연구에 대해 부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동성결혼이나 낙태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를 표명함으로써 가족제도를 수호하고 가정을 중요시하는 평범한 미국인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선거의 이슈는 이러한 '도덕적 가치'가 상당히 부각되었고, 그러한 가치를 지지하는 약 80%의 미국민들이 부시의 지지자였다고 한다.

도덕적 가치와 안보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어느 사회이건 보편적으로 가치있는 것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도덕적 가치 속에는 미국중심, 기독교중심, 백인중심의 가치가 내재해 있으며, 그러한 자국중심의 이분법적 가치관들이 문화를 달리하는 여러 나라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인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는 기대하지만, 선과 악을 둘로 나누는 흑백논리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를 갈구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고,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정복의 대상으로 몰고가는 것은 결코 미국인의 선량한 시민들이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테러를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기는 것 보다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인에게 있어서 전쟁의 발발은 위협이 아닌 치명적인 재난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보여준 승복하는 패자와 위로하는 승자의 모습에서 세계평화와 공존, 화합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점이다. 이제 세계 경찰국가를 자임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에 치우쳤던 과거와 달라진 미국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러한 기회가 미소와 여유로움을 잃지 않는 미국의 시민들이 추구하는 그 '도덕적 가치'와 어우러져 자국 우선의 미국이 아닌 진정한 세계 속의 미국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 22개 종립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성향 설문조사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나은 학교로 자리를 옮기겠다는 의견이 압묵적 동조의사를 나타낸 교직원 16%를 포함해 무려 41%나 됐다.

종립학교는 불교적 건학이념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려고 세운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학교의 교직원은 불교인으로서의 긍지와 교직자로서의 보람을 동시에 느끼며 교단에 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 교육효과는 물론 불교적 인재육성을 기대하기는 그만큼 어려워진다.

문제는 이미 교직원들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학교시설, 이는 교직원과 학생 모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커다란 요인이 된다. 또한 복지와 관련한 교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자연 전근의 기회만 찾게 만든다. 대우가 다른 학교에 뒤떨어지고, 교직원의 적정 숫자가 모자라 업무가 가중된다면 능률적인 교육활동은 기대하기 어렵다.

종립학교가 '희망'인데…

이번 조사에서 다행히 건학이념 강요와 재단의 지나친 간섭은 적은 비율로 나타나 최근 서울 대광고의 강의석 군으로 대두된 학생들의 종교선택의 문제는 타종교 학교에 비해 미미해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이 타종교 선택기회가 많은 사회적 분위기를 참작해 그런 문제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도 이 기회에 덧붙여둔다.

학생들의 학교선호도를 높이고 교직원들이 선망하는 불교종립학교를 만들기 위해 관계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이번 조사가 종립학교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첫 시도라는 종립학교관리위원장의 발언도 불교종립학교의 짧지 않은 역사를 감안할 때 불교계가 종립학교 문제에 얼마나 안이했으며 그동안 강조한 학교발전이 한낱 구호에 그쳤던가를 반증하고 있다.

결국 종립학교에 대해 종단이나 재단이 용두사미식 관심이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도 과감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만이 당면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문제를 알았으니 개선대책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될 것이다.

■ 도수(정업도량 회주)

이렇게 들었다 '성공'의 그림자

욕망의 그물이 씌워지고, 애욕의 덮개가 덮이고, 어리석음의 마음이 결박한다면, 물고기가 어부의 손에 들어온 것이나 다를 바 없다.〈법집요송경〉

'젊은' 성공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대학생 성공신화'로 TV, 월간지에 성공사례로 소개되는 등 주목받는 청년 사업가로 이름을 날렸던 K모(30) 씨.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의 K 씨는 대학 4학년 때 신촌 한 떡볶이 가게 2층에 빙수 가게를 차린 후 신설하는 지점마다 대박을 터뜨리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02년 중순 인터넷에서 우연히 강원랜드 광고를 접하면서 '날개없는 추락'이 시작됐다. 도박의 늪에 빠진 K 씨는 마카오 등지를 전전하다 전 재산을 날렸으며 급기야 도박빚을 메우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이다 작년 12월 구속됐다.

'25살 CEO'로 매스컴을 탔던 K모(28) 씨. 과학고와 카이스트(KAIST)를 졸업한 김 씨는 2001년 1월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자문업체를 설립했고, 두 달 만에 7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뛰어난 경영수완을 발휘했다.

그러나 2002년 12월 설립 자본금 30억원을 위장납입하고 영업실적이 저조한 10개 엔터테인먼트사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올리는 '반칙'을 했다. 결국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2개월여 도피생활 끝에 최근 철창 신세가 됐다.

이 젊은 성공신화들이 추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성공에 급급한 나머지 '욕망의 그물'에 쇠워져 옳고 그름의 분별없이 더 큰 대박을 위해 앞으로 내달리기만 했기 때문이다.

느리게 갈 지라도 바른 길을 걷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온다.

■ 남동우(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스님은 불교의 얼굴

우리 지역의 한 절에 갈 때마다 무척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절의 주지 스님 때문이다. 그 스님은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모님' 보살들을 무척 좋아한다. 법회가 끝날 때마다 '사모님' 보살들이 무엇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OO사모님 일어나세요, 박수!"라고 한다. 평등하게 중생을 보듬어주어야 할 절에서까지 재물의 많고 적음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서럽다. 물질적 가치로 인해 사찰에서까지 차별대우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

내가 아는 어느 교수 부부는 몇 군데 사찰에서 이와 유사한 스님들의 행태를 목격하고는 불교가 싫어졌다며, 다른 종교로 개종하기까지 했다.

종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성직자의 인품과 종교 단체의 분위기로 그 종교의 모든 것을 판단한다. 불교의 얼굴은 스님들이다. 스님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있던 불자가 떠나가기도 하는 것을 보면 무척이나 안타깝다. 재가불자들은 스님의 한 마디에 무척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스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스님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 물론 존경받아 마땅한 스님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여러 사찰을 다니다 보면 사찰이 속세의 가치체계를 따라가면서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지역 스님들일수록 더욱 직접적으로 재가불자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하고, 구도의 길을 걷는 한 걸음걸음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포교라는 것은 무조건 다른 종교인이나 무종교인을 불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절에 다니고 있는 불자들의 신심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영숙(창원시 대방동)

종교편향 대응 제대로 하자

498호에 실린 '정장식 시장 종교편향 대응' 기사를 읽었다.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종교편향과 관련된 기사를 접하면서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흥분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흐지부지 끝나고 말기 때문이다.

포항사암연합회와 신행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지만, 이번 정 시장의 종교편향 활동에 대한 대응도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사실 매번 그런 기사를 접할 때면 분하면서도 부끄러울 때가 많다.

이번 사건은 모든 불교계가 나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문제가 지역 불교계에 국한된 일이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른 지자체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할 때도 지역불교계에만 맡겨둘 것인가. 이번에도 불교계가 이렇다할 대응조차 하지 못한채 이 일을 넘긴다면 또 한번 부끄러워지는 일이다.

남상희(울산시 남구 삼산동)

문광부 종무실 축소 옳지 않다

종교업무를 총괄하는 문화관광부 종무실이 축소된다고 한다. 작년에 종무실 폐지가 처음 거론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정부관계자들이 종교업무를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오죽하면 정부 구조조정의 1순위가 종교 관련 업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이미 우리나라 국민의 50%이상이 종교활동을 하고 있고,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서 그 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를 통합하고 정신적 대안을 제시하는 종교의 역할과 기능 또한 확대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를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강화해도 부족할 상황인데 오히려 축소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정부는 종무실 개편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무실을 축소한다고 해서 종교업무까지 축소해서는 안 된다. 담당 부서의 업무조정계획이 있는 만큼 최대한 고유 업무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김성철(서울 중구 장충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수행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氣와 사랑의 약손 교습 안내

- 서울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대상선정!

기공 · 호흡 · 운동요법 · 물리요법 · 자극요법 · 자세동작교정요법 · 정신심리요법 · 명상요법 그리고 기치유와 경락경혈요법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수행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개별적인 특징에 맞추어 관리하여 드리며 약손요법을 배워 주변에 봉사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 집중적으로 개별 전수를 해 드립니다.

기와 사랑의 약손 042-472-1881

전통양생법을 통한 건강 지키기

중국무술내가권(태극권, 형의권, 팔괘장)연구소

▷ 중국전통기공법 · 중국무술내가권
체력단련, 자세교정, 집중력강화, 자기조절, 각종 성인병 및 난치병 예방

▷ 벽곡 법(전통도가식 단식)
- 체질개선, 내장기능 증가 (필히 공력이 높은 선생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별 특성, 목적에 맞는 공법지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9 메트로존 604호 (시청 맞은편)
상담전화 : 042-471-1882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법륜종 '태평양전쟁 희생자 · 한일우호증진 위한 영산대재' 현장

가르침 아래 상생의 시대로…

한국에서 건너간 800여 법륜종 신도들이 두 손 모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천도를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다. 영산재가 봉행된 일본 후쿠오카 소재 남장원은 고야산 진언종의 본산이며, 세계최대 규모의 청동 석가열반상으로 유명한 곳이다.

한국서 800여명 참가 희생자 넋 위로
배 위에서 '현해탄 수륙재' 봉행 '숙연'

"정치적 문제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양국의 불교인이 앞장서 과거청산과 양국 우호증진을 위해 앞장섬으로써 세계인류가 부처님 자비광명 속에서 한 가족 되는 날을 앞당깁시다."

11월 2일 세계최대 청동 석가열반상으로 유명한 후쿠오카 남장원에서 봉행된 한국불교 법륜종(종정 정각)의 '태평양전쟁 희생자와 한일우호증진을 위한 영산대재'.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에서 건너온 800여 사부대중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마음을 모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총무원장 창법 스님은 봉행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대승불교의 맥락을 함께하고 있는 이웃국가다"며 "개인과 국가의 아집을 버리고 상생의 시대를 열자"고 말했다.

종정 정각 스님은 법어에서 "내가 어떻다 하는 생각을 떠나면 이것이 곧 부처다"며 "이 자리에 모인 불연(佛緣)이 지중하니 참석한 모든 중생과 영가들은 다함께 불도를 닦아 생사윤회의 사슬을 끊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종사이운을 시작으로 시련 · 대령 · 상단권공 등의 전통 영산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초대종정 금암 스님을 비롯 남장원 부주지 하야시 가꾸류 스님과 태연 스님 등이 참석했다. 하야시 가꾸류 스님은 "창건 이래 가장 많은 손님이 방문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장원 측은 방문객의 규모에 놀라 부랴부랴 한글 팸플릿을 만드는 등 손님맞이에 분주했다는 후문.

한편 이에 앞선 11월 1일에는 부산 국제여객선터미널을 출발, 나카타항을 향한 배편에서 유주무주 고혼의 넋을 천도하는 '현해탄 수륙재'를 봉행했다. 이번 수륙재에서는 금암 스님이 고령에도 불구 몸소 축원을 올려 선실을 메운 대중들의 마음을 숙연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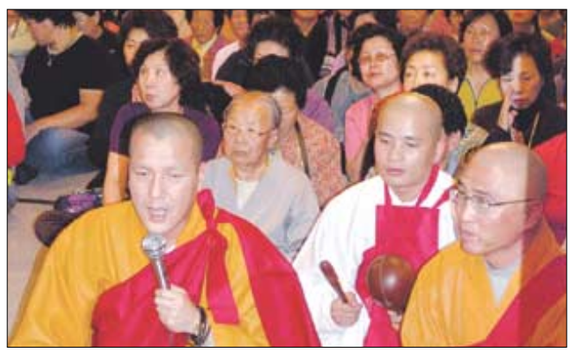
동참자들은 현해탄에서 봉행한 수륙재에 동참한 인연으로 모든 영가가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염원했다.

행사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불교성지를 돌아봤다.

글 · 사진/일본 후쿠오카=박익순 기자



석가열반상 앞에서 바라춤을 추며 종사이운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현해탄위에서 봉행된 수륙재. 고혼을 위로하려는 마음이 배 안에 가득하다.



■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위령재 참석한 준석이네

"아소산 흙냄새를 맡아봤더니 석탄 냄새가 났어요."

엄마 아빠 손잡고 법륜종의 '영산재 및 성지순례'를 따라나선 형 준석(13 · 법동초등6년)과 동생 준혁(12 · 법동초등5년). 3박 4일간 일본의 이곳저곳을 둘러본 어엿한 꼬마 여행자들의 여행담이 그칠 줄 모른다.

가족끼리의 오붓한 시간을 만들어보고 싶었던 엄마 남경옥(45)씨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체험학습' 신청을 하고 '가족여행'에 나섰다. 타인에게 도움 되는 삶을 아이들에게 늘 강조한다는 함 씨는 "불교성지를 둘러봄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보면 자비를 실천하는 삶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함 씨 가족이 다니는 사찰인 대전 문수암 주지 선문 스님은 "아이들에게 불교를 바라보는 안목을 넓히고 신심을 쌓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인 터 뷰

■ 법륜종 종정 정각 스님



"이 많은 사부대중이 한 자리에 모여 왕생극락을 발원했으니 이국땅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한국인 희생자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덜어졌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지난 2000년 법륜종 종정에 취임, '승단의 율이 바로서야 불교가 산다'는 신념으로 계율 정비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정각 스님.

정각 스님은 "법륜종 종단의 역사가 짧긴 하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며 "부처님의 진리와 생활이 둘이 아닌, 생활불교를 구현하는 데 법륜종이 제몫을 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종단 위상 정립 통한 홍포에 진력"

"800여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바다건너 일본 땅까지 와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법륜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고 정각 스님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각 스님은 "안으로 종풍을 다잡고, 밖으로 법륜종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법륜종의 위상 정립에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 총무원장 창법 스님



"아직도 일본에는 수십만 구의 조선인 유골이 있습니다. 이들 유골이 하루속히 고국 땅을 밟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1988년 법륜종 창종 이래 최대 국제행사로 기록될 수륙재 및 영산재를 봉행한 총무원장 창법 스님. 유골 봉환이 당장 이뤄지지 못하는 만큼 넋이라도 위로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과거 청산 위해 다각적 교류 모색"

창법 스님이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유골 봉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03년.

스님은 "도쿄에 있는 일본 정토종 사찰 우천사(祐天寺)을 방문해서 1140여구의 유골이 봉안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때 이들의 송환을 위해 우리 종단이 발 벗고 나서야한다고 다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륜종은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청산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불교와의 다각적인 교류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창법 스님은 밝혔다.

박익순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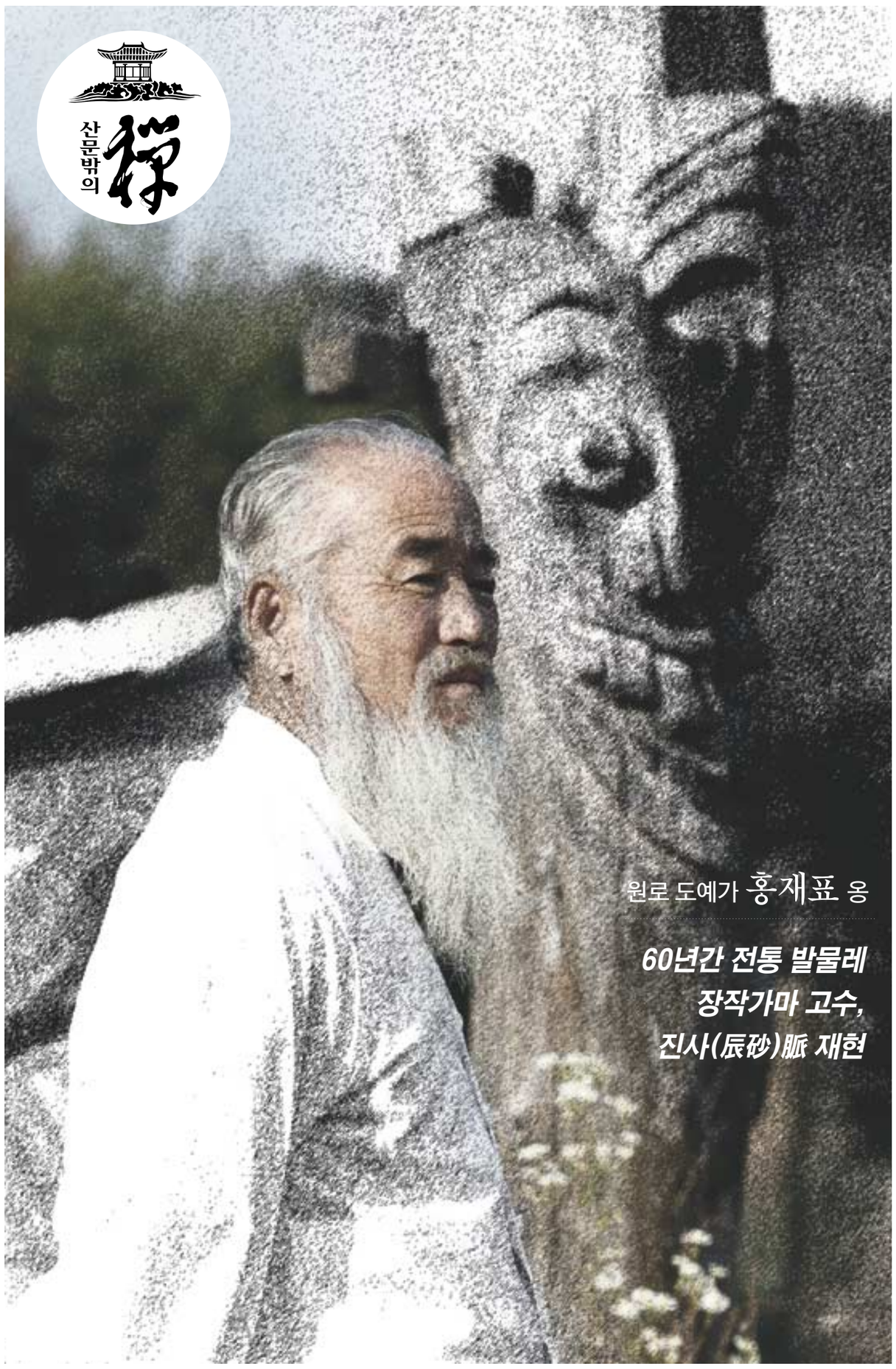
요 일	시 간	법 회 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금강경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화엄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 · 동선회	주제별특강

◆ 고암대종사생신재

오는11월 16일 화요일(음력10월 5일)은 고암대종사의 탄신1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만 우리절에서는 이틀 앞당겨 오는11월 14일 일요일 오전10시에 생신제를 봉행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흙·물·불과 나

하나된 곳에서 좋은 그릇 나와

"말로 해서 전할 수 있는 게 있나. 자기가 노력해서 몸에 익히고 느껴야 알지. 난 별로 할 말이 없어."
겨울이면 영하 20도를 오르내린다는 강원도 용평면 용전리 방덕골.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그곳에 덩그러니 자리 잡은 고도요(古陶窯)에서 원로도예가 홍재표(73) 옹을 만났다.
높은 가을 하늘 아래 흰 한복에 흰 수염과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장작을 패고 있는 그의 모습은 '도인(道人)' 같다.
홍재표 옹은 우리나라 도예사(陶藝史)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60여년 동안 발물레와 전통 장작가마를 고수해온 것이고,
또 하나는 국내에서 맥이 끊어졌던 안료 진사(辰砂)를 1970년대에 재현한 것이다.
▲전기물레와 가스가마를 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운 게 그것 밖에 없으니까."
▲발물레와 전기물레로 만든 작품은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만드는 사람은 작품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 (그릇을) 만드는 데만 집중할 뿐이야. 그저 몸이 움직이는 대로 만들어"
▲그릇을 빚을 때 마음은 어디에 둡니까?
"마음은 어디에 두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거야. '돈 될 만한 걸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이 붙으면 끝이야."
고개를 갸웃거리는 기자에게 그는 한 가지 예를 들어준다.
"지난달에 대학생들이 만든 작품 70여 점을 봤어. 다들 작품은 좋았지만 느낌이 똑같아.
똑같은 흙과 유약을 사서 똑같은 전기물레에 돌려 만드니 비슷한 작품이 나올 수밖에. 자신만의 흙을 찾고 유약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안해. 물레 돌리는 것은 발부터 머리끝까지 기(氣)가 돌아가는 작업이야.
그래서 발물레는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전기물레는 그렇지 않아."
1970년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진사를 재현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우연히 진사 작품을 한 점 사게 됐는데, '이거다' 싶더라고. 그래서 혼자 별짓 다 해봤지."
꽃자줏빛의 진사는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유약으로, 산화구리가 녹아있어 이를 이용해 도자기를 구우면
선홍빛을 낸다. 12세기 이후 꽃피었던 진사는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그 맥이 끊어졌다.
진사의 작업 과정이 무척 까다로운 것도 진사 전통이 이어지지 못한 한 요인이다.
진사는 날씨가 좋은 날 장작가마에서 13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구워내야만 전통의 붉은 색을 재현할 수 있다.
"진사는 손으로 그린 문양이 전혀 없이 가마 안에서 찰나에 이루어지는 우연적인 변화(요변, 窯變)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내 손을 떠난 뒤로는 무슨 색이 날지 나도 알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발색(發色)에만도 10년이 걸렸어."
진사를 재현하기 위해 그는 전국을 떠돌며 흙을 구했고 유약을 배합하느라 밤을 새기 일쑤였다.
그래도 늘 작품이 되어 나오는 확률은 한 가마에서 5%에도 채 못 미쳤다. 그렇게 40여년.
이제 그는 자신의 진사가 '버선본'이라 말할 만큼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홍 옹은 얼마 전 반평생을 자신과 함께 해 온 발물레를 셋째 아들 성영 씨에게 물려줬다.
하지만 그 외의 것은 이렇다 저렇다 말로 가르쳐주는 법이 없다.
"자기가 노력해서 몸에 익히고 느껴야지, 말로 전할 수 있는 '비법' 같은 건 없어.
그렇게 자기 손끝에, 발끝에 자연스럽게 배어들면 저절로 알게 돼."
현재 고도요를 운영하고 있는 성영 씨는 "아버지를 뵈면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발물레로
도자기를 만든다고 하는 도예가나 교수들이 나이 오십만 넘어도 작업을 하지 못하는데 반해,
일흔을 넘긴 지금도 손수 물레를 돌려가며 작업을 하는 아버지를 보고 '몸에 익음'의 소중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화두를 타파하듯 작품을 참구해 온 그가 흙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흙이, 물이, 불이 곧 자신이기 때문은 아닐까.
"60년간 한 가지 일에 매달렸는데 아직 답을 못 찾을 걸 보니 난 바보인 모양이야.
그래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법이지. 출세하고 잘 나가던 친구들은 다 세상을 떴는데
나만 아직 살아서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 일생을 건 '작품' 하나 만들어야하지 않겠어?"

평창=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도예가 홍재표 옹은?**



1932년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나 부친(故 홍순환)의 뒤를 이어 13살 때부터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72년 홍익대에서 도예를 가르쳤다. 75년부터 일본의 박물관과 백화점, 갤러리를 순회하며 물레 시연회와 작품 전시회를 열었으며 88년에는 '국제 도자기 워크숍'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3개월간 미국 20개 주립대학을 순회하며 시연했다. 70년대 후반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사(辰砂 · 사진)를 재현해 내 주목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현재 영국 대영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으며 경기도박물관에서는 그가 작업하는 전 과정을 녹화해 영상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Since 1991 KASAN INSTITUTE OF BUDDHISH CULTURE 늘 푸른 정진도량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지관스님

5대 사업 • 『불교대백과사전』 편찬사업 • 불교전문교육사업 : "三學園" • 학술연구사업 • 문화교화사업 : 정기 '수행문화포럼' • 전문출판사업 : 4대사업 성과물 및 기획출간사업

" 불교대백과사전 편찬사업을 후원하거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伽山佛敎大辭林 회원'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2500년 불교사에 있어서 세계 최다 표제어를 수록한 불교대백과사전!
1700년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일반불교술어 및 한국불교술어의 정치한 1차 결집!
세계불교학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한국불교학 및 인문학 연구전통의 새로운 지평!



가산불교대사림 예약 및 후원회원

• 현재 1·2·3·4·5·6권 출간! 7권 근간! 전15권 년차 속간 예정입니다.
• 전권금액 2,180,000원, 예약회원은 20% 할인하여 1,750,000(우편료 포함)입니다.
• 예약회원은 『가산불교대사림』 전권 구입을 희망하는 분으로 위의 금액을 3~60개월 분할입금하시면 됩니다.

●회원들에게는 위의 본원 출간 수행논서들이 함께 증정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4가 206-6
TEL.765-9602~3 FAX.765-5673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19>

원각경의 수행방편

<금강경>이나 <천수경>같은 경전에 비해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예로부터 수행인들에게는 필수 과목이 될 만큼 불교 수행의 요체를 설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경전이 <원각경>입니다. 본래의 제목이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이라 불리는 이 경은 열두 보살이 차례로 등장하여 부처님과의 문답을 통해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크나큰 깨달음 즉 대원각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수보살장으로 문수보살은 부처님께 불도 성취는 무엇으로 가능했는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여래의



불도 성취는 청정한 원각의 비춤으로 무명을 영원히 끊었기 때문이라고 답하시면서, 중생들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명의 본성은 실로 허깨비와 같아 본래 있는 것이 아님을 설합니다.

두 번째는 보현보살장으로 앞 장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에 보현보살은 무명이 허깨비와 같다면 몸과 마음도 허깨비 같을 진대 어떻게 허깨비로써 허깨비를 여읠 수 있느냐고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허깨비 같은 무명은 역시 허깨비 같은 수행 방편으로 없앨 수 있으며 모든 허깨비는 사라지더라도 허깨비를 허깨비라고 깨달은 그 마음 즉 원각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수행이란 다름아닌 무명과 더불어 일체를 허깨비와 같다고 여기고 떠나는 공부인데 허깨비를 떠나되 떠났다는 것마저 떠나고 또 다시 떠났다는 것마저도 계속해서 떠나 더 이상 떠날 게 없어야 비로소 원각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각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안보살장으로 모든 허깨비를 여의려면 어떻게 수행하고 머물고 어떤 방편을 써야 되는지에 관해 설합니다. 원각을 구하려면 계율을 굳게 지니고 고요한 방에 앉아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짓는데 몸은 사대의 조화로 이루어져 나라 할만한 실체가 없고 마음도 육진의 인연으로 나타난 그림자와 같아 내가 없음을 관찰해 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허깨비 같은 일체의 존재 그대로가

고요한 공간에서 '내가 없음' 관하기

법계에 두루 하고, 움직임 없는 청정 원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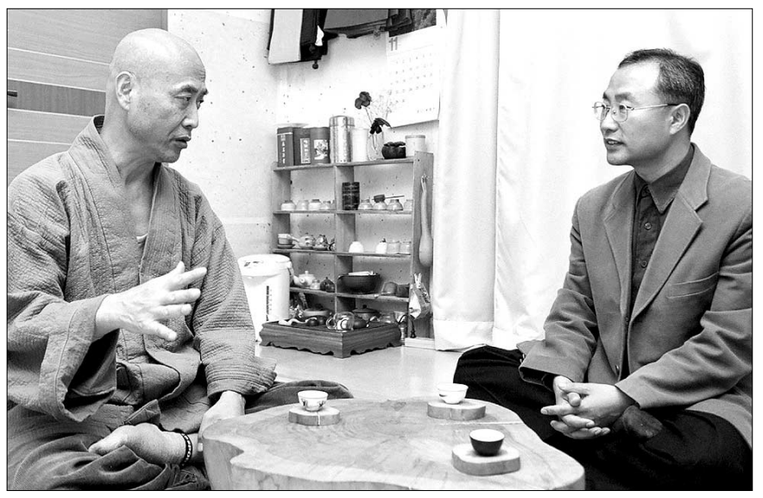
네 번째 장은 금강장보살장으로 본래 부처였던 중생에게 왜 무명이 있게 되었는가, 무명이 본래 있는 것이라면 중생을 부처라고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부처도 나중에 다시 중생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등에 대한 금강장보살의 질문에, 부처님은 우선 윤회하는 마음으로 부처의 원각을 알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경책합니다.

그리고 금광의 비유를 들어 금은 본래 금이라 광석을 제련해서 생기지 않듯 중생이 본래 부처이나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치를 설명하고, 광석 속의 금이 순금으로 제련 되면 다시는 광석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이치를 깨달으면 다시는 무명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설합니다. (계속)

■ 유마선원장

문답으로 맞추는 수행의 눈높이

서울 육조사 즉문즉답식 선공부 현장



김홍근 성천문화재단 연구실장이 "화두는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라고 묻자, 현웅 스님이 "불성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화두를 잘 들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질문은 현실적이었다. 또 간절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화두 드는 법부터, 우리 안에 깃든 불성은 죽어서도 존재하는지, 중생이 무엇인지에 이르기까지 재가자들은 그간 품었던 의심의 똬리를 한꺼번에 풀어놓았다.

"친척 한 분이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무상을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님, 육신은 없어져도 불성(佛性)은 불생불멸이라 했습니다. 과연 육신만 갔습니까?"(김진조 · 69)

법문 끝나자 재가자 질문 쏟아져

"불성은 살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속에서 살고 죽는다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얼마 전 북한산 향로봉에 등산을 갔을 때, 한 재가불자가 새벽잠을 깨게 한 모기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탁 치니까 불성이 죽더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불성이 죽은 것이 아니라, 불성이라 생각한 것(분별심)이 죽었다'라고 말입니다. 생각을 중생처럼 하지 말고, 부처의 자리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화두참구입니다." (현웅 스님)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육조사(선원장 현웅) 일요법회 현장. 화두 '이뭣고'를 주제로 한 현웅 스님의 법문이 끝나자, 재가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선사와 재가자간 오가는 문답에 거침이 없다. 즉문즉답이다. 생각이 끼어들 틈도 없이 문답이 이어졌다.

'자성에는 중생도 부처도 없다'는 스님의 말에 한 재가자가 의문을 던졌다.

"의상 스님의 <법성게>에 '불수자성수연성(不守自性隨緣成:자성을 지키지 않고, 연기법에 따라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자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자성과 법성게의 '지키지 않는 자성'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손진국 · 40)

"자성에는 지키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중생의 차원에서 보니까 중생과 자성이 따로 있어 서로 지키고 말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성의 입장에서 보면, 중생의 생각 자체는 뿌리가 없는 허망한 것입니다. 지키고 말고 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질문하는 불자님 그 자체가 '자성불' 그대로입니다. 무엇을 지키고 말아야 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성의 '체(體)'는 그렇게 확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법성게에서 말하는 부분은 자성의 '작용(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불이(不二)이며 원융한 법성이지만, 작용할 때는 연기법에 따른다는 말입니다. 불자님 속에 자성불이 있어서, 배고픈 것을 알게 하고 밥 먹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웅 스님)

모르면 묻고, 배운 것은 몸으로 체험

현웅 스님은 6개월 전, 이곳에 육조사를 개원하면서부터 '좌선-법문-문답'의 방식으로 재가불자들의 선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평일에 좌선을 하고 선공부와 관련된 문답을 수시로 주고받는다. 질문에는 제한이 없다. 번뇌 망상을 제거하는 기초수행은 물론, 화두를 들고 체험한 경계도 점검받는다.

그럼, 현웅 스님은 왜 문답식 수행방법으로 재가자들을 지도하고 있을까? 스님은 문답공부야 말로 '재가자들이 선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 준다고 말했다. 문답식 공부가 쓸데없는 생각을 고치고, 올바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또 문답을 통해 '살아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스승과 제자의 교감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알기만 하려는 마음의 독 없애준다

"재가자들은 '불교가 왜 필요한지' 알고 묻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치열하고 직접적입니다. 때문에 문답식 공부는 불교를 알기만 하려는 '마음의 독'을 없애주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 불성을 믿고, 발심하도록 해주는 이런 과정은 재가자의 마음흐름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고, 스스로 정확히 진단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육조사의 문답식 공부는 재가자들이 능동적인 공부를 하도록 변화를 불러왔다. 이석순 씨(51 · 혜관)는 "살아 있는 선, 살아있는 법문을 듣게 되면서 번뇌 · 망상과 화가 현격히 줄고 남의 의심하는 버릇도 없어졌다"며 "스님과 문답에서 공부의 됨됨이를 점검 받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신도들의 공부방식을 바꿔놓았다. 그간 일방적으로 법문만 들었던 소극적인 공부행태가 적극적으로 전환됐다. 모르면 스님에게 묻고, 배운 것은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게 된 것이다. 특히 문답식 수행공부는 스스로 자기 문제를 확실히 알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네 속에 있는 부처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느끼라는 현웅 스님의 법문은 재가자들에게 불교기초교리공부는 물론, 선어록, 참선참구 등의 실천을 이끌었다.



육조사 재가불자들이 현웅 스님과의 '문답'에 앞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다.

육조사에서 선공부를 하고 있는 김홍근 성천문화재단 연구실장(47)은 "그간 옛날 선사들의 공부방법으로 선을 배웠을 때는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며 "현대적 감각으로 재가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스님의 법문을 접하면서 이제는 공부 길을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육조사는 매주 일요일(오전 10시30분) 정기법회에서 <육조단경> <선문촬요> <서장> 등의 강의 이외에도, 매일 새벽(4시), 저녁(6시30분)에 문답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좌선에 도움되는 '경락을 푸는 요가체조'를 매일 30분씩 지도하고 있다.(02)766-5291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중앙신도회, '돈오입도요문론 강설' 수행논강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재가불자 하안거 <백일법문> 논강'에 이어 '재가불자 동안거 <돈오입도요문론 강설> 수행논강'을 마련했다. 성철 스님의 <돈요입도요문론 강설>을 교재로 11월 27일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수행논강은 설우 스님(법인정사 주지)이 강사를, 혜국 스님(석종사 선원장)이 증명법사를 맡았다.

11월 27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열리는 입제식에서 혜국 스님이 증명법사 법문을 하고 12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봉은사 보우당에서 본격적인 논강에 들어간다. 2005년 2월 21일에는 혜국 스님이 마무리 법문 및 문답의 시간을 가지며 2월 26 · 27일 열리는 종합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수행논강을 회향한다.

중앙신도회는 이번 수행논강에 김지선 강원도지사,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 이계진 의원 또는 권선택 의원 등 사회활동을 중추적으로 하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초청해 논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02)733-7277

강지연 기자

세상에 이런 일이....

천일선원에서는 놀랍고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현대의학에서 포기한 원인모를 병으로 고생하다가 굿이나 천도재등 좋다는 것은 다해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 효과를 못본 환자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양보살(원장)님을 만나 氣치료를 받고 나서 새삶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양보살님을 만나면 병의원인, 빙의상태, 전생업의 실마리를 풀어서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하고 있다. 병으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담을 해주고 있다 전화주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린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Tel. 054)638-2224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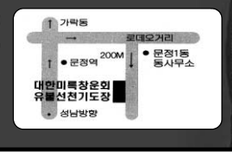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제34회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주제 : 아자! 아자! 부처님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겨울불교학교를 준비하시는 사찰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고자 '아자!아자! 부처님(즐거운 겨울불교학교, 신나는 법우들)' 이란 주제로 '제34회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포교를 위해 일선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스님과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1. **일 시** : 불기2548년 11월 14일 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2. **장 소** : 삼성동 봉은사
2. **대 상** : 어린이 · 청소년법회 지도교사, 법사, 스님 및 불교레크리에이션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3. **교육내용** : ♤ 즐거운 찬불가
♤ 흥겨운 몸풀기
♤ 재미있는 만들기
♤ 신나는 놀이
♤ 풍선 꾸미기
4. **참 가 비** : 일반 30,000원, 우대 및 회원 25,000원, 도서벽지 및 군종 20,000원
5. **접 수** : 전화접수 후 온라인입금
온라인 구좌 : 국민은행 006-01-0801-770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농 협 053-02-177171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6. **문의 및 접수** : ☎ 02-738-7860(代), 739-4967 (본회 사무국)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장

제6회 한·일 요가교류 학술대회 6일 열려

한 · 일 양국 요가수행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요가의 현재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의 '요가지도자연합회'와 일본의 요가단체 '요가니케탄'은 11월 6일 서울 수유리 호텔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한 · 일 요가교류 학술 발표대회를 열었다. 2002년 두 단체가 일년에 두 번씩 교대로 학술대회를 주최하기로 결의한 이래 여섯 번째로 열리는 대회다. 국내외 요가수행자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발표장에는 12명의 요가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패널로 나서면서 열띤 토론의 장이 형성됐다. 그 가운데 주목받은 논문과 그와 관련된 의견들을 소개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한 · 일 요가교류 학술 발표대회 현장. 대회는 매년 2회씩 한일 양국이 교대로 개최한다.

"요가지도자과정 표준 프로그램 필요성 절실"

박영길 원장 주제발표 주목받아

"체위·호흡·명상 3박자 맞아야"

"직장을 그만두고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부지런히 학원에 다니며 주경야독하는데, 새롭게 요가수련원을 운영할 사람에게는 슈퍼마켓을 준비하는 것 이상의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않을까."

박영길(동국대 철학박사 · 한국요가연수원 청담수련원) 원장은 구직자가 슈퍼마켓을 개업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요가수련원 운영 현실을 지적하며 주제발표를 시작했다. 현재 국내에서의 요가수련원 개원절차는 일반 학원 등록절차와 동일해 요가지도자 자격증 없이도 수련원장이 될 수 있고, 짧게는 3개월간 일주일에 한 차례 수업을 받기만 해도 요가지도자 자격증을 무리없이 취득할 수 있다. 그 자격증은 한의사 자격증 등과 달리 국가시험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전국 수련원에서 '요가지도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양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원장은 이 같은 요가계 현실에 맞서 '요가지도자과정 표준 프로그램'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마구 발급되는 자격증의 홍수 속에 요가계 전체의 공멸도 충분히 우려되는 만큼 자기혁신과 개발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며 "협회 차원에서라도 지도자 과정 프로그램을 강화 · 정리해서 요가 지도자 자질 함양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자격증의 발급이나교육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요가계 통합기구 구성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일종의 현실적인 대안인 셈이다.

박 원장이 표준 프로그램 시안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요가 지도자 과정 수련생들의 '수련 방식과 강도'였다. 그는 지도자 과정 이수 기간을 최소 6개월로 상정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두 차례 이상 매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체조 중심의 지도 방식을 탈피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일반 수련원에서 수련의 전부인양 강조하고 있는 체위 수련은 어디까지나 호흡의 준비동작으로 판단된다"며 "요가 지도자 과정 프로그램에서는 체위와 호흡, 명상이라는 3박자가 충족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론학습의 강화도 개선점으로 꼽혔다. 현재 국내 요가수련원 가운데 요가철학 강의를 필수 과정으로 규정하는 곳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요가의 생리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지도하는 곳 역시 드물어, 실제로 교호호흡(기도를 정화하는 호흡법)을 지도하면서도 나디(기도)가 뭔지, 이다 · 핑갈라(대표적인 나디)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것이 박 원장의 지적이다.

교육문제 이외에도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점도 재차 확인됐다.

박 원장은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면 요가 강사 자격증을 바로 받게 되는 것이 자격 미달 요가 지도자들의 양산을 부추기고 있다"며 "수료증과 자격증을 이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요가수련원장에 대한 자격을 검토해 일반 지도자와 구별되는 자격증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요가지도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요가와 건강' 관계 밝힌 논문 다수 소개"

류머티스 등 치유사례 보고

日 제도권 의학과의 교류 눈길

이론과 실천수행을 겸비하고 있는 요가를 수련한다면 과연 신체는 어떻게 변화할까? 제6회 한 · 일 요가교류 학술대회에는 요가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밝힌 논문들이 여러 편 소개됐다.

일본 후쿠시마 의과대학 쿠마 요나가(態代永) 명예교수는 "요가요법은 마음과 영성으로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정신 면역 요법의 하나"라며 "갸냐요가(지식의 요가), 까르마요가(행위의 요가), 박티요가(사랑과 신앙의 요가) 등의 수행은 심신의 자연치유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요가요법 학회 나가사와 히로시(長澤宏) 부이사장 역시 '일본 요가치료의 현실태' 발표를 통해 "요가요법은 현재 대체의학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며 자율신경 실조증, 만성 관절 류머티스 등의 치유사례를 보고했다. 이밖에도 치유요가 중심의 전통을 이어온 일본 요가 학계의 현황을 비롯해 제도권 의학과의 교류 상황 등을 상세히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요가수련과 여성건강의 관계를 조명한 논문들도 관심을 모았다. 광양 보건대 문 희 교수는 "임산부의 요가운동은 임신 말기 임부와 분만 과정에 있는 산부의 피로 · 불안 감소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분만통증 완화와 분만시간 단축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부산대 김미숙 교수는 요가가 유방암 절제술 환자의 건강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유방암 절제술 후 항암요법 혹은 방사선 요법 등을 실시하거나 종료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타요가가 체력증진과 NK-cell(자연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 중 하나 · natural killer-cell)의 증식에도 기여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선의 세계 ⑥⑤

돈오(頓悟)-8

수행해서 성불할 생각 말아라 본래 부처니 부처로 살면 되는 것

앞의 글 끄트머리에, 도불속수(道不屬脩) 즉 "도는 닦고 말고 하는 게 아니다"라 하고 또 도불용수단막한염(道不用脩但莫汗染) 즉 "도는 닦을 것 없고, 더러움에 물들지만 말라"고도 한 <마조록(馬祖錄)>의 대목을 소개하였다. 도란 깨달음의 내용을 편의상 그렇게 일컬은 말이다. 그리고 수(脩)자에는 닦는다는 뜻도 있어서 수행이라고 할 때 보통 쓴 수(修)자와 바꾸어 쓰기도 한다. 도불속수나 도불용수나 같은 말로, 깨달음은 닦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겠다. 달리 말하자면 수행을 해서 그 결과로 깨달음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얘기이다.

그러면 수행이 필요 없다, 수행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선승들이 수행하지 말고 빈둥빈둥 놀라고 가르치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오히려 한결같이 치열하게 수행하라고 가르친다. 아무튼 굉장히 아리송하다. 깨달음은 수행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는데 왜 수행을 하라는 것인가? 수행이 깨달음에 이르는 조건이 아니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이룰수 있단 말인가?

<마조록>에서는 "도는 닦고 말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구절 바로 다음에, "닦아서 체득한다면 닦아서 이루었으니 다시 부서져 성문(聲聞)과 같아질 것이며, 닦지 않는다 하면 그냥 범부이다(若言脩得脩成還壞卽同聲聞 若言不修卽同凡夫)"라고 하였다. 수행의 결과로 이루는 깨달음은 무너져버릴 수도 있는 깨달음이고, 그런 깨달음은 대승불교에서 얕잡아 보는 소승불교의 성인인 성문의 깨달음일 뿐이지 부처님이 되는 깨달음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다시 말해 수행을 해서 그 결실로서 이루는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뜻이다.

선종에서는 그런 깨달음은 깨달음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구경묘각(究竟妙覺), 즉 부처님이 되는 궁극적인 깨달음만이 깨달음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 수행해서 성불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하지만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냥 범부일 뿐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어쩌란 말인가?

<마조록>에서도 위의 말씀을 듣고 어느 스님이 고맙게도 우리를 대신해서 질문을 한다. "어떻게 이해해야 도를 깨칠 수 있겠습니까?(作何見解卽得達道)"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자성(自性)은 본래 청정하니 선이다 악이다 하는 데 막히지 않기만 하면 도 닦는 사람[修道人]이라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선종의 깨달음, 즉 돈오(頓悟)의 뜻이 다시 확인된다.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 함은 우리의 성품이 본래 깨끗하다는 말이니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본각(本覺)을 말하는 것이다. 선이다 악이다 하는 데 막히지 않는다 함은 분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이니, 불이(不二)의 이치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 분별의 망상을 일으켜 그에 얽매어 사는 짓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도를 제대로 닦는 수행이라는 얘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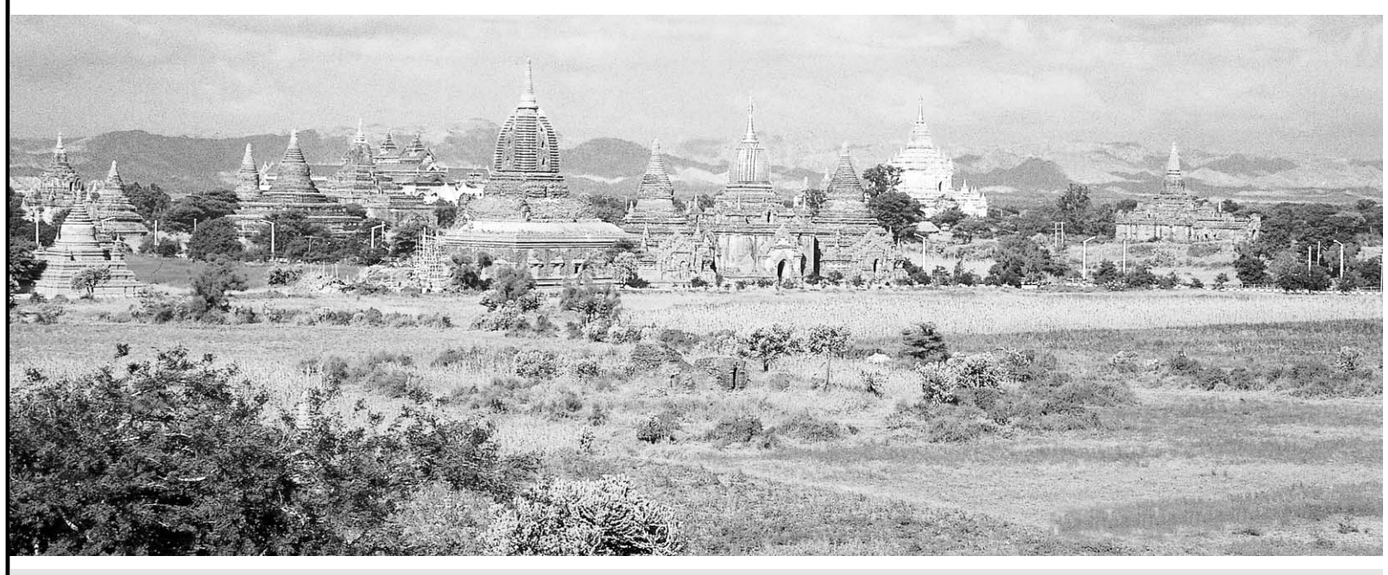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결국 수행이라는 개념의 뜻을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풀이해주지는 않았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본래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으로서 살면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맥락에서는 '아이고, 저는 지금 부처님으로 살지 못하겠으니까 우선 부처님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됩니까?' 하는 질문을 아무리 해보았자, 기대하는 처방은 안 나온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수행방편의 처방이고, 마조스님이 말하는 것은 방편이 아니라 원리원칙이기 때문이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불교방송에서 미얀마 불교성지순례를 실시합니다.

찬란한 불탑의 나라 미얀마!!
불교방송이 미얀마 성지순례에 파격적인 비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부처님과 사리불, 목련존자의 사리를 모신 수도 양곤을 비롯하여 세계 3대 불교유적 중의 하나로, 아름다운 불탑과 사원으로 이루어진 파간과 만달레이를 순례하고, 까바에 파고다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정대불사법회도 봉행합니다.
이번 순례는 5박 6일 일정으로 12월 9일 부터 2회에 걸쳐 대한항공 전세기로 출발합니다.



BBS 불교방송 문의전화 : (02)705-5301. 3 www.bbsfm.co.kr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일 정 표

일 자	출발 / 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12/9 12/17	인 천 양 곤	KE9667 전세기	17:00 19:00 23:00	인천국제공항 집결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양곤 도착 후 호텔투숙	석	기내식
				HOTEL | TRADERS OR NIKKO		
제02일 12/10 12/18	양 곤 파 간	국내선	06:30 07:50	아침공양 후 국내선으로 파간이동 2,500여개의 불탑파노라마 순례, 쉐지곤파고다, 아난다 사원, 마누하 사원, 부파야파고다, 쉐산도 파고다, 이라와디강 석양감상, 저녁공양 후 호텔투숙	조 중 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HOTEL | ARTHAWKA OR THARABAR GATE		
제03일 12/11 12/19	파 간 만달레이 민 군 만달레이	국내선	08:45 09:15	아침공양 후 공파웅왕조의 만달레이 이동. 우삐인다리, 마하간디용수도원, 만달레이힐 순례, 전용 유람선으로 민군향발 민군대탑, 민군종 순례 후 호텔투숙	조 중 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HOTEL | MANDALAY HILL RESORT		
제04일 12/12 12/20	만달레이 양 곤	국내선	08:50 10:15	아침공양 후 양곤이동 후 로카찬다욱불사, 차욱탓지 파고다, 까바에 파고다(진신사리 친견/정대불사 봉행), 아웅산마켓 견학, 저녁공양 후 호텔투숙	조 중 석	호텔식 한 식 한 식
				HOTEL | TRADERS OR NIKKO		
제05일 12/13 12/21	양 곤	전용차량 KE9668 전세기	전 일 00:25	아침공양 후 쉐다곤파고다, 마하시수도원, 쉐도파고다 순례 아웅산기념탑 경유 (가사불사 및 법회 불교대학대법당) 저녁공양 후 양곤 출발	조 중 석	호텔식 현지식 한 식
				HOTEL | 기내박		
제06일 12/14 12/22	인 천		08:10	인천 도착 후 해산 굳 성불하십시오 굳	조	기내식

※ 자세한 문의는 불교방송 전화 705국에 5301번이나 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참 금 : 1,380,000원
● 구비서류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진 3장
● 포함내역 : 여행자보험(1억원), 공항이용료, 출국세 등
● 신청마감 : 출발 10일전
● 출 발 : 12월 9일, 12월 17일 - 2회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19) 범소유상(凡所有相) 개시허망(皆是虛妄)

'있다'는 것은 곧 '소유한다'이다

부연하자면, '있다'를 뜻하는 한자의 유(有)라는 말도, 그 어원은 '손이 볏단을 끌어 모아 쥐고 있는 모습'을 본뜨고 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수확과 소유! '이기적'임을 뜻하는 사(私)자도 '벼를 칼로 베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 하나가 인간의 근원적 진실을 웅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물은 늘 우리의 사적 관심과 목적의 '자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경계는 블랙홀 주변의 우주 공간처럼 늘 '휘어져 있습니다.' 심하면 마구 헝클어져 있기도 합니다.

<금강경>이 그래서 말합니다.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이 구절을 친절하게 제 멋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그것들은 객관적 실제가 아니다. 그것들은 네 사적 의지와 관심의 투영, 다시 말해 '너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 사태를 선명히 자각할 때, 그때 너는 붓다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객관'은 그래서 멀고 먼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관심과 편견을 문득, 유보하면,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자세를 문득 갖추고 나면, 한 순간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붓다, 혹은 여래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태를 근원적으로 이해하고, 그 '객관'을 가장 순수하고 견고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무지(無明)가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다

우리는 이 과학적 사실(?)을 거의 모르고 삽니다. 나도 모르는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같은 불행의 연쇄고리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자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붓다만이 홀로 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세계'를 부수고, 해탈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불행의 궁극적 기원은 탐욕과 분노라기보다,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사실, 즉 우리가 이 추동의 연쇄고리를 모른다는 '무지(無明)'에 있습니다. 탐욕도 분노도 그 무지의 결과입니다. <대승기신론>도 근본무명으로부터 탐욕과 분노가 파생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무명(無明)은 12연기의 시작이면서, 또 근원적 해악인 삼독의 뿌리입니다!

무명(無明)이라, 요컨대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뭘 하고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게 아이러니 중에서도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말했습니다. "주여, 이들을 용서하소서.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나이다."

붓다나 예수뿐만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무지야말로 근원적 죄악이라고 갈파했습니다. 승려 나가세나는 메난드로스 왕에게 모르고 짓는 죄가 알고 짓는 죄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리이스 왕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뻘겋게 단 쇳덩이를 어느 사나이는 모르고 잡았고, 또 한 사람은 알고 잡았다고 할 때, 누가 더 많이 데겠습니까."

"존자여, 모르고 잡은 사람이 더 데겠지요." "대왕이시여, 그와 마찬가지로 모르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죄가 더 큰 것입니다."

원효가 무덤 속에서 해골바가지물을 먹고 나서 깨달은 것, 그것은 바로 삼계유심, 만법유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결국, 자기가 만든 세계' 속에 갇혀 살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낡은 새장을 넘어 자유와 평화를

우리가 알고 있는 '님'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한용운, <님의 침묵> 서문). 우리는 자신의 관심과 욕망을 투영한 대상을 두고, 그리워하고 갈망하며, 남들과 다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갇혀 있는 이 비좁고 불완전하고 낡은 새장을 넘어 자유와 평화를 찾아 날아봅시다. '병 속의 새'를 꺼내는 요령은 알았으되, 실제 꺼내려면 얼만큼의 기술과 노력, 시간이 필요할까요. 멀다고 끙끙거릴 수도 있고, 문득 편안히 창공을 나는 자신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앞의 것을 점교(漸敎), 나중 것을 돈교(頓敎)라 합니다.

'세계'를 만든 것도 '마음'이고,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것도 마음입니다. 혁명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하는 것.

<법구경>의 첫 머리를 정대 공양합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장자따라… ㊷ 지눌 스님의 '속빈 강정'

조태호



지눌 스님(1158~1210): 고려중기의 스님으로 지금의 송광사에서 정혜결사를 폈다. '정혜결사문' '수심결' '진심직설' 등 저서를 남겼다.

네티즌 교리문답

돈오돈수·돈오점수의 뜻은?

문 '돈오돈수' 또는 '돈오점수'란 말을 들어 봤는데요. 어느 것이 맞는지, 아니면 둘 다 맞는 것인지요? 순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ID 혜수)

답1 : 돈오 이후 돈수면 어떻고 점수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시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돈오는 단박에 깨달아 드는 것을 말함이나 단박에 깨달은 사람이 무얼 더 닦을 것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돈수론입니다. 반면, 단박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중생의 습기가 남아 있으니, 부단하게 정진하여 습기를 닦아야 한다는 것이 점수론이다.

그러나 돈오 이후 돈수와 점수를 나누는 것은 후학들을 지도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참선자로서는 돈수와 점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단박에 깨치고 나면 닦을 것조차 없이 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것' 처럼 있는 그대로가 바로 분별없는 장엄의 세계이니 닦을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닦는 다는 생각마저 없는 것이 바로 돈오일진대, 무얼 닦아 몸에 배인 습기를 닦아 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과 혜가 둘이 아님을 알고, 부단하게 닦아가야 합니다. 그 행이 바로 돈수이고 점수라 말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돈점'에 의문을 삼지 않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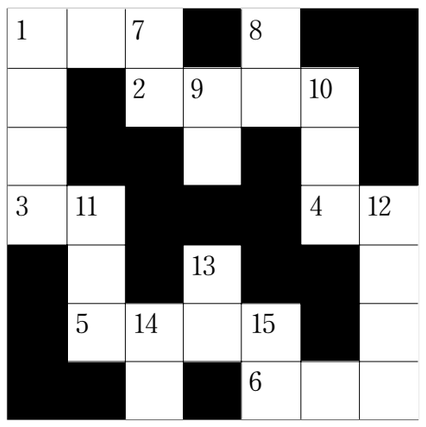
불자는 주어진 모든 환경과 형편에 적응해 자연의 하나로서 자연과 일치해 내가 곧 자연이 돼야 합니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거슬리지 않으며 살아 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돈수고 점수인 것입니다. 내가 곧 자연이고 남과 다르지 않을 때 어찌 남이 이롭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남을 이롭게 해야겠다는 생각없이 자연의 일부로 장엄하여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자연에 회향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이롭게 하는 것이 되니 이것이 이타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오하신 조사스님들께서는 상대의 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을 하신 것의 일부가 돈수와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풍각쟁이)

답2 : 풍각쟁이님의 글에 동감합니다. 돈오는 점수론만 고집하는 것에 대한 방편적 가르침이며, 점수는 돈오론만 고집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가르침입니다. 덧붙인다면 중도로서 길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매헌)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대구시와 경북 영천 등지에 걸쳐 있는 산, 동화사가 있음 2. 콜레스테롤·중성지방 등 혈청 지질 가운데 어느 하나의 혈청농도가 높은 상태,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 3. 여러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 ○○를 모으다 4. 둘이나 넷이 들던 집모양의 탈 것 5.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 마호메트교 6.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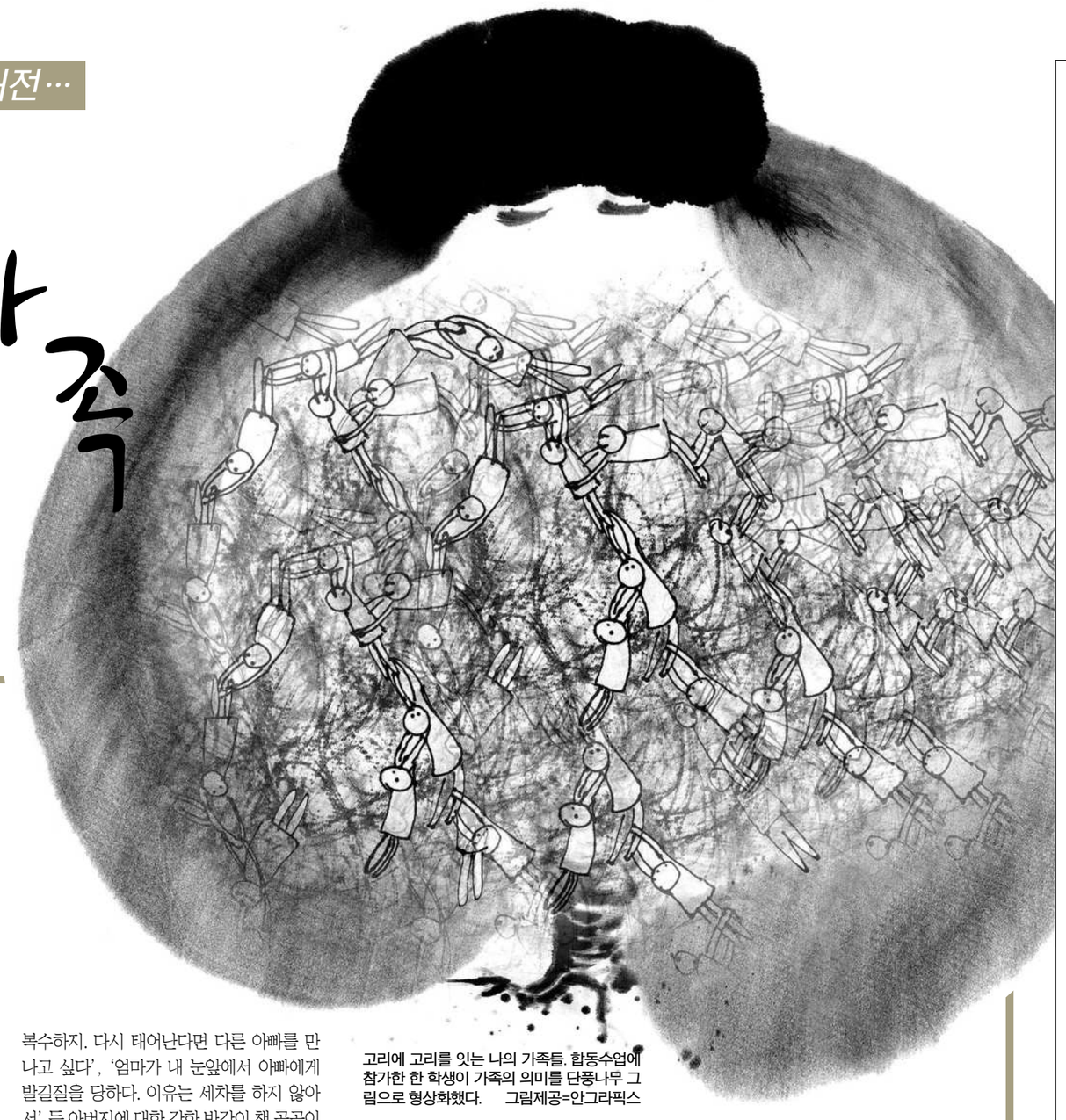
세로 1. 불법을 지키는 8종(種)의 신, 천룡팔부(天龍八部)·용신팔부(龍神八部)라고도 함 7. 아이 낳는 고통 8. 열렬한 정신이나 격렬한 정열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청년 9. 지각이 흔들리는 것 10. 6조 혜능 스님의 선요(禪要)를 듣고 하룻밤에 증오(證悟)를 얻은 영가현각 스님이 대오의 심경에서 증도의 요지를 읊은 시 11. ○○○ 용 되다, ○○○도 밟으면 꿈틀 12.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도 아랑곳하지 아니한다는 뜻 13. 시조시인 이병기의 호 14. 지혜의 우리말 15. 종교계의 줄임말.

있어서 부담, 없으면 허전…

신세대들이 말하는 가족



있다 · 없다-다시 쓰는 가족이야기
연세대, 하자 작업장 학교, 홍익대 학생 지음
안그라픽스 | 2만원



고리에 고리를 잇는 나의 가족들. 합동수업에 참가한 한 학생이 가족의 의미를 단풍나무 그림으로 형상화했다. 그림제공=안그라픽스

2004년, 신세대들이 바라본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 '강남 가족은 애완견이, 강북 가족은 텔레비전이 없으면 해체된다'는 말처럼, 과연 가족은 끈끈한 가족애 대신 제 3자인 애완견과 텔레비전이 '해체'를 막아주고 있을까? 가족에 대해 생각조차 피곤해하고, 고민할 겨를도 없는 신세대들이 우리시대의 가족을 이야기했다.

<있다 · 없다-다시 쓰는 가족이야기>는 바로 이런 질문에서 현대 한국사회 가족의 실상을 젊은 시각들로 담아냈다. 그리고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믿음은, 이미 '가족해체기'를 맞고 있는 우리시대에서 벌써 빗겨서있다고 증언한다.

그럼, 왜 이제 와서 해묵은 가족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인가. 그것도 가족이라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현실에서, 또 '가족은 없다'고 선언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다.

연세대 사회학과(조한혜정 교수)와 홍익대 시각디자인과(안상수 안병학 교수), 대안학교인 하자 작업장학교 65명의 학생들이 올 1학기 가족사회학 합동수업에서 진지하게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또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모아 직접 책으로 묶어냈다. 만약 이 책이 진한 '가족애'를 주제로 눈물샘을 자극할 것이라 예상하고 집어 든다면, 아마도 이런 짐작은 보기 좋게 빗나갈 것이다. 가족에 관한 기존 통념을 허무는 이야기가 이 책에서 가득하기 때문이다.

#가족은 없다?

우선,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를 증오하는 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복수하지.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아빠를 만나고 싶다', '엄마가 내 눈앞에서 아빠에게 발길질을 당하다. 이유는 세차를 하지 않아서' 등 아버지에 대한 강한 반감이 책 곳곳이 묻혀있다. 심지어 '나는 이미 오래 전에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에서 제제가 자신의 아버지를 늙는 나무라고 상상하며 마음속에서 죽였듯이, 나의 가족들을 마음속에서 죽였을지도 모른다'며 가족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글도 눈에 띈다. 또 가족에 관한 고정관념도 바꾸기를 주문한다. 가족은 어릴 때는 포근하지만, 커서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엄마의 유방'과 같고,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가입된 '국민연금'과 같다고 말한다.

#그래도 가족은 있다

하지만 어둡게 가족을 바라보는 건만은 아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일깨우고자 한다. '고리에 고리를 잇는 나의 가족들, 그들과 함께 살아온 정원 한 가운데 단풍나무, 언제나 한 몸 가득 안아주는 집', '집은 공간이다. 가족은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 '가족은 하나의 끈이다.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의무로, 소속해주는 사랑으로 묶어주는 끈' 등 항상 힘이 되는 공동체로 가족을 기억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책은 이처럼 제각기 다른 가족에 대한 정의와 그 경험들을 글, 이미지, 도식 등의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담아내고 있다. 마치 '주름이 있는 삶'을 엿보는 감동을 안겨주듯이 '특별한' 속사정을 쏟아낸다. 주제도 틀에 가두지 않았다. 사랑, 연애, 동거, 할아버지, 땅, 주거 및 식탁공동체 등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에 초점이 맞춰졌다.

'새로운 가족상'은 어디에

이를 위해 학생들은 '비정상적 가족은 없다' '노는 가족' '방목 가족' 등 8개의 조로 나뉘어 머리를 맞댔다. 서로 다른 환경과 성격을 가진 다양한 경험들이 철저히 체험적 지식으로 다뤄졌다. 그러나 단점이 있다.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질 못하고, 단지 경험의 여러 결을 그대로 보여줬기에 그렇다. 때문에 책에서는 '새로운 가족상'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은 우리시대 젊은이들의 눈에 비친 가족을 풀어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분명한 건 견고한 가족의 개념이 어떻게 균열이 생기고 있는지, 또 이를 메울 수 있는 지혜를 공유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기획자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연세대 조한혜정 사회학과 교수는 "봉건적인 대가족이 해체된 뒤 생겨난 근대 부부 중심의 핵가족 제도가 지금 해체 중"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김현아 지음 | 책갈피 | 1만3천원

말라리아 약을 챙겨야 할 것 같은 밀림에 대한 상상, 영화 '연인'의 제인마치 표정이 떠오르는 베트남을 그렸던 저자는 피스보트의 초대 받아 아시아 여러 지역을 답사한다. 그러던 중, 베트남의 다낭이라는 항구도시에서 '베트남전의 한국군'이라는 코스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서 책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이야기는 시작된다.

사실 우리는 베트남전 참전군인, 그들의 무용담들, 미국영화에서 보아온 전쟁 등을 통해 베트남을 단편적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이 책은 이러한 편견을 깨부순다. 물론 다양한 이들의 전쟁 기억,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 전쟁이야기가 작가의 여정과 함께 있지만, 이 책은 전쟁을 뼈져리게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때로는 눈물짓게 되고, 때로는 깜짝 놀라 흥분하게도 만들게 하는 이야기. 이 책은 전쟁을 겪은, 살아남은 다양한 사람들-군인, 시인, 감독, 다리를 잃은 할머니, 부인과 자식을 잃은 할아버지-의 이야기, 전쟁을 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 스무 살 젊은 나

'다름' 부정하는 전쟁의 폭력성

겪고 싶지 않은, 기억조차 하기 싫은…

이 부모님께 소 한 마리라도 장만해 드릴 생각으로 베트남에 갔던 50대 이야기, 마지막에는 '다시는 전쟁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이야기까지 이들의 말과 표정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삶, 즉 '끝나지 않은 전쟁이야기'라고 이들이 조용히 말한다.

이 책은 '다름'의 이야기도 한다. 그저 다른 것이지, 우열도 강약도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들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내안에 다름을 인정할 것을 말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에서 월남 패망했다고 나는 들어왔고, 항미전쟁을 통해 베트남 해방을 이루었다'고. 전혀 다른 이름, 다른 기억으로. 이런 전쟁 이야기는 심지어 꿈에서조차 이야기를 하게 한다.

"베트남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가라 그냥 그렇게 계속 가라. 그러면 그곳에 도달할 것이다' 바로 그곳, 당신이 마음속에 꿈꾸는 그 속에서도." 베트남 감독 겸 시인 반레가 말한 꿈은 아마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었을까.

요즘 이라크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고 있다. 최근 일본인이 죽었다. 일본 열도가 술렁거리고 있다. 우리의 김선일 씨도 아프게 떠났다. 인터넷과 방송 모두 한 때 보도, 분석, 주장들로 혼란이었던 기억이 난다. 이후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어미는, 동생의 아린 가슴은 그대로다. 꿈에 나올지도 모른다. 그 기억은 언제쯤 떠나 그들의 삶을 평화롭게 해 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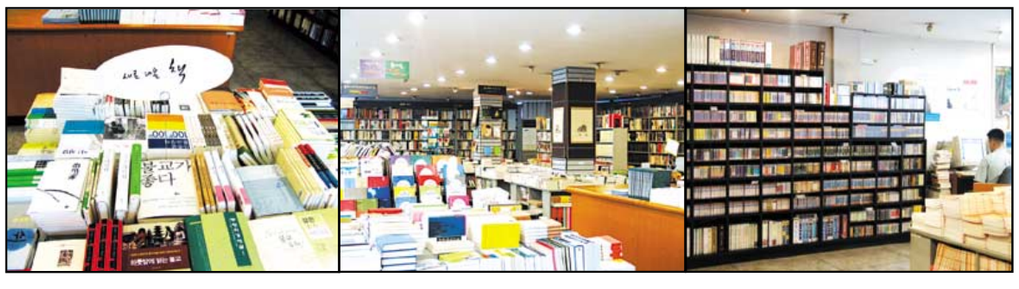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전도 베트남전도 내 몸으로 겪지 않은 나, 수많은 다른 나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들의 전쟁, 전쟁 후에 기억되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쟁의 기억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김정우** ('나와우리' 사무국장)

불교서적의 요람으로 불자들과 함께한 10년!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Hot!

국내 모든 불서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주문으로
빠르게 받아본다!



불교의 기초부터, 선지식 이야기까지!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여시아문'과 만나십시오

도해 팔상록
오고산, 이종익, 심재열 편역
신국양장판 / 541쪽 / 값 15,000원
보련각

– 바른 가르침의 흰 연꽃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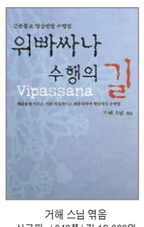
묘법연화경 / 혜능 스님
신국판 양장 1067쪽 /값30,000
부다가야

법화경 上 · 下

무비 옮김, 박상근 펴냄 / 신국판
상 282쪽 · 하 320쪽 / 값 각권 8,000원
불광출판부

국내 최초 큰스님들의 일대기 집대성
한국 현대 고승 대전집

www. samgakhyung.com
삼각형프레스

근본불교 명상관찰 수행법
위빠싸나 수행의 길

거해 스님 엮음
신국판 / 343쪽/ 값 12,000원
샘이깊은물

성숙의 계절, 가을에 꼭 읽어야 할 책!
법정 스님이 말하는 '홀로 사는 즐거움
홀로 사는 즐거움

거해 스님 엮음
법정 지음 / 양장판 / 값 9,800원
샘터

마음의 눈

문윤정 지음
신국판 / 296쪽 / 값 10,000원
솔과학

간화선 종휴을 위한 선원장초청 대법회
선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여시아문

★ 본 연합광고 서적은 책방 여시아문에서 11월 30일 까지 특설코너를 마련하여 판매 할 예정 입니다 ★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책방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yosiamun.com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법공양 상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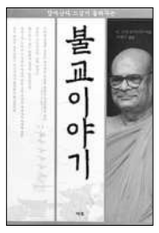
담마난다 스님의 눈높이 불교입문서

"인간은 달에 상륙하고 우주의 불가사의한 일들을 발견해 낼 정도로 영리하지만, 아직 자기 마음의 내적 작용에 대해서는 더 많은 탐구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계발해서 인생의 진실한 본성을 깨달을 수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

1964년 처음 출간돼 이미 16개 언어로 번역됐고 네 차례나 개정을 거듭한 이 책이 오늘날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50여년이 넘게 포교현장을 지켜온 담마난다 스님의 경험에서 우러난 주옥같은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12살 때인 1931년 출가한 후 포교를 위해 말레이시아에 파견되어 해외포교에 앞장 서 온 담마난다 스님은 불교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실천적인 종교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불교입문서 <불교이야기>를 쓰게 됐다. 그동안 책은 판이 거듭될수록 신자들과 학생들이 자주 하는 '불교는 이론인가 철학인가' '불교는 무신론인가' 등의 질문이 추가되어 출간 당시에 비해 두께가 두 배 이상 두꺼워졌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철저히 신도들의 눈높이에 맞춰 불교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님은 불교를 불교이론으로만 설명해 더욱 설명이 난해해지는 방식에서 탈피해 플라톤, 버트런드 러셀, 셰익스피어 등 세계적인 철학자들과 대문호들의 문장에서부터 뉴턴과 아인슈타인 등 과학자들의 이론들을 동원해 불교를 설명한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다. 스님은 여기서 무조건적인 찬탄과 존경이 아닌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후반부인 3부~6부에서는 기도와 선정을 비롯한 불교수행의 내용과 함께 결혼과 가정생활, 전쟁과 폭력, 국가와 개인 등 일상의 삶 속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점점 화려해져가는 불교의례에 대한 비판과 여성의 지위변화 등 오늘날 승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찰도 담겨 있다. **여수령 기자**



불교이야기
담마난다 지음
이병두 옮김
미토 | 1만9천원

혜초 스님 좇아 부르는 '번뇌의 노래'

'왕오천축국전' 여정따라 삶의 근원 추구



"나는/태어나지도 않았고/살지도 않았다/따라서 죽는다는 것도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나는/태어나서/살았으며/그리고 죽는다" ('금강경에 부쳐' 전문)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마지막 장까지 단숨에 읽히는 시집은 흔치 않다. 시인이자 출판인인 박진숙(47 · 작가정신 대표 · 사진) 씨가 14년간의 침묵을 깨고 펴낸 <혜초일기>는 108편이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시집에는 신라 혜초 스님이 서역을 여행한 후 지은 <왕오천축국전>에 나타나는 순례 길을 좇으며 삶의 근원과 진리 그리고 불법(佛法)을 추구하는 시들이 '한 호흡'으로 묶여 있다.

<왕오천축국전>을 읽어 본 이라면 시 곳곳에 숨겨진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겠지만, 읽지 않았다 해도 상관없다.

'불교'라는 겉옷을 입고 있지만 전문용어를 배재한 일상의 언어로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인이 이 시를 17년간 썼다는 사실이나, 실제론 <왕오천축국전>의 여정을 따라 여행을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해도 시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구경>과 <숫타니파타>를 읽으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마음이 열렸다"고 말하는 시인은 86년 <왕오천축국전>을 접하고 "내 인생의 궤적과 혜초 스님의 발자취가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시인은 "<왕오천축국전>에 시적 향기를 불어넣고 싶다"는 마음에 혜초 스님의 구법 여정에 자신의 발을 들여 놓게 됐다.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영혼의 은빛 꼭대기를 향해/뱃속을 가르고 가슴을 찢으며 솟구치는/전율" ('출발의 노래' 전문)

그 후로 '더디지만 꾸준한' 순례가 시작됐다. 마치 "누에고치가 실을 뽑듯" 시가 나왔다.

한 달에 고작 한 편을 쓸 때도 있었지만, 여정이 중도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없었다. 그렇게 시인은 혜초 스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때로는 혜초의 어머니가 되고 때로는 부처가 되고 또 때로는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이 되어 그들의 눈과 입을 빌어 노래한다.

"혜초 스님은 순례 길에 보고 들은 것을 자신의 가치판단 없이 그대로 기술해 두었죠. 이런 '열린' 기록이 시인으로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선적(禪的)'이라거나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는 데는 무척 조심스러웠다.

"제 시는 깨달음의 노래가 아닌 '번뇌의 노래'입니다. 깊은 수행에서 나오는 깨달음의 시를 '오도송'이라고 한다면, 시는 결국 삶을 노래하는 번뇌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초일기
박진숙 시집
문학세계사
6천원

문학평론가 이남호 교수(고려대)는 <혜초일기>의 미덕으로 '진정성'을 꼽는다. 이 교수는 "세상과 삶의 이치에 대한 <혜초일기>의 시적 사유들은 가벼운 아포리즘들이 범접할 수 없는 진정성에 닿아 있다"며 "이 시집은 종교적 주제나 소재를 지닌 많은 시집들 가운데서 하나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길을 걸으며 길 위의 것들을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 시의 종착점은 순례를 처음 시작하던 바로 그 마음자리다. 마치 삶이 시작과 끝이 따로 없는 법륜이듯이.

"나는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았고/아무것도 보지 않았다/길 위에서/모든 것은 끝났다/나는 그 누구도 무엇도 아니다 이 순간" ('대운사의 아궁이' 中)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우리 안의 티베트를 찾아서



티베트 문화산책 글/사진 김규현 | 정신세계사 | 1만8천원

티베트와 한반도는 거리로는 수만 리 떨어져 있고, 역사적으로도 이질적인 문화권에 속해 있다. 하지만 10여년동안 티베트 관련 연구와 저술 활동에 매진해 온 지은이에 따르면 두 나라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영향을 서로 주고 받았다.

예를 들면 미숫가루, 육포, 순대 등의 음식에서 부터, 오색 색동문양 등의 의복, '선녀와 나무꾼' '장화홍련' 등과 같은 민간설화 등에서 확인되듯이 문화 전반에 걸쳐 티베트와의 연결고리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우리 안의 티베트'를 화두삼아 그들의 문화를 구석구석 탐색하는 티베트 문화 여행기이다.

1부는 티베트 최대의 페스티벌인 '쇼뙨'(일명 요구르트축제)과 연극의 신이라 불리는 승려 '탕돈 갈뽀(Thangtong Gyalpo:다리를 놓는 고승)'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이외에도 티베트연극 '아체라모'를 중심으로 연극이 어떻게 가장 대중적인 서민 놀이문화가 되었는지도 알아본다.

2부는 탕카(탱화)와 벽화, 조소, 목판화 등 티베트의 회화예술을 소개하고 그 역사와 밀교예술에 대해서도 짚는다.

3부에서는 문화대국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여전히 고유의 색깔을 유지하고 있는 티베트의 춤과 노래, 음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10가지 주제로 본 백제의 美



백제 최후 123년 박종일 지음 | 화남 | 9천5백원

538년부터 660년까지 123년 동안 백제의 수도이자 마지막 도읍지였던 충남 부여. <백제 최후 123년>은 부여에 대한 문화 지리서이자 백제의 숨결을 더듬어 가는 역사 기행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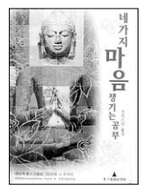
부여가 고향인 지은이는 "적막 속으로 사라진 백제에 대한 것들을 기어이 찾아내 쓰고 싶었다"고 말한다. 지은이는 백제의 아름다움을 강, 돌, 소박(素朴), 웃음, 한(恨), 곡선, 삼라만상, 해학 등 10가지로 찾아내 스러진 역사 속에서 길어 올린다.

금강에 대한 단상을 '슬픔, 슬픔으로 흐르는 얼굴이여'라는 부제로 풀어낸 글에서 지은이는 문화강국 백제의 패망 역사를 담담하게 써내려간다. 이를 위해 <일본서기>를 참고하는 것은 물론 '산유화가(품앗이할 때 부르는 노동요)', 신경림의 시 '갈대' 등을 자유롭게 인용한다.

'웃음'에 대해 쓴 '천년의 미소를 돌아본다'라는 글에서는 금동반가사유상의 백제 제작설과 백제시대 미륵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반가사유상의 미소에서 어지러운 시대를 살았던 백제인들의 염원을 읽어낸다. 그 밖에도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는 백제의 '소박'한 미를, 주조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백제금동대향로에서는 '삼라만상'을 발견한다.

"아쉽고 그립겠지만 백제에 대한 연민을 나는 이제 그만 버리고 싶다. 그래야만 새로운 세상이 보일 것만 같다"는 지은이의 고백에서 오히려 백제에 대한 버릴 수 없는 애정이 느껴진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각묵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1만원)=지난해 출간된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의 개정판. 초기불교 수행법을 '몸' '느낌' '마음' '법'의 네 가지 주제로 집대성한 <대념처경>과 그 주석서를 번역한 책이다.



■ **<생명이냐 자살이냐>**(최동환 지음, 지혜의나무, 2만원)=20여년 간 '한사상'을 연구해 온 최동환 씨가 여러 사상가들의 주장을 '한철학'으로 비교 분석한다. 지은이는 긍정과 상생, 공생의 방법인 '온' 철학으로 우리의 사상을 정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 **<무속화>**(가회박물관 엮음, 재미마주, 1만8천원)=우리나라 무속세계의 실체를 무속화를 통해 살펴보는 화집. 민화 전문박물관인 가회박물관이 엮은 이 책에는 삼불제석, 오방신장, 산시 등 186점의 무속화에서 엄선한 작품이 담겨 있다. 인간사의 길흉화복을 주관하며 신앙의 대상이 됐던 각 지역 무신들의 다채로운 모습을 살필 수 있다.



■ **<대자유인이 되는 길>**(해공 지음, 다나, 1만원)=지은이가 미얀마 수행을 마치고 돌아와 제자들에게 명상을 지도하면서 일주일에 4~5시간씩 강론한 내용을 담은 강의록과 먼저 쓴 글에서 핵심을 뽑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오체투지	한경혜	반디미디어
2	선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3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터
4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 스님	이른아침
5	왜 사는가	무량 스님	열림원
6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도법 스님	아름다운인연
7	용서	달라이 라마	오래된미래
8	서장	전재강	운주사
9	선방가는 길	정찬주	열림원
10	해탈의 길	성철 스님	장경각

도서 안내 : (02)737-0695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억겁의 체증을 통쾌하게 씻어주는 이 시대의 야부 선사!
대원 문재현 선사(전강 선사님 인가제자)의 감로법문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불교의 최고봉인 화엄, 그 화엄의 정수를 담은
화엄경현담이 새롭게 재출간되었습니다

한글 화엄경현담의 결정판!



- 불교를 공부하는 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화엄의 세계, 그 완벽한 모습이 알기 쉽게 출간되었습니다.
- 국한문을 병기하여 한글과 한문으로 동시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화엄경현담 주해집도 첨부되어 화엄은 물론 불교가 폭넓게 설명되었습니다.
- 4×6배판 양장제본 케이스

구 입 | 각권 35,000원 / 전4권 140,000원
신청 즉시 택배로 운송해 드립니다.
송금계좌번호 | 농협 053-01-254866 (재)대한불교조계종
국민은행 765-01-0017-288 (재)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 출판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전화 (02)2011-1880~1
팩스 (02)720-6019



박·범·훈 소리인연 40년 가을밤 장엄한다



박범훈 교수가 국악과 인연을 맺은지 올해로 40년이 된다. 이에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40년 음악인생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마련했다. 11월 11일 열리는 '소리연'이다. 사진은 지난 5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부처님오신날 기념음악회 '불향'에서의 지휘 모습.

박범훈 교수 소리緣 40주년 기념의 밤

(11월 11일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

제자들 뜻모아 음악회 마련

메나리 · 돈돌날이 등 대표작 연주

한상일-김재영-이용탁 릴레이 지휘

김성녀 김영임 장사익 음성공양

대표작 모은 CD 40장 출판 예정

박범훈 중앙대 부총장(56)에겐 따라 붙는 수식어가 많다. 작곡가, 국악 연주인, 불교음악가, 중앙국악관현악단 단장, 아시아 민족악단 대표, 국립국악관현악단 초대 단장 겸 예술감독, 국악예고 이사장, 오케스트라 아시아 지휘자 등이다. 이런 공적을 인정받아 올해 초에는 국악전문지 '소리마당'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국악계 인물 1위에 뽑히기도 했다.

박 교수는 불교음악을 비롯해 우리 전통 음악과 인연을 맺은지 올해로 꼭 40년째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박 교수 제자들의 모임인 '범성회(凡聲會)'가 음악회를 마련했다.

11월 11일 오후 6시 반포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열리는 '박범훈 소리연(緣) 40주년 기념의 밤'이 그것이다. 국수호 정재만, 손진책 등 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수많은 작품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그들과의 인연을 기념하자는 뜻에서 제목을 '소리연'으로 정했다.

"우리 소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음악을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시간 가는줄도 몰랐네요. 청탁한 작품들을 주로 만드느라 변변하게 개인 발표회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제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해 준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성녀 중앙대 교수(국악대학)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공연에서는 피리 3중주 '메나리'와 가야금 합주 '돈돌날이', 해금 4중주 '잽이', 중국 악기인 얼후 협주곡 '향',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 등 박 교수의 대표작이 연주된다.

특히 이날 공연의 마지막인 '신모듬' 협주곡 연주때에는 한상일 동국대 교수, 김재영 중앙대 교수, 이용탁 국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등 그의 제자 3명이 릴레이로 지휘를 맡아 제자들의 스승 사랑을 물씬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박 교수의 작품들을 초연했던 국악인 김성녀 교수가 '귀거래' '배 띄워라'를, 김영임씨가 '한 오백년'과 '해주 아리랑'을 부른다. 이외에도 장사익씨는 그의 대표곡인 '찔레꽃'과 '티끌같은 세상, 이슬같은 세상'을 음성 공양하며, 김덕수씨도 출연해 사물놀이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을 기념해 그의 대표작들을 모은 전집 음반도 신나라 뮤직에서 출반될 예정인데, 그 수가 무려 CD로 40장에 이른다. 1차 출반분 20장은 공연 시기에 맞춰, 나머지 20장은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낼 예정이다. 또한 자서전 <내가 만난 소리, 내가 만든 소리>(경향신문 출판부)도 곧 출간된다.

40여년전 오늘날의 그를 있게 만든 것은 우연히 만난 남사당패였다. 전국을 떠돌며 공연하던 남사당패가 마침 박교수의 고향인 양평에 들러 그의 집에 잠깐 기숙한 것을 계기로 '우리 소리'와 만났다. 이후 국악예고와 중앙대 음악과, 일본 도쿄 무사시노 음대에서 탄탄한 기초 실력을 쌓았다.

박 교수가 지금까지 작곡한 작품들도 불교음악, 무용곡, 관현악곡, 독주곡, 중주곡, 교성곡, 창극, 오페라 등에 걸쳐 수 백편에 이른다. 박 교수는 이처럼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다작(多作)을 쏟아내는 작곡가다. 목정배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지어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아내라'는 뜻인 자신의 호 '범성(凡聲)'처럼 말이다. 그중 박 교수가 불교음악에 쏟은 열정은 대단했다.

1990년 이후 국악 교성곡인 '붓다'와 '용성'을 비롯해 '부모은중송' '진감' '불향' 등을 발표하며, 불교음악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의 불교 음악 사랑은 단순히 작곡에만 그친게 아니었다. <박범훈 찬불가, 1994> <한국불교음악연구, 2000> 등과 같은 저서와 '중국 불교음악의 한국 전래와 변천에 관한 연구' '불교사상에서 본 판소리 심청가 연구' '진감범패의 음악적 특징에 관한 연구'와 같은 수 편의 불교 음악 관련 논문을 발표하며 불교음악 이론을 체계화 하는 데도 기여했다.

김주일 기자 jjkim@buddhapia.com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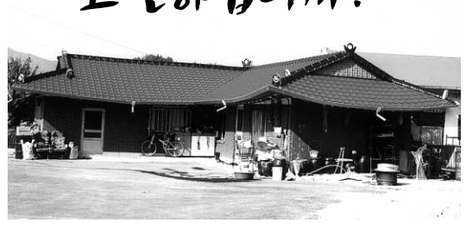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분 한정)

만삼달인 물(만삼 생것 10kg · 황기 · 잔대 · 삼지구엽초 · 생강 · 대추 · 감초)

~~● 1Box (60포 - 20만원)~~ ~~● 2Box (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 · P :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www.15440108.com

☎ 1544-0108

야단법석

■ 사업부문
- 문수사업부 – 불교행사 기획 출연 (봉축행사, 산사음악회) ☎050-5544-0108
- 보현사업부 – 불자를 위한 보험상품개발 (사십구재 보험) ☎050-5744-0108
- 관음사업부 – 사찰에 맞는 음향 연구개발(음향 설비, 음향 렌탈) ☎050-5844-0108
- 지장사업부 – 불교의례를 통한 포교(다비 · 지장상조회) ☎050-5944-0108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기존의 음향 시스템에서 스피커선 하나만 교체 하여도 음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음향기기 사용 및 관리방법
1. 날마다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아도 고장난다.
2. 렉(RACK)에 보관 하며 한달에 1회 이상 청소한다. 음향 기기도 애정을 갖는 만큼 성능을 발휘한다.
3. 일정온도가 유지 되는곳에 설치한다. 너무 춥거나 더우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4. 관리자를 두며 사용 전에 미리 점검한다. 날씨와 집객에 따라 셋팅하여야 한다.
5. 3년 정도 사용하면 소모품을 교체한다. (마이크, 스피커선, 마이크선, 연결짹 등)
6. 스피커 및 앰프 추가시 전문가와 상담한다. 저항 및 출력을 계산하지 않고 연결하면 고장의 원인이 된다.
7. 사용 후 볼륨을 다 줄인 후 전원을 차단한다. 그냥 전원을 차단하면 스피커에 무리를 준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6>



건강하고 싶은 당신에게

요즘 운동 많이 하시지요? 저녁 산책에 나서면 운동하는 이웃들을 숱하게 만납니다. 입회비를 내고 등록해서 땀을 흘리는 헬스클럽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동네 골목길이나 한 뼘 공간만 있으면 어디서든 운동을 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거나 빠르게 걷거나 또는 줄넘기를 하는 등 나름대로 매우 진지하게 건강한 몸만들기에 열심입니다.

건강!

동서고금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제일순위의 희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덕담은 대부분 너무 지나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지만 지나친 재물은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하고, 행복한 것도 좋지만 너무 행복해도 호사다마라며 경계합니다. 미남미녀를 배필로 맞이하라는 덕담도 건네지만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라며 적당한 아름다움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유독 건강에 관해서만큼은 "적당히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말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실례가 됩니다.

무병장수는 인생 목표위한 조건일 뿐
육체는 왜 덧없나 알고 휘둘리지 말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최고 가치를 건강에 두고 있는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건강해진 몸으로 무얼 하며 살건대?'

감히 말씀드리자면 참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야해', '오래 살아야해'라고 주장하며 열심히 건강법을 실천하고는 있지만 건강이나 장수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건강을 강조하십니다.

"병이 없는 것이 첫째가는 이익이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으뜸가는 부자다."<출요경>(한글대장경19책 567쪽)

이 구절을 보면 "거봐, 부처님도 건강하라시잖아. 무조건 건강이 최고라는 건 성현께서도 강조하고 계시다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건강을 강조하시는 것은 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40권 화엄경>을 볼까요?

"선남자야, 보살이 처음 발심하고 보리를 배우려면, 병이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줄 알아야 한다. 중생들이 몸에 병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한 법인데, 어떻게 바라밀다 행을 닦아 익히겠는가. 그러므로 보살이 보리를 닦으려면 먼저 몸에 있는 병을 치료해야 하는 것이다."(한글대장경48책 152쪽)

건강이나 무병장수는 절대로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위한 조건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다름 아닌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고 이웃들의 마음에서 번뇌를 덜어주는 보살의 삶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육체는 인연화합이 풀어지면 결국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덧없는 몸에 '나'는 이러저러해야한다며 집착을 가하고 화를 내는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부처님은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음을 없애가는 일도 이 덧없는 몸뚱이를 가지고 해야 하니 우리는 건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동안 켜켜로 내려앉은 어리석음을 털어 버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건강한 마음을 지녀야 하는데 그 마음이 담긴 그릇이 바로 몸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웃을 위해 밤낮없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활력이 넘치는 육체는 필수입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슴 동산에 계실 때 나룰라 장자가 찾아뵙고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 나이도 많고 또 병도 있어 온갖 근심과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부처님, 제발 좋은 가르침을 내려 주셔서 중생들이 오래도록 평온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과 같이 몸에는 두려움과 고통이 많다.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저 엷은 가죽으로 그 위를 덮었을 뿐이다. 장자여,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몸을 의지하는 이는 잠시 동안의 즐거움은 있을지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마음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이 귀히 여기는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장자여, 비록 몸에는 병이 있더라도 마음에는 병이 없게 하라. 장자여,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증일아함경>(한글대장경9책 105쪽)

지금 웰빙의 열풍에 맞춰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은 육체의 부서지는 시간을 조금 늦추는 일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은 덧없는 몸을 무너지지 않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왜 덧없는 것인가 잘 살펴보아 더 이상 덧없는 몸에 휘둘리지 말고 강건한 진리의 그릇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범룡 스님은 불자들에게 여행을 다니며 견문을 넓힐 것을 강조한다. 그래야 무엇이 소중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마음 바로 보라



지상 백고좌

범룡 스님

(동화사 비로암 한주)

11월 늦가을, 팔공산은 온통 붉은 빛이다. 새빨갛게 물든 단풍과 그것을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팔공산은 고요하기만 하다.

그 모든 것을 품어 안는 동화사 비로암에는 세수 91세, 법랍 69세의 노스님이 살고 있다.

범룡 스님. 스님들에게 계를 내리는 조계종 전계대화상(1999년)과 조계종 특별선원인 봉암사 조실(94~96년)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만허 한암 동산 효봉 경봉 스님 등 당대 선지식들의 가풍을 이었으며 평생 수행 외길을 걸어오셨다.

"왜 사람들은 나날이 풍족해져도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도 뜻대로 안 될까요?" 상생이 아니라 상쟁을 하며 자기 얼굴 살필 여유조차 없는 우리네의 삶이 떠올라 뵙자마자 질문을 드렸다.

"괴로움을 없애려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생각을 바꿔야 해요. '고즉시락(苦卽是樂)'이라, 생각에 따라 고도 되고 낙도 되는 것이야. 고락의 종자가 어디 따로 있어? 고도 낙도 똑같은 것. 평등한 것인데 사람들은 제 맘대로 고락을 만들고는 혼자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모든 세상만사가 마음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란 뜻일 게다. 그 마음의 실체를 어떻게 찾을지 여쭈었다.

"마음이란 본래 '생주이멸(生住離滅)' 즉 끝없이 변하는 것이야. 마음도 몸도 그러하고, 세상도 그러해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한번 봐. 초하루에는 요만하다가 보름에는 이만큼 커지지? 그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그 모습에 집착할 때 마음은 고가 되기도 하고 낙이 되기도 하는 거야. 집착하는 마음이 '고락'이지 고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걸 깨닫지 못하면 꿈도 생시처럼 보이는 거야. 깨닫고 보면 모두 한바탕 꿈인데, 꿈이란 걸 알면 고락이 모두 평등한 법인데 말이야."

어떻게 해야 그런 사실을 깨달을지 궁금했다. 그러나 스님은 대답 대신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고락'이 따로 있나, 집착하는 마음이지
계행 청정하게 함이 공부의 시작

"요새도 <화엄경>을 자주 읽어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오늘 읽으면 내일은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나. ……어떤 때는 읽고 싶다는 마음까지 없어져버려. 그러다가 또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다시 읽지."

한참 시간이 흘러서야 스님이 기자의 무지를 일깨우기 위해 방편을 사용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억력의 감퇴는 '4고(四苦)' 중 하나인 늙음의 증거일 텐데, 스님은 숨기거나 억지로 지어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으리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대로 받아들이고 유유자적한 삶, 여실지견(如實之見)한 선사의 풍모가 느껴진다.

스님은 종교인들의 엉뚱한 발언 때문에 사회가 소란스러워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따끔한 한마디를 했다.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서? 무슨 수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으며 하나님은 그걸 받아서 뭐에 쓴데?

대한항공 전세기 미얀마 성지순례 6일

부처님 마음(佛心)이 살아있는 때묻지 않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출발일 : 12월 5일 / 12월 13일 단, 2회 "대승항공여행사" 단독 전세기

✻불교성지순례 – 종전 ₩1,680,000 ⇒ ₩1,380,000 (전세기 특별가)

인천-양곤-파간-만달레이(샤가잉)-양곤-인천

✻문화탐방 – ₩1,450,000

인천-양곤-해호-파간-양곤-인천



(주)대승항공여행사 (www.dsatour.com) 후원 대한항공 한진관광

서울 02)730-0202 부산 051)245-0108 대구 053)572-0108 대전 042)583-0108 광주 062)361-0108

미안마 불교성지순례 일정 5박 6일

일 자	출발 / 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인천 양곤	KE전세기	19:00 22:35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양곤 도착후 호텔 투숙	조 / 중 / 석 기내식
				HOTEL TRADERS HOTEL CLASS	
제02일	양곤 파간	국내선	06:30 07:50	아침공양후 국내선으로 파간 이동 2,500여개의 불탑파노라마 관광-쉐지곤파고다, 아난다사원, 마누하사원, 부파야파고다, 쉐산도파고다, 이라와디강 석양감상후 호텔투숙	조 호텔식 / 중 현지식 / 석 현지식
				HOTEL THARABAR GATE HOTEL CLASS	
제03일	파간 만달레이 샤가잉 만달레이	국내선	08:45 09:15	아침공양후 공파웅왕조의 만달레이 이동 우뵈민다리, 마하간디용수도원, 만달레이언덕 순례 샤가잉 이동후 쉰우몽아산, 우민동제파고다 순례 만달레이 귀환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 중 현지식 / 석 현지식
				HOTEL MANDALAY HILLRESORT CLASS	
제04일	만달레이 양곤	국내선	09:30 11:05	아침공양후 양곤 이동후 로카친다옥불사, 차욱탓파고다, 칠엽굴 및 까바에파고다(전신사리 천건/정대불사 봉행) 아웅산마켓 견학 지역공양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 중 현지식 / 석 현지식
				HOTEL TRADDERS HOTEL CLASS	
제05일	양 곤	전용차량 KE전세기	전일 23:35	아침공양후 쌍에다곤파고다,마하시수도원 순례 아웅산기념탑 경유 양곤 출발	조 호텔식 / 중 현지식 / 석 한 식
				HOTEL 기내박	
제06일	인 천		07:35	인천국제공항 도착후 해산 * 성 불 하 심 시 요 *	조 기내식 / 중 / 석
				HOTEL	

미안마 문화탐방 5박 6일

일 자	출발 / 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인천 양곤	KE전세기	19:00 22:35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양곤 도착후 호텔 투숙	조 / 중 / 석 기내식
				HOTEL TRADERS HOTEL CLASS	
제02일	양곤 해호	국내선	15:30 16:40	호텔 조식후 쉐다곤파고다,아웅산기념탑 경우 쉐도파고다,로카찬다 옥불사 해호 이동 석식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 중 한 식 / 석 현지식
				HOTEL HUPPIM HOTEL CLASS	
제03일	해호 파간	전용보트 국내선	17:05 18:35	호텔 조식후 인따족의 수상시장 및 수상경작지 외발노젓기 관광 빤도우파고다,인명유적지 관광 파간 이동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 중 현지식 / 석 현지식
				HOTEL THARABAR GATE HOTEL CLASS	
제04일	파간 양곤	국내선	18:55 20:15	호텔 조식후 2,500여개의 불탑파노라마 관광-쉐지곤파고다,아난다사원,마누하사원,부파야파고다,쉐산도파고다 양곤 이동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 중 현지식 / 석 한 식
				HOTEL TRADDERS HOTEL CLASS	
제05일	양 곤	전용차량 KE전세기	전일 23:35	호텔 조식 후 칠엽굴 및 까바에파고다 관광 차욱탓지파고다,아웅산마켓 관광 양곤 출발	조 호텔식 / 중 현지식 / 석 한 식
				HOTEL 기내박	
제06일	인 천		07:35	인천국제공항 도착후 해산	조 기내식 / 중 / 석
				HOTEL	

바칠 재주도 없고 받아갈 재주도 없어. 사람들은 제 욕심 때문에 허황된 말들을 지어내고 다툼을 만들고 있어."

범룡 스님께 다시 공부하는 법에 대한 가르침을 구했다. "요즘 사람들은 생활은 나아졌지만 공부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 보는 것, 듣는 것이 엄청 많은데 정작 자기 것이 없어. 옛 사람처럼 간절함이 없어. 옛말에 '신유십분(信有十分)이면 의유십분(疑有十分)이고, 의유십분(疑有十分)이면 오유십분(悟有十分)'이라 했어. 믿음이 컸기에 의심도 컸고, 의심이 컸기에 깨달은 것도 많았다는 말이지. 옛사람들이 그랬다면 요새 사람들은 그에 반도 못 미치지. 믿음이 없으니 의심도 없어. 의심이 없기에 분발하려는 마음도 없고 깨달음을 얻을 길도 없어지는 거야. 큰 신심이 큰 의심을 부르고, 그 의심의 열매가 무르익으면 '탁' 터질 때가 있지. 그게 바로 한 소식을 하는 순간이야."

스님은 특히 신심이 투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심이 없으면 의심도 소용없고 화두도 죽은 화두가 되기 때문이다. 스님은 "의심덩어리를 기어이 풀 수 있다고 굳게 믿고 간절하게 화두를 들어야지. 그런 것을 믿지 않고 화두 하나만 일러달라고 하면 '마삼근(麻三斤)'이라고 말만 생각할 뿐이지 참선을 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화두의 뜻을 일일이 일러주며 수행을 시키는 풍조에 대해서도 경계를 했다. "화두에 정답이 어디 있겠어. 화두를 받아 오로지 몰입해서 그 하나만 생각해야지. "평생 경전을 보았지만 경전들은 모두 계정혜(戒定慧) 이것 하나만을 가르칠 뿐이야. 계는 내 입과 몸, 마음이 짓는 악업을 방지하는 것이요, 정은 흔들리는 마음을 한곳에 붙들어 매는 것이며, 혜는 그럴 때 깨달은 지혜를 말하

망상이든 화두든 본래면목 가는 방편
배부르고 편하면 간절함 없어져

는 거야. 계와 정과 혜가 동시에 갖추어질 때 견성성불도 이루어지는 거야.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들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우니 인간 몸 받았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부지런히 정진을 해야 해요."

스님은 계행을 청정히 함이 공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부처님은 열반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율을 스승 삼아 공부하라고 당부를 했지. 자장 스님도 '차라리 계를 지키며 하루를 살지 파계를 하고 백년을 살지 않겠다'고 말한 데는 까닭이 있는 거야. 그게 다 행동이 청정해야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화제가 자연스럽게 평생 스승이었던 한암 스님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갔다. "경전이면 경전, 참선이면 참선 무엇이든 다 능통한 어른이었지. 그런 재주를 두루 갖추기란 참 어려운 일이야. 내 은사인 만허 스님이, 한암 스님만큼만 중노릇 하라고 해 오대산 상원사로 가 공부를 배웠어."

범룡 스님이 평생 지닌 화두도 한암 스님이 주신 것이다. 스님은 참선할 때 열 가지 병이 있다는 사실을 한암 스님에게서 배우며, 십종병이 모두 '무(無)'자 화두에 대한 병이기 때문에 '무'자를 참구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세수가 90이 넘은 요즘도 참선을 하시는지 질문을 했더니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참선을 할 때는 참선을 하고 망상을 할 때는 망상을 할 뿐이다"며 "망상이든 화두든 본래면목으로 들어가는 방편일 뿐 다른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암 스님 문하에서 나하고 탄허 스님, 그리고 몇 스님들이 <화엄경>을 함께 공부했어. 여럿이 <화엄경> 한권으로 공부를 하려니 지금 생각해보면 여간 불편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도 공부를 한다는 즐거움이 넘쳤지. 옛날에는 어느 스님이 선지식이다 하면 걸망 지고 천리를 멀다 않고 찾아갔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어. 꾀만 늘고 뭘 좀 안다고 으시대지만 다 알음알



무르익어 탁 터질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할 것을 당부하는 범룡 스님.

이를 불잡고 있는 거야."

범룡 스님은 물질만을 중시하는 사회의 풍조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하셨다. "옛날 신도들은 못 살아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를 해도 지극했지. 요새 불자들은 너무 편안함만 찾아. 절 올라가는 길이라도 닦아놓고 건물이라도 그럴싸하게 지어야 찾아오는 것 같아. 일주문 밖에서부터 걸어오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한데, 부처님 잠배도 쉽게만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절 대중들도 자꾸 큰 건물을 짓고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무엇이든 흔하면 천해지는 법이야. 배가 부르면 간절한 생각도 다 없어지는 거지. 참선을 안 해도 도 통한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느는 데는 이유가 있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풍족히 먹고 살 수 있으니 제대로 공부하는 수행자가 드물어." 스님은, 참선공부하는 이들은 남보다 덜 먹고, 덜 쓰고, 덜 욕심부리고, 덜 시비해야 한다고 덧붙이셨다.

불자들에게 여러 곳을 다니며 견문을 넓힐 것도 당부했다.

"밖에 자주 다녀봐야 자기 나라, 자기 부모 소중한 줄도 알고 그래. 일본사람 속담에 귀한 자식은 여행을 시키라는 말이 있어요. 어린 학생들은 공부를 마친 후 세상을 둘러보아야 견문이 넓어지고 할 이야기도 생기는 법이야. 그런 사람이 불자가 돼야 큰 일도 하는 거지."

정리=강유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선·교·율 두루 갖춘 손꼽히는 선지식

범룡 스님은 1914년 평북 맹산군에서 태어난 스님은 35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출가, 38년 만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유점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했다. 스님은 그후 오대산 상원사로 가서 한암 스님 문하에서 <화엄경> 등 경전과 참선을 공부하다가 41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상원사 수덕사 해인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했으며 <화엄경> <능엄경> 등에도 능해 선·교·율을 모두 갖춘 몇 안 되는 선지식으로 알려져 왔다. 묘향산 보현사, 통도사 극락암 등 공부하기 좋다는 선방이란 선방은 어디든 천리를 멀다 않고 발품을 팔고 다녔다.

범룡 스님은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등 너무 많이 다녀서 이제는 어디를 다녔는지 기억조차도 하기 힘들다"며 "걸어 다니면서 탁발하는 일이 행선(行禪) 수행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힘든 줄도 몰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스님은 1980년 동화사 주지, 94년 봉암사 조실을 역임했으며, 77년부터 지금까지 동화사 비로암에 주석해 오고 있다.



법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송월 스님

군산 성흥사 주지 송월(松月) 스님은 '태극권 포교사'다. 태극권을 배워서 자신의 건강을 돌볼 뿐 아니라 신도들도 지도하고 주민자치센터나 교도소 그리고 군부대에도 열심히 태극권을 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붙여준 이름이다.

1970년대 말, 송월 스님이 아직 출가하기 전의 일이다.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사업가의 야망을 펼치고 있을 때인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다. 얼굴에 시커먼 것들이 피어오르고 옆구리가 따끔거리더니 몹시 아팠다. 입원을 해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간경변이었다.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여러 달이 지나도록 차도가 없고 오히려 심해졌다. 주변에서도 걱정이 커졌는데 의사도 영 자신 없어 하는 눈치였다.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



그림 · 문병성

고 매달렸는데 어느 날은 도저히 어렵겠다고 해서 낙심천만하였다. 결국 병원생활을 청산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집에 왔는데 친지들이 백방으로 나서서 용하다는 의원과 무당까지 불렀다.

그런데 어느 무속인이 와서 "당신은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서 몸이 망가져 버린 것이니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께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소개로 진안에 있는 마이산에 가서 천일기도를 하였다. 그저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기도했다. 오로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으리니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끝까지 해 보리라"는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또 부르며 무릎에 피멍이 들어도 아픈 줄 모르고 절을 했다. 엉덩이가 다 무르고 닳아질 때까지 밖에 나가지 않고 천일기도를 거의 다 마칠 무렵, 어느 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지경인데 커다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마에 젓가락같이 긴 침을 놓아준 뒤로 몸이 가뿐해짐을 느꼈다. 수없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음은 물론이다.

어느날 스님이 찾아왔다. 그 스님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열심히는 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 분은 전라북도 불교의 큰 어른으로 통하는 춘명(春明) 스님의 맏상좌 성공(性空) 스님이었다. 그날부터 그 분의 지도를 받고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공양올리는 의식을 배웠다.

그렇게 일년이 지난 뒤 사미계를 받았다. 무릎을 꿇고 참회진언을 외면서 연비를 할 때 뜻 모를 울음이 한정 없이 흘러나왔다. 계 설하기를 마치고 난 스님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제 너의 이름이 법원(法圓)이니 이 쪽에도 저 쪽에도 두루 통하는 삶을 살도록 해라." 그날은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저녁에 자리에 누워 생각해 보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다 말고 스님을 찾아가서 여쭸다. 은사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앞으로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지체 말고 묻도록 해라." 하면서 다른 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둥글게 사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법명이고 '송월'은 법호다.

송월 스님은 그로부터 누가 뭐라고 하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습관이 생겼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건강을 되찾고 스승님의 은혜를 받아 부처님법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보니 그동안

어디서나 어떤 일이든
포교위해서 발 벗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그래서 다시는 자신과 같이 뭘 모르고 헤매는 이들이 없도록 하기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쇄해서 일반인들에게 법보시를 많이 하기로 서원을 세웠다.

처음에는 불교서적 중에서 가벼운 분량의 쉬운 책을 돈이 되는대로 구해서 군산시내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런데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 모르는 사람들은 불교책을 잘 받으려 하지 않았고, 심한 경우는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처박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어린 시절에 불교 기초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자라서도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이법회와 불교교양대학을 시작했다.

그렇게 성흥사를 군산시내 제일가는 전법도량으로 가꿔가고 있다. 또 새로운 포교방편으로 태극권을 배워서 사범의 자격을 가지고 적극 지도하고 있다. 사찰에서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나 군부대, 교도소 가릴 것 없이 포교에 힘쓰고 있다. 스님도 나처럼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기에 서로 잘 통한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전화라도 걸어서 칭찬할라치면 그는 말한다.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이 뭐 있간디? 그냥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것 방향 잡아서 일러주고 같이 하는 것 뿐이제." 전라북도 사투리와 미소띤 모습이 참으로 잘 어울리는 스님이 바로 송월 스님이다.

■ 관악산 자운암 상임법사

마하몰 수험생합격기원용품 특별지상기획전

마하몰 eTrust eTrust 6년연속 인증기념 특별감사이벤트
이벤트 하나, 모든 구매고객에게 열반의 미소 CD를 드립니다.
이벤트 둘, 1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불보살캐릭터액자를 증정합니다.

지혜의 카드, 합격기원 붓다순금카드 이땅의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지혜의 카드, 합격기원 붓다순금카드!!



붓다! 붙다..?? 아하 붓다의 지혜로 시험에 붙는다구요..^^
이젠 지갑 속에 넣어 다니세요~! 합격의 행운이 함께 합니다.



▮ 합격기원 붓다순금카드 : 15,000원
· 재 질 : FINE GOLD 99.9%
· 색 상 : 검정, 녹색

▮ 합격기원 붓다순금카드세트 : 19,800원
순금카드(골드파우더)+열쇠고리+휴대폰걸이
· 중량금(1돈)카드 : 120,000원
· 붓다열쇠고리 : 5,000원
· 붓다핸드폰걸이 : 3,000원

지혜의 반지, 합격기원 반야심경 반지



▮ 반야심경 金반지 - 반야심경 전문270자가 각인된 金반지
· 14K : 245,000원 · 14K : 150,000원
· 18K : 352,000원 [외부(外部)] · 18K : 198,000원 [내부(內部)]

▮ 반야심경 銀반지 38,500원
· 은 92.5% 로듐도금
· 크기 : 폭 약 8mm

▮ 반야심경 목걸이(원형,사각) 48,000원
· 가로 18mm, 세로 33mm · 가로 21mm, 세로 32mm
· 재질 : Silver 92.5% · 펜던트와 체인 포함(은)

▮ 반야심경 팬던트 Gold
· 14K : 245,000원 ※체인 별도
· 18K : 352,000원



▮ 수험생을 위한 기능성음반
15,000원 → 13,500원
· 실 력 발 휘 -결정적인 순간에 120% 능력 발휘, 시험도 업무도 기쁘게 패스!
· 집중력향상 -잠재 능력을 자극하는 서브리미널 메시지
· 플러스사고 -마인드 컨트롤 효과로 자신감과 활력이 샘솟는다.



합장한 그 손이 내 손이라면 그 고통 참아내며 기원하리...
▮ 소원성취 합장초 : 17,000원
샘플형(소3개,대2개)
· 소(小)20개입 : 60,000원
· 대(大)20개입 : 100,000원



▮ 갓바위 소원성취 메달
49,500원 - 은(99.9%)이상
· 직경 : 40.0±0.1mm
· 표면처리 : 무광 프루프
· 제품구성 : 메달, 플라스틱 캡슐, 고급케이스





▮ 연실합장주 6,000원
▮ 연꽃핸드폰걸이 6,000원
▮ 연실열쇠고리 12,000원
▮ 연꽃목걸이(고급) 15,000원

살아있는 씨앗이므로 사용하시다가 실증나면 언제든지 연실의 아랫부분을 3mm정도 잘라 물에 담궈두면 발아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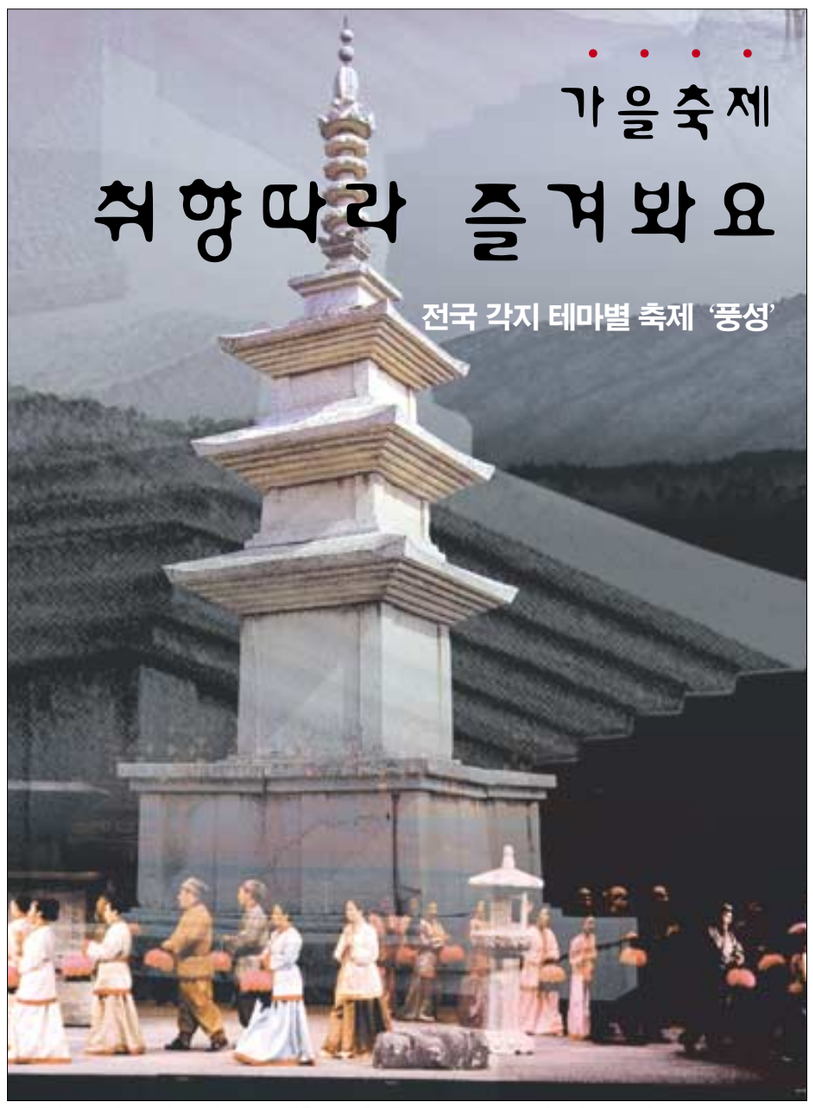
· 재질 : 연실(연꽃씨앗) · 사이즈 : 18mm× 13mm
(천연 연꽃씨앗이므로 크기가 일정하지 않음)
살아있는 연꽃씨앗을 이용해 핸드메인탱한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마하몰에서 알뜰 쇼핑하세요..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서 삼성,신한,LG카드로 5만원이상 결제시 무이자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 삼성 : 3개월 무이자할부(2004. 12. 31까지) ● 신한카드 : 2~3개월 무이자할부(2004. 12. 31까지) ● LG카드 : 3개월 무이자할부(2004.12. 31 까지)
※ 마하몰이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동아일보사, 한국경제신문사, 전자신문사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하는"eTrust 인증제도"인증 심사결과, 인증업체(우수전문몰 부분)로 6년 연속선정되었습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문전화
Mahamall.co.kr 02-732-1520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가을이 익어간다. 단풍이 국토 발끝자락까지 발갛게 물들이며 가을임을 온 세상에 선포했다. 이 가을 대구의 오페라 축제에서부터 서울의 빛과 코스모스꽃 축제, 전주의 김장축제, 군산 · 서산 철새축제, 파주 장단콩 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전국에서 열려 여행객들의 마음을 유혹한다.



석가탑에 얽힌 아사달 아사녀의 사랑을 그린 창작 오페라 '무영탑'이 11월 12 · 13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된다.

 #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11월 12 · 13일 양일간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는 석가탑(일명 무영탑)에 얽힌 아사달 아사녀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 창작 오페라 '무영탑'이 공연된다. 2000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당시 불국사 야외특설무대에서 초연을 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무영탑이 이번에는 실내 무대에 맞게 수정 보완돼 무대에 오른다.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할 '무영탑'은 출연진만 해도 200여명이 넘는 대작. 불국사 대웅전과 석가탑이 세워진 무대에서 석가탑 탑돌이가 재현되는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무영탑'의 장엄한 무대서 받은 감동이 가시기 전에 대구오페라하우스 야외광장과 대구시내 주요공원에 마련된 오페라스토리하우스, 오페라 인 시네마, 오페라 카페, 백스테이지 투어 등도 즐겨보자. 무대 위 화려한 공연의 뒷모습은 물론 영화 속 오페라 작품들과 오페라 공연실황 중계 등을 만끽할 수 있다. (053)6666-111

 # 서울 빛과 코스모스꽃 축제 태릉 이스턴 캐슬에서 11월 14일까지 2004 빛과 코스모스꽃 축제가 열린다. 국화토피어리 · 코스모스 · 닥종이 전시장, 곤충의 세계 체험관을 비롯해, 멜로디 분수쇼, 러시아 노취댄스 등의 행사도 마련됐다. 이 가운데 한국 전통등 전시장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나무나 금속 뼈대를 만들고 한지를 배접하는 전통등 기법으로 제작한 호랑이 · 해태 · 비천주악상 · 잉어 · 학등이 전시장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02)971-0741

 # 전주 김장축제 맛의 고장 전주에서는 11월 20~28일 전주한옥마을에서 2004 전주한옥김장축제가 열린다. 김장담그기 체험의 시간에는 김치 · 김장 · 우리집김장 · 한방보양김치 담그기 등이 진행된다. 특히 우리집 김장담그기에서는 고구마 감자 구워먹기, 김장김치식사가 곁들여진다. 불우시설이나 이웃에 사랑의 김장나누기참여와 가까운 이들에게 사랑의 김장김치 보내기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해 사전 예약해야만 김장담그기 체험에 동참할 수 있다. 이밖에 소년소녀가장 김장체험, 주한외교관 및 주한 외국인 최고경영자 김장체험 등의 이벤트도 마련된다. (063)281-2148

 # 군산 · 서산 철새축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금강호 철새 조망대 주변에서 '2004 세계 철새 관광 페스티벌'이 열린다. 군산시는 올해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20여 개국 조류학자들을 초청한 학술대회와 희귀조류 박제품 전시, 철새 탐조 투어와 체험학습 등을 마련했다. 금강호 인근 십자들녘에 자리한 철새 생태마을은 가족단위 여행에 적합한 코스이다. (063)450-6275

이에 앞서 서산 천수만에서는 11월 30일까지 천수만 철새기행전이 벌어진다. 천수만 생태관이 개관돼 철새주제관 · 세계의 새 · 영상관 · 사진관 등이 운영된다. 천수만 철새를 주제로 철새탐조기행과 시화전도 볼거리. 솟대 · 목각인형 만들기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041)669-7744

 # 파주 장단콩 축제 올해로 7번째를 맞는 파주 장단콩축제가 11월 19~21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민통선지역 특산물인 장단콩과 인삼 · 쌀로 개발한 각종 요리 70여가지가 선보인다. 장단콩의 유래와 재배과정이 알기 쉽게 전시되고 꼬마메주 만들기, 전통두부 만들기, 도리깨 콩타작, 콩튀기, 나도 지게꾼, 콩알 새총, 장단콩 연날리기, 철새관찰 체험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16가지 체험 놀이마당이 마련돼 있다. 행사 도중 통일촌 · 도라산전망대 · 제3땅굴 · 도라산역을 잇는 안보 체험관광도 빼놓을 수 없는 코스. (031)940-4812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극장가



오픈 레인지 / 드라마 / 135분
개봉예정일:11월 12일
감독:케빈 코스트너
출연:케빈 코스트너, 로버트 듀발 등
등급:15세 이상

찰리 웨이트(케빈 코스트너)와 보스 스피어맨(로버트 듀발)는 소 떼를 방목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작은 마을인 하몬빌의 타락한 보안관(제임스 루소 분)와 농장주(마이클 갬본 분)는 폭력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려 한다. 평온하고 자유롭던 자연의 생활은 점점 사라져가고 보스와 찰리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숙명의 대결을 펼치는데….



영원과 하루 / 드라마 / 132분
개봉예정일:11월 12일
감독:테오 앙겔로폴로스
출연:차찌 안토니오, 이자벨 르노 등
등급:연소자 관람가

마지막 생의 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은 알렉산더. 우연히 짐을 정리하다가 30년 전, 아내 안나가 쓴 편지를 찾게 되면서 그는 과거와 현실, 기억과 환상이 교차하는 신비스러운 여행을 떠난다. 여행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온 알렉산더는 어둠 속에서 베란다 문을 여는데….



쉘 위 댄스? / 코미디 / 106분
개봉예정일:11월 12일
감독:피터첼섬
출연:리차드 기어, 제니퍼 로페즈, 수잔서 랜든 등
등급:15세 이상

중년의 권태에 젖어든 존 클라크(리처드 기어 분)는 어느 날 퇴근길에서 댄스 교습소의 간판을 발견한다. 새로운 삶을 꿈꾸는 그는 가족 모르게 댄스를 배운다. 존의 불륜을 의심했던 비벌리(수잔 서랜든 분)는 한시름 놓는다. 드디어 댄스경연대회! 아내와 딸이 경연장에 온 것을 안 존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데….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8일 08:05 특집 다큐 '아라리로 일군…'
9일 19:00 박진선의 트롯시대
10일 22:05 영화음악실
11일 06:20 '일터에서 만납시다'
13일 18:15 BBS 집중토론
14일 08:10 사찰순례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8일 20:30 체험! 붓다의 수행법 위빠사나
9일 17:30 특선 다큐멘터리 '성철큰스님'
10일 09:20 지운 스님의 대승기신론
11일 12:00 산중대담 선지식을 찾아서
12일 21:50 명상음악산책
13일 16:40 부처님경전이야기
14일 09:40 왜 지금 붓다와 노자인가?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김병조의 다시 듣고 싶은 노래(11월 12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즐거운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구수한 입담과 기지로 다시 들을 수 있다. 청취자가 '배추머리 노래방' 코너에 참여하는 특별한 기회도 있다.

■**불교텔레비전**: 명상음악산책(11월 12일 저녁 9:50~10:10) 명상음악을 통해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인도와 티베트, 유럽의 명상음악과 뉴에이지 음악을 통해 진정한 내안의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전시

신비로운 티베트 · 인도 사진전


인도의 대표적인 건축 '타지마할' 사진.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열린다.

대구 '갤러리 두류'는 11월 19일까지 대구 용연사 지운 스님의 사진을 선보이는 전시회 '티베트, 인도 신비로운 자연의 손길'을 개최한다.

불교문화연구회 주최로 열리는 이 전시회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지운 스님이 2002년부터 티베트와 인도, 네팔 등지를 순례하며 찍은 사진 백여 점.

지운 스님은 "내년에는 몽골과 중국 등지의 사진을 중심으로 전시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53)650-0221 배지선 기자

아름다운 찻자리 그림전


차을 즐기는 다인들을 그린 김창배 화백의 작품.

한 잔의 차를 마시는 마음을 화폭 속에 옮겨 놓은 동양화를 선보이는 전시회가 11월 13~27일 서울 인사동 담원갤러리에서 열린다.

김창배 화백이 '차&예술센터' 개관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전시회는 차와 차를 즐기는 다인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 30점을 감상할 수 있다. 조선 시대 대표적 화가인 단원 김홍도의 후손인 김창배 화백은 중국 북종화의 대가 금추 이남호 선생의 수제자다. (02)736-7445 강유신 기자

펜화작가 김영택展 울산 현대갤러리

펜화작가 김영택 화백의 펜화전이 11월 16~21일 울산 현대백화점 내 현대갤러리에서 열린다. 김 화백은 한국 불교문화재 및 건축문화재와 자연을 펜으로 세밀하게 표현해, '펜화'라는 생소한 장르를 개척했다.

김 화백은 독학으로 펜화를 시작해, 10여 년간 전국을 돌며 양산 통도사 법당 등 우리 전통 건축물들을 화폭에 담아오고 있다. 울산 전시회가 끝나면 부산, 광주 등에서도 펜화전을 연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052)228-1020


김영택 作 '청송 방호정' 2004년 4월.

클릭! 겨울용 난방 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원적외선 열풍히터

겨울철 따뜻함과 건강을 함께 보장하는 난방기. 원적외선 열풍히터는 몸에 이로운 원적외선을 방출해, 실내 공기 순환 문제를 보완한 상품이다. 한번 연료를 충전하면 31~37시간 사용 가능. 리모콘으로 화력의 강약을 조절하고 꺼짐 예약 등도 가능하다. 22평급(12만TSI) 가격은 75만원.(02)732-1520



공연

현대무용과 만난 판소리

판소리가 현대무용의 배경 음악으로 쓰인다면 어떨까?

현대무용단 사포(감독 김화숙)은 11월 13일 오후 5시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지울 수 없어라-소야곡'을 선보인다. 판소리 춘향가 중 '쑥대머리'와 심청가 중 '부녀상봉, 심봉사 눈 뜨는 대목'과 현대무용이 조화를 이루어 사랑이 메말라가는 현대인의 삶을 보여준다.

이번 공연은 새로운 작품, 연출방법, 연출작가 등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063)850-6213

게시판

공부합시다

배려깊은 아이 강좌 불교상담개발원은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불광사 교육관에서 이시형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교수를 초청, '배려 깊은 아이와 조부모'를 주제로 교양강좌를 연다.(02)737-8803

전문상담가 심화교육 한국여성불교연합회는 11월 16, 18, 20, 22일 오후 10시 서울 인사동 연꽃 교육장(상 갤러리 4층)에서 열리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전문상담가 심화교육을 실시한다.(02)738-5586

몸 깨우기 교육 부산생명의 전화는 무료치료기법 '나를 말해주는 몸 깨우기' 집중 교육을 11월 19~20일 실시한다. (051)804-0896

함께 해요

노인복지 · 보조원 모집 궁동노인주간보호센터는 발마사지 요가 단전호흡 수지침 치료레크리에이션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외출동행 목욕보조 차량운행보조 배식보조 등 심신허약 및 신체기능장애 어르신과 함께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17)293-3371

단기보호노인환자 모집 안양노인복지센터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치매, 뇌졸중, 노환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보호대상자를 모집한다.(031)455-0551

울산 불교합창제 울산불교신도회는 11월 10일 오후 6시 울산 KBS홀에서 제8회 불교합창제를 개최한다.(052)271-1310

무료수지침 · 물리치료 화명복지관은 11월 12일, 19일, 26일 수지침 진료를 실시하는 한편,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물리치료 무료진료를 실시한다.051)338-2233

간병 도우미 모집 서울 광진노인복지관은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단기보호센터에서 활동할 간병 도우미를 모집한다.(02)466-6242

장애인 도우미 모집 시흥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 내 프로그램 운영, 행정업무,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특별활동강사, 차량 봉사 등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031)431-9114

고암 이응노 회백 탄생 100주년 회고전 고암 이응노 화백(1904~1989)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일생을 회고하는 전시회가 내년 2월 13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에서 열린다. '다시 고암을 생각한다:고암 이응노 탄생 100주년 기념전'에는 그의 초기에서 말년까지의 대표작 150여점이 전시된다.(02)779-5310

청소년 문화 행사 대전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은 △11월 20일 제 6회 청소년 과거시험 △22일 대덕구 여성합창단 정기공연 △27일 한밭 청소년 가요제 △30일 고3 청소년 위안 콘서트 등 풍성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환경비누만들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환경비누 제작단 폐식용유 후원 모집. 일반 가정 식당 외식업체에서 사용하고 못쓰는 폐식용유가 대상이다. 또한 가릉빈가언어치료센터 이용자를 모집한다. 36개월~초등생 중 언어치료가 필요한 아동 대상. (051)628-6737

즐겁게 떠나요



마이산 탑사 옛 돌은 11월 13일 역고드름으로 유명한 은수사, 신비의 돌탑군으로 알려진 마이산 탑사, 가을 풍광이 아름다운 완주 송광사, 고산 곶감마을을 도는 토요여행을 준비했다. 참가비는 일반 38,000원, 정회원 35,000원. (02)953-1313

보성차밭 고속철 여행 영투어는 11월 12일 1박2일로 보성차밭의 여름향기 촬영지와 순천 낙안읍성, 해금강과 외도 관광, 선암사 단풍 구경 코스를 도는 KTX 고속열차 여행 상품을 선보인다. 참가비는 일반 175,000원, 회원 및 중 · 고생 173,000원. (02)736-9025

사무실 옮겨요

좋은 벗 풍경소리 사무실이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빌딩 405호로 이전했다. (02)723-9836

20면 상식 퍼즐 정답

팔	공	산		열		
부		고	지	혈	증	
신			진		도	
중	지				가	마
	렁		가			이
	이	슬	람	교		동
		기		계	절	풍

신행수기

슬픈 얼굴의 약사여래불 〈상〉

임풍금 (광주시 광산구)

글을 쓸 수 있는 몸과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나는 그 행복 앞에서 끊임없는 감사를 드리고 있다.

생각해 보면 나의 30년 지난 세월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참담했었다. 결혼과 동시에 찾아온 갖가지 불행들은 내 힘으로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 좌절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했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해 막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진실한 기도를 한다. 그 덕에 행운의 여신은 내가 가장 불행했을 때 미소를 머금은 손짓을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됐으며, 행복한 순간만큼은 정말 진실한 기도를 잊고 산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다.

둘째 녀석이 태어난지 겨우 세 해를 넘겼을 때 예고없이 찾아온 불행. 아들의 한쪽 다리가 이유없이 성장하지 않았고 마비까지 이어졌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양쪽 다리의 차이를 보는 내가 가지고 있던 건 빈곤과 무지와 좌절이 전부였다. 치료하는 동안 밑바닥까지 거덜난 내 삶. 나는 윗목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절실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곤 했다.

"부처님! 이렇게 간절히 두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내 자식놈의 다리만 완쾌하게 해 주신다면 제 목숨이 다한다 하더라도 성내지 않고 욕심내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나의 양심과 또 부처님과의 약속이니 틀림없이 지킬 겁니다."

그 후 기적아닌 기적을 경험했다. 의학적으로 도저히 치료할 수 없었던 다리였지만, 그 기도가 계속된 지 일년이 못돼 이상하게 치료에 진전이 왔다. 더 이상 바닥날 것이 없었던 처절하리만치 힘들었던 내 삶에 찾아온 한줄기 빛. 그 후 내 양심에 맡긴 부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생활습관이 내 몸에 배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의 고민을 털고 기뻐하기가 무섭게 또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순식간에 찾아온 뜨거운 불똥이었고 그것은 예외없이 내 가슴을 태우고 말았다.

둘째 녀석이 정기 휴가를 나온 다음 날, 병원 응급실로부터 아들 녀석이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나의 머릿속은 순간 텅 비어버렸다. 과거사가 떠올라 아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었다. 오토바이 사고는 중태 아니면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위에선 걱정이 태산이었다.

온갖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조여왔다. 지난날 다리가 마비된 채 고통당하던 기억이 생생한데 군복무중인 아들이 또 이런 일을 당하다니.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또 한번의 절실하고도 피를 말리는 간절한 기도로 부처님을 찾았다.

"부처님!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만큼 살았으니 목숨까지 내던져서라도 아들의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던지겠으니 이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나무 관세음 보살!"

응급실에 들어서니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가위로 옷을 자르고 마취도 없이 아들의 몸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들의 손목엔 차고 있던 합장주가 피부 깊숙이 박혀 고통스럽게 보였다. 아 어찌 이런일이, 어찌 이런 큰 벌이 내게…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몸 기꺼히 내던지겠습니다. 혹독한 대가는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림 · 김홍인

내 처절한 기도에 아들은 기적처럼 치유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아들의 눈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생명도 붙어있었고 중태도 아니었다. 엄마의 당부를 듣지 않고 오토바이를 탔던 죄책감에 아들은 미안함을 가득 품은 눈을 말똥거리며 고통의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둘째 녀석에게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은 그렇게 또 나를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부처님께 그렇게 받은 자비로 인해 나의 불심은 더욱더 돈독해졌다.

저 멀리 티베트에서 오신 쵸펠 스님은 가슴에 와닿는 법문을 해 주셨다. 모든 종교를 가진 신앙인들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 중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며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지 묻는 나에게 '참으로 귀한 질문'이라 하면서 "나를 챙기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나를 철저히 버려야 하고 내 주위 모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다. 과연 나는 부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지난 2월,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고혈압으로 쓰러지셨다. 119차를 타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종합 병원으로 실려 가셨다. 참으로 쉼이 없는 고통, 좌절, 갈등, 이 세상에 있는 불행의 단어들이 모두 나에게 주어진 순간의 연속이었다. 어머님의 불행은 그 책임자인 곧 나의 불행이었다. 중풍은 적어도 사망 아니면 불구자가 된다는 상식은 나에게도 있었다. (계속)

신행수기 잘 쓰려면 ④ 구성

뼈대 설계가 잘돼야 감동적인 글 가능

●구성은 왜 필요한가

일단 그 글의 주제가 정해지면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작품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이 필요하다. 주제를 설정하고 소재를 선정했으면 그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글의 내용을 얽어 짜야 한다는 것. 이 얽어 '짜기'를 구성이라고 한다.

구성은 골격에 비유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구성은 바로 글의 뼈대가 되기 때문이다. 가령 2층 양옥집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거나 단층 기와집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그 의도가 주제라 가정한다면, 구성은 막연한 그 의도를 설계함으로써 구체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성의 종류

구성에는 크게 연역적 구성과 귀납적 구성으로 나눈다. 주제를 앞세우고 그것을 풀어 나가는 경우는 연역적 구성이다. 귀납적 구성은 특수한 사례나 예시를 앞세우고 글의 끝부분에 주제를 제시(암시)하는 구성을 말한다. 연역적 구성은 주제를 서두에 제시하게 되므로 독자의 이해를 돕는 한편, 귀납적 구성은 끝부분에 가서야 주제를 암시하게 되므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아우트라인의 작성

아우트라인의 작성을 위해 한 예를 들어 보겠다.

술은 부분적으로 효용이 있긴 하나 대체로 우리에게 해롭다는 취지의 글을 쓴다고 가정해 보자. 먼저 술의 장점을 열거한다. 기분전환과 혈액순환 촉진 등.

그럼에도 술이 갖는 단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열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질병과의 연쇄반응, 인격파탄,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 결미에서 술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실천 방안을 제시하게 되면 한 편의 글이 무난하게 완성된다.

맹난자(수필가, '에세이문학' 발행인)

전문은 www.buddhanews.com에서 보세요

릴레이 수행일기 〈상〉



김종관

한국소비자보호원 과장

부모님을 따라 절에 가서 삼배만 하는 정도였던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외가 근처에 있는 사찰에서 부처님(지금 생각해 보니 그 부처님은 관세음보살님이었던 듯하다)을 모시기 위해 좌복을 옮긴 적이 있다. 내가 다섯 살 남짓 되었을 때 사찰에서 아버지와 손잡고 찍은 사진이 있긴 하지만, 중3때가 부처님과의 첫 인연인 듯 하다.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에 올라와 대학교, 대학원까지 하숙과 자취로 지내는 동안 부모님의 보살핌이 없었으면 어찌 공부를 마칠 수 있었으리. 대학원에 진학하여 조계사청년회에서 신행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절하는 것 외에는 불교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신 어머니가 도림 스님과의 인연으로 〈법화경〉 한권을 주시며 사경을 해보라고 권하셨다.

〈천수경〉과 〈반야심경〉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가 새벽마다 늘 테이프를 틀어놓아 기상음악으로 삼아 일어나곤 하여 쉽사리 외울 수

어머니 권유로 '법화경' 사경 매진
교리 공부하며 직장에 불자회 창립

있었다. 본격적으로 불경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어머님의 〈법화경〉 사경 권유 이후의 일이다. 〈법화경〉의 드라마틱한 전개와 '법화칠유'의 내용은 '나의 법은 큰 바다와 같다'고 설파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푹 빠지게 하기에 충분했다.

사경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적이 있었다. 자취방에서 저녁에 물을 끓인답시고 가스렌지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 3~4시가 되어 깼더니, 부엌이 마치 불이 난 것처럼 발갛게 달아 오른 것이었다. 부엌문을 열고 보니 주전자 안의 물이 다 졸아 버리고 가스렌지 위에서 주전자가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이 아닌가.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다 타버린 주전자를 보며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적이 있다.

사경 수행을 통해 많은 경전을 접하면서 불교방송에서 나오는 경전공부도 자주 듣게 되고, 청년회 법우들과 함께 목탁도 배웠다. 또 교리공부를 하기도 하고, 〈금강경〉은 아내와 함께 무진장 스님께 3개월 정도 강의를 들으며 이해의 폭을 넓혀 갔다.

〈법화경〉의 가르침처럼 거룩한 스승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래의 사자가 되고 싶다는 서원을 세워 불교대학에 등록하여 포교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보니, 직장에서 같이 신행하는 동료들과 함께 직장불자회를 창립할 수 있었다. 2002년에 한국소비자보호원법우회를 신동구 초대회장님, 노영화 현 회장님, 장학민 부회장님 등과 함께 창립하여 매월 1회의 정기법회와 봄 · 가을 사찰순례 등을 통해 지난 3년간 '수행이 포교요, 포교가 수행'임을 실천하고 있다.

초심자들이 대부분인 직장동료 불자를 위해 불교방송을 시간 날 때마다 듣고, 진리의 창고라 할 수 있는 '불서'를 수시로 구입하여 읽으며 청년회와 사무실 도반들에게 소개하며 함께 교리공부를 해 오고 있다. 책을 너무 많이 산다고 아내는 항상 내게 불만이긴 하지만.

한참 경전공부에 재미 들이면서 문득 나의 생각들을 담고,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향수해녀, 바람직한 불교의례 등을 생각하면서 책자로 담기 시작한 게 '반야누리'란 이름의 책이다. 지혜가 가득한 세계, 진리의 세계를 꿈꾸며 도반들에게 전해 주기 위해 만든 게 다섯 번째 책자까지 나왔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원이 하나 생겼다면, '자유의지'란 주제로 십년 내에 책을 한권 쓰는 것이다. 정말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갈 작정이다. (계속)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구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보름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자수 대진 합장

아토피·비염·천식

완치 성공

유아기의 경우 안면과 팔 다리의 바깥쪽에 습진을 보이며, 성인의 경우 팔다리가 접히는 부위에 피부가 거칠어지는 태선화된 습진을 보입니다.
가려움증을 쉽게 느끼며,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해지고, 땀 흡수나 통풍이 잘되지 않는 모직, 합성섬유, 실크 등의 직물로 된 내복은 환자에게 가려움증을 유발시키고, 털로 만든 인형이나 털 목도리 등도 쉽게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온도변화가 가려움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갑자기 더운 방에 들어가거나, 목욕을 하게 되면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운동본부 | 지정한의원 마고

진 료
● 한의사 홍성인 원장님
● 한의사 오달석 원장님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0-29 마고한의원

문 의 02)587-0001

※ 아토피 · 비염 · 천식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차' 지역경제의 '효자'

익산시 임해사터 차밭 복원, 관광지화
24만여 그루 심어 생산 판매·상품 개발
무안군, 초의 선사 다도순례 코스 추진
역사관 · 교육장 활용 소득증대 기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차문화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전북 익산시는 국내 차밭으로는 최북단(북위 36도3분)에 위치한 웅포면 함라산 임해사(臨海寺) 터 차밭을 복원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할 예정이다. 임해사 터 차밭은 차나무 자생 한계로 알려진 전북 김제시 금산사 일대(북위 35도13분) 보다 30여㎞ 북쪽에 위치해, 우리나라 차나무 분포지역으로는 최북단이다.

시는 차밭 복원을 위해 올해 6천만 원을 들여 5천 6백여 평에 달하는 묘목장을 만들었으며, 11월 중으로 24만 그루의 차나무 묘목을 파종한다. 또한 국가사적지인 입점리 고분군과 연계한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한편, 소량이지만 고급차를 직접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 익산시 농업기술진흥청은 "차나무 재배를 통해 파생되는 상품을 관광과 연계시킬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해사 터 차밭과 관련해 다양한 관광 상품과 차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해사 터 차밭은 임해사가 소실된 조선 초기 이후에 야생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경북대 박용구 교수는 "임해사는 익산 함라산 숭림사의 말사로, 1486년 발간된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그 후에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다.

임해사 터 차밭에는 현재 3천 3백여 평에 1만 그루의 1~30년생 차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이곳의 차나무가 겨울에 추위를 이기고 자랄 수 있는 것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찬바람을 막아 온도 변화가 적고 다습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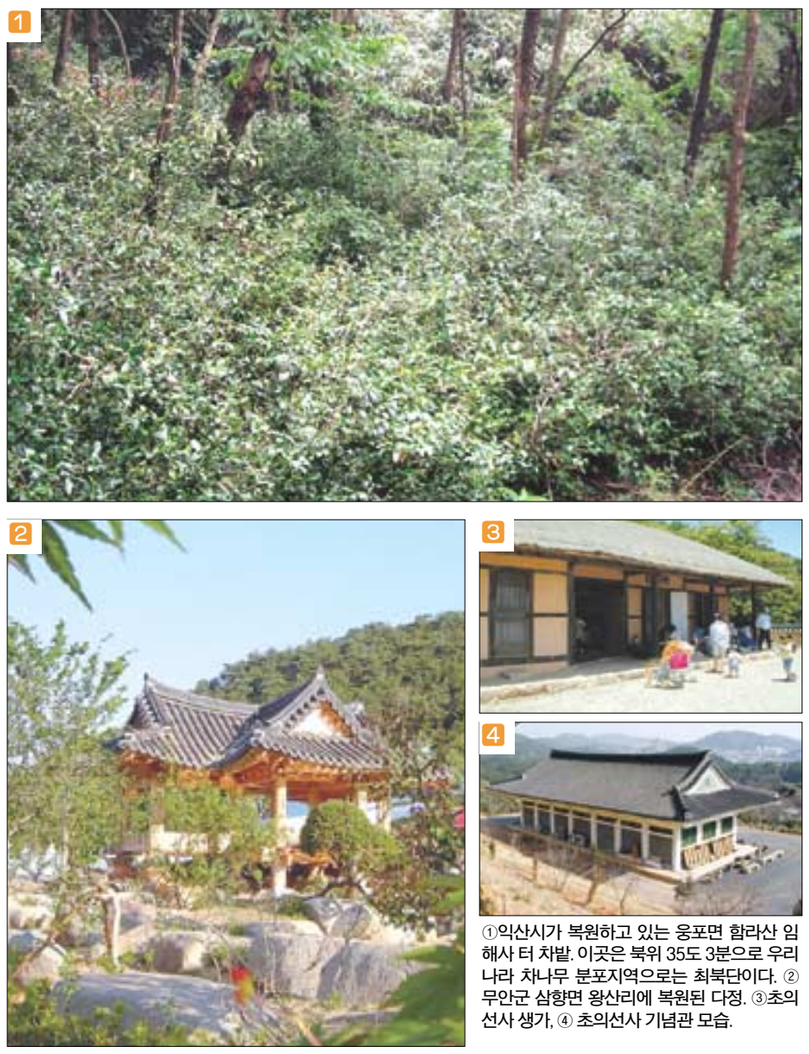
한편 전남 무안군은 다성(茶聖) 초의 선사의 탄생지인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일대를 '다도(茶道) 성지'로 재단장할 예정이다.

1997년부터 40억원을 들여 초의 선사의 생가를 복원하고 차문화관, 기념전시관을 건립한 무안군은 '1단계 초의선사 현창사업'이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제2단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앞으로 이곳에 35억원을 투입, 차(茶) 교육관, 역사관, 다정(茶亭) 등을 지어 다인들의 순례코스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11월 1일 밝혔다.

내년 4월 경 완공될 '차 교육관'은 81평 규모로, 다도 교육과 초의선사 사상 교육장, 군민들의 차 관련 행사장으로 활용된다. 또한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 현대 등 5개관으로 구성될 각 50평 크기의 역사관은 내년에 우선 '조선관'을 짓고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건립해 나갈 예정이다. 차 역사관 등과 인접한 봉수산에 5평 크기의 다정 5개를 건립해 순례코스로 가꾸어 나가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초의 선사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 차 단지를 조성하고 초의선사 탄생문화제(음력 4월 5일)를 전후해 초의 브랜드 차 제품, 관광 상품을 개발해 주민 소득과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①익산시가 복원하고 있는 웅포면 함라산 임해사 터 차밭. 이곳은 북위 35도 3분으로 우리나라 차나무 분포지역으로는 최북단이다. ②무안군 삼향면 왕산리에 복원된 다정. ③초의선사 생가, ④ 초의선사 기념관 모습.

"차, 알츠하이머병 방지에 효과"

차를 자주 마실 경우 기억력 증진과 알츠하이머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뉴캐슬대학 연구진들은 <식물요법연구>지에 발표한 글에서 차에 들어있는 성분이 두뇌의 일부 효소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연구 결과가 알츠하이머병 치료법 개발에도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녹차와 홍차는 모두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와 부티릴콜린에스테라제 효소의 작용을 억제했으며, 특히 녹차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뇌에서 발견되는 단백질 잔류물 생산에 관여하는 베타세크레타제의 작용까지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차인연합회 '청소년 차문화대전'

(사)한국차인연합회(회장 박권흠)은 11월 13일 오후 1시 서울시립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제 12회 대한민국 청소년 차문화 대전'을 개최한다. 청소년의 차생활과 예절문화 보급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에는 한국차인연합회 전국단위차회장의 추천을 받아 예선을 거친 청소년들이 참가한다. (02)747-0474

명원문화재단 '국제청소년 차문화대전'



지난해 11월 열린 '제4회 국제 청소년 차문화대전'에 참가한 학생들이 다례 시연을 하는 모습.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은 11월 14일 오후 1시부터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제5회 국제 청소년 차문화대전'을 개최한다. 우리 전통차문화를 연구 발전시키고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유치부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및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02)742-7190



불교 전파·고구려 융성, 茶 전래 한 몫

5. 삼국시대 ③

이 시기에는 차가 전래된 또 하나의 계기가 이루어진다. 곧 불교의 전래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파될 때부터 차를 불전에 올리는 것이 의식화되고, 그것은 우리나라에 전래될 때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동진의 임금 부견이 승려 순도를 시켜 고구려에 불전(佛典)을 보낸 것은 그 전에 이미 불교가 들어와 있었음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국교가 빈번해지면서 교역이 많이 이루어졌으니 많은 물품들이 거래되었고 당연히 음료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특히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고구려는 중국의 문물이 많이 수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때를 우리 차가 뿌리내린 시기로 본다.

① 동진 왕의 사자로 순도 스님이 고구려에 불교를 전했고 다음 해에 아도 스님이 백제에 불교를 전했으니, 이 때 차도 함께 전래되었다고 본다.

② 광개토대왕 때이므로 문화의 수입이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을 것이므로 향이나 찻그릇도 많이 들어왔다.

③ 왕이 절을 참배하고 불공을 드린다는 것은 국가적 의례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분향, 헌다가 따랐을 것이다.

④ 하우개 동진사람. <거신기>에서 그는 평소 차를 좋아했는데 죽어서 귀신이 되어 집에 와서 차를 마셨다고 했다. 이는 제례 때 차를 올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호거사 <식기(食忌)>에서 차를 오래 마시면 날개가 돋친다고 했다.

단도개 동진의 스님이었다. 항상 조악한 옷과 밥상을 대하며 차를 마시고 잠을 쫓고 백세를 넘겼다. <예술전(藝術傳)>

<사왕기> 동진의 여림이 찬한 책으로 혜제(사마충)가 난리를 피했다가 낙양으로 돌아오니 환관이 차를 올렸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⑤ <광능기로전>에 차 파는 늙은 할머니의 기이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⑥ 도잠(陶潛, 365~427) 동진인다. <속수신기>에 진정(秦精)이 차 따러 갔다가 모선(毛仙)을 만난 얘기를 썼다.

⑦ 유의경(403~444) 남조의 왕족. 그가 쓴 <세기신어>에 차에 관한 얘기가 여럿 전한다.

⑧ 도홍경(456~536) 남조의 도교사상가. <본초경집론> <명의별록>을 쓰고 "차를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체형이 달라진다"고 했다.

⑨ 왕숙(461~501) 북위사람. 남제에서 북으로 망명하여 차를 마셔보고 '낙노(酪奴)'라는 말을 했다. <명장가람기>

기원전 시대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서양기타
삼국시대	372 고구려 불교전래 ① 375 사찰 건립(초문사, 이불란사) 384 백제 불교전래 (한산에 불찰건립) 391 고구려에 향과 다기(茶器) ② 393 평양에 구사 걸비 @ 사찰건립 확산 451 송(宋)에 조공(고구려, 백제) 479 도리사(桃李寺) 창건 488 왕이 흥륜사에 헌공 ③		
남북조시대		@ 하우개, 호거사, 단도개, 사왕기 ④ 350 <광능기로전(廣陵耆老傳)> ⑤ 365 도잠 ⑥ @ 임육장이 다명(茶茗)을 물었다. 403 유의경 ⑦ 420 송의 건국 439 남북조의 시작 454 <남월지>에 과라(過羅, 차)가 나옴 456 도홍경 ⑧ 464 왕숙 ⑨	
			392 로마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정함 476 서로마 멸망

차생활 전문지 월간『다도』



차(茶)를 좋아하신다구요?

차가 궁금하시다구요? 차에 가까이 계시다구요? 그럼 매달, 월간『다도(茶道)』 한 권 쯤은 보셔야지요. 차생활 전문지 월간『다도』에는 차 한 잔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차의 역사, 세계의 차문화, 다도구의 미학, 차생활 속의 감동 에세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도를 접하는 순간, 일상은 한층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권당 가격 6,500원. 1년 정기구독 65,000원. 문의 : 02-722-7777

기공안내 氣功案內

♠도(道)를 닦거나 기공수련의 기초 관문인 **경락소주천(經絡小周天)** 운행을 기공사가 직접 **1개월 이내에 완성**시켜 드립니다.

♠**11~13세 미만** 아이들에게 대뇌를 개발하고 **인체투시(천안통, 천이통)**기능을 1주일에 완성시켜 드립니다. (기억력, 창의력 증가)

♠**6세 미만 벙어리** 아이들을 말을 하게 하고 **16세 미만의 간질병** 아이들을 경기 뚝, 확실합니다.

♠**얼굴형 교정**(광대뼈 두드러지고, 넓은턱), 거칠은 피부, 검은피부를 부드럽고 예쁜 하얀 피부, 얼굴로 바꿔 드립니다.

♠**불임**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아기를 낳고 싶으신분) 해결해 드립니다.

♠**척추디스크, 심혈관 계통(혈액순환기 계통), 소화기 계통,** 난치병(폐장암, 위장암, 대장암, 당뇨, 뇌졸증, 관절염)등 중병 질환에 특수한 인체조절, 예방효과가 있는 **氣功 수련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말로, 책으로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성명쌍수(性命雙修) 수련법 진수**를 전수해 드립니다. **경락소주천**과 **대주천**을 완벽하게 운행할 수 있는(인연이 닿는 분은 3개월 이내) **기공사**(기공치료 의사)를 양성합니다.

무료 상담 환영

대불통령내단공(大佛通靈內丹功)修練院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오피스텔 1212호 (교대정문사거리)
TEL : 02)3471-7277
H · P : 016-299-4864 / 016-214-4864

부처님이 광명으로 나투시어 감로법비가 내리고 있는곳
동 해 사



감로법비의 신비스러움을 지금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법비기간 : 양력 10월 12일 ~ 11월 20일까지



세가지 소원중 한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는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감로법비도 맞으시고
기도로써 소원이루어 보세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동 해 사 주지 혜명 합장
033-672-2900

▶ 동해사에서 낙산사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 바닷가 방생지 5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그대로가 참선

지난번에 다섯 가지 마음의 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제일 첫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수행 자체가 바로 그 길을 들어서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까지 다섯 가지 목표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이 예불 모실 때도 항상 독송하고 계십니다만, 하면서도 그저 입으로만 염(念)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지나치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자기 마음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소신껏 개발시켜서 자기의 능력을 창조로까지 이끌고 가야만 자유인의 맛을 볼 수 있을 텐데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 더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마디뿐만 아닙니다. 항상 '관하라, 관하라' 해도 그 관하는 도리를 완전히 터득을 못해서 미흡하게 그저 놓았다 꺼냈다, 놓았다 꺼냈다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심부름을 시켜도 믿고 맡기는데 하물며 자기 집합소를 끌고 다니는 참자기를 못 믿어서 놓았다 꺼냈다 하면서 진짜 심부름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님네들도 더 한층 발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창조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그렇고, 살림하는 신도님들도 가만히 틀고 앉아서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그대로가 참선이니 참선 아닌 게 하나도 없다고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을 제대로 못해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의 네 가지 재료가 주어져 있고 그 재료가 충만한 데도 불구하고 재료를 끌어 쓰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열 마디, 백 마디 해줘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먼저 '계향'이니 부처님 법에 누(累)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사든 보살이든 또는 출가한 스님네들이든 자기 은사에 누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누가 되게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몸뚱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상대성이 생기고 모든 게 벌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내가 이 세상에 나온 탓이죠. 그러기에 내 탓으로 돌려야지 남의 탓으로 돌린다면 아니 되죠. 잘못된 것도 잘된 것도 다 내 탓으로 돌리고 일체를 내 탓으로 돌림으로써 남의 탓을 안하게 됩니다. 남을 원망 안하면 부질없는 미움도 안 생길 거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겠죠. 자기 있는 곳이 바로 도량입니다. 내 깊은 내면 마음속으로, 내 탓으로 돌린다면 부드러운 말이 저절로 나오고, 부드러운 행동이 저절로 나와서 화목을 도모하고, 의리를 도모하고 진짜 사랑을 베풀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못되는 것은 내 탓으로 돌리고 한생각에 마음을 잘 내는 것이 바로 계향 아닌 계향입니다.

정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세계에 내 자성 주인공을 세워 놓고 잘못되는 것은 잘되게끔 한생각 돌려서 놓고 믿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구정물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속에서 새 물도 나오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체가 다 말입니다. 그렇게 믿고 잘되는 것은 감사하게 놓고, 자기가 좋은 일을 했든지, 좋은 말을 했든지, 좋은 행동을 했든지 감사하게 생각해서 놓고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정향입니다. 이건 입으로 아무리 말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불이 차다 뜨겁다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먹어본 사람이나 뜨겁고 찬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먹어보지 않는다면 뜨거운지 찬지 얘기만 들었지 정도를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 체험하고 다스리면서 넘어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혜향이니,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내면세계와 물질세계를 돌로 보지 않으면서 관찰하면서 체험하는 것이 바로 혜향입니다. 돌로 보지 않으면서 듣고 보고 느끼고 체험한다면 해탈이 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탈향이니, 만물만생이 무명에 묶였음을 풀어서 여여하게 다스려 나가는 것이 바로 해탈향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듯이 계향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정향을 철저하게 잘해야만이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이 스스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탈지견향이라 했으니, 삼라만상 일체 만물 만생이 보살피고 느끼고 항상 밝아서 걸림 없이 구족한 것을 이름해서 해탈지견향이라 하는 겁니다. 일체 만법을 내 마음 하나로 인해서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며 반복하면서 돌아가는 상대성 원리, 살림살이 이 모두를 마음에서 터득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느끼고, 다스리고, 실험하는 것이 바로 지금 시대에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는 마음의 참선…. 이 마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고, 발전할 수도 없고, 창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떠나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문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다면 지금 이 시대가 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무명을 쓰고 나오든지 간에 이 세상으로 다시 나올 땐 미래이자 현실입니다. 그래서 삼세에 모든 업을 짓는다면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업보가 돼서 삼독이 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내일이자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차로를 연방 넘나들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며 가는 사람도 역시 그 삼독을 면치 못한다 이런 소립니다. 삼독을 면치 못하는 원인은 내 마음이 툭 트이지 못해서입니다. 내 마음이 한계성을 느끼고, 살아오면서 관습에 젖어가지고 한치도 나가지 못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요건 요렇게 해야 되고 조건 조렇게 해야 되고, 어디를 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고, 문을 열고 나와야 하고,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고, 불에 들어가면 타 죽고, 또 무서운 데에 가면 무서워서 죽고, 귀신에 말리면 무서워서 죽고, 이런 생각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를 잘못 가면 안 되고 삼재가 들면 안 되고, 안 되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온통 안 되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 안 되는 업보로 오간지옥고를 받는다 하는 것은 땅끝에서 국 냄새, 밥 냄새도 맡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간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고생해서 살만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살만하면 또 복잡한 일이 생기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지. 지옥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지옥에 살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승천해서 극락에 살기도 합니다. 삼독을 면하려면 마음의 관습이 떠나야 될 텐데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으니 마음이 문제입니다. 자유스럽게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가지고도 내 마음대로 못하니 이 노릇을 어떡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한다면 이것은 노예이지 자유인이 아닙니다. 왜 이 세상에 남들처럼 다 타고나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도 눈 달리고, 부처님도 눈 달리고, 코 달리고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인간인데 왜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고 왜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까. 과감하게 뛰어넘어야죠.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입에 밥 들어가지 못할까봐 걱정, 옷 헐벗을까봐 걱정, 거리로 나앉아서 잘까봐 걱정, 죽을까봐 걱정을 하다보니까 과감히 뛰어넘을 수 없는 옹졸한 마음이 돼서 항상 노예로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과감하셔야 됩니다. 마음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몸을 두고도 우주 탐사를 할 수도 있고, 이 지구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고, 집에도 갔다 올 수 있고, 회사에도 갔다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발 한 짝이 어디 놓여 있는지,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못 믿습니까? 그래서 '삼독을 제거한다면…' 하는 소립니다.

아까 계향, 정향, 혜향까지 탁 들 아니게 관찰하고 체험하고 넘어갈 수 있다면 해탈은 스스로 오는 것이고, 해탈지견향 역시 스스로 오는 것입니다. 삼독을 제거한다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 한마음으로 나투어 주시는데, 나투어 주시면 몸과 마음이 항상 밝아서 일체 고에 물들지 않고, 번뇌에 물들지 않고, 일체 굴레에서 벗어나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저 언덕이라는 것도 이름해서 언덕이지 우리가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 교차로를 언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것도 공즉시색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죠.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정신계와 물질계, 몸과 정신, 마음이 바로 공 · 색입니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꽃이 필 때는 색이요, 꽃이 질 때는 공이니라.' 하고 표현해도 됩니다. 어디다가 비교해도 연결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어떻게 글로 다 쓰리까.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 세밀하고 아주 묘한 도리는 자기 마음 속에서 스스로 지혜로워질 때 혜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향도 정이요, 혜향도 정이다, 그 정(定)을 안다면 해탈향은 물론이거니와 해탈지견향도 그대로 포함되는 겁니다.

'오신통을 이룬다 하더라도 오신통을 이뤘다 하지 말라. 오신통에서 벗어나야 오신통을 굴릴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신통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해탈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부처를 구하려고 애쓰지만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은 해탈을 구하려고 아니하고, 부처를 구하려고 아니해도 저절로 구해진다 이겁니다. 욕심이 앞서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문을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옴짝달싹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구하고, 자기 자신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진짜 사랑 아닌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전체가 문이죠. 문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 찾아 들고 나는 사람들은 소인들이고, 대인은 문이 있으나 없으나, 벽이 있으나 없으나 그대로 통달해서 한 도량이죠. 그래서 마음이야 어찌 한 도량에 넘나들 수 없겠느냐 이겁니다. 마음이야 어찌 걸려서 못 가고 못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네 마음부터 알아야 일체 만물만생의 마음을 알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응신으로 화해서 여여하게 어떠한 용도든지 나투어 주신다는 겁니다. 한 철 캠핑 왔다가 홀가분하게 목마르면 물마시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자고 싶으면 자고, 똥마려우면 똥을 누니 사람 사는 것이 이만하면 족하지 뭣이 따분한 게 있고 뭣이 답답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마음의 노예가 돼 가지고 한발짝도 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사랑을 하지 말랬나요, 돈을 가지고 살지 말랬나요, 좋은 집에 살지 말랬나요. 정도에 넘치면 해(害)가 오니 정도에 넘치지 않게 하라는 것뿐이죠.

재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인일 뿐이고, 몸은 자생중생의 집합소입니다. 그리고 자생중생들이 안에서 심부름을 해줘야 겉에서 건강하게 뛰어다니는데 안에서 심부름을 안 해준다면 몸뚱이가 한 치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생중생을 먼저 제도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계향도 올바르게 지켜야 하고, 정향도 지켜야 하고, 혜향도 지켜야 하고, 해탈향도 지켜야 하고, 해탈지견향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지키기는 지키되 물질로 지키지 말라. 내 마음의 향, 다스리는 마음으로…. 그런데 다스리는 마음이 첫째는 화목해야 하고, 성내지 말아야 하고, 남을 탓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푸근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써 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린다면 남을 미워할 게 없고, 불안하게 해줄 게 없고, 언짢게 말해줄 게 없고,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는 몰랐을 때의 내 모습으로 돌로 보지 않는다면 해탈은 물론이거니와 해탈지견향까지 구족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서 구족해야지, 죽어서 구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먹은 마음이 죽는다고 달라질까요? 이 모습을 가지고 인간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한번 개구리가 됐다 합시다. 그러면 개구리의 습성이 딱 붙어서 그 습성 떼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개구리의 습성, 뱀의 습성, 개의 습성, 돼지의 습성, 소의 습성 등 갖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 천차만별로 돼 있으면서 살아나가는 그 습성을 떼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곤충에서부터 태로 날 때까지 계단 없는 계단에 서려면 얼만큼 거쳐야 되며, 그 습성을 얼만큼 떼야만 인간의 모습을 타고 나겠느냐 이겁니다.

인간의 모습을 타고 나서 정신계의 어버이로서 훌쩍 벗어나야 될 텐데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회사에서 좌천되듯이 좌천이 돼서 되겠습니까? 인간의 모습을 타고 났으면 역시 그 모습이 다해지기 전에 이 도리를 알고 넘어서야죠. 이 모습으로 살다가 만약에 돼지가 됐다 합시다. 돼지같이 살아서 돼지가 됐다면 속으로는 인간의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돼지 모습을 썼으니 돼지 대접밖엔 못 받겠죠. 의식은 사람의 의식이지만 꿀꿀대고 눈물을 흘리니 돼지 대접밖엔 못 받습니다. 이것이 내 앞에 닥치지 않았으니까 '뭐가 그래? 죽으면 그만이지.' 이러고 아주 태평하게 있지만 그렇게 태평해할 게 아닙니다. 이 도리는 무섭고 에누리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모든 것을 입력해 놓으면 틀림없다고 하죠. 그러나 더 무서운 컴퓨터는 숙명통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마음의 컴퓨터입니다. 자동적으로 자기가 마음먹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나가는 일거일동이 자동적으로 그냥 입력이 되는 것이니 부모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이구, 지겨워.' 이런 생각 마시고 '아, 이것도 바로 내 탓이로다. 내가 이런 인연을 안 지었더라면 왜 내 앞에 왔을까? 얼마 안 있다가 또 다른 모습으로 나오실 텐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난들 안 그러랴.' 하고 내 모습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공경을 잘 하고 미워하지 않고 지겨워하지 않고 꾸준히, 잘하는 척하지도 말고 못하는 척하지도 말고 그냥 여여하게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대성공을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자식들을 기르는 데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두 살아나가는 데 자식들이나 부모들이나 일체 만물만생이 전부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풀뿌리를 봐도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도 묻어 놓으면 살고, 아무리 캐어내도 어디다가 뿌리를 붙이면 살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생명이 지겹도록 튼튼하게 이어가는 것은 참 처음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 근본도 이렇게 영원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 어느 것 하나를 봐도 내 스승

☞30면으로 계속

계향도 정이요 혜향도 정이다
그 정(定)을 안다면
해탈향은 물론이거니와
해탈지견향도 그대로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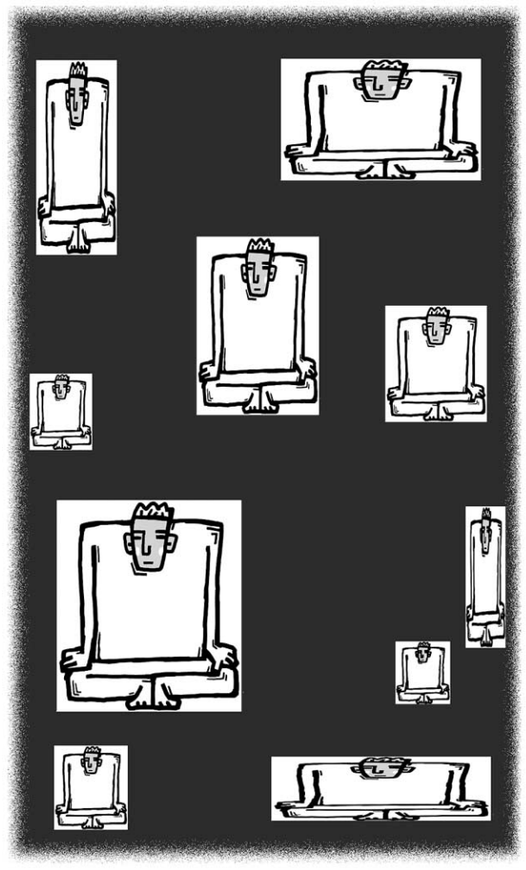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느 것 하나를 봐도 내 스승 아님이 없어

☞29면에서 계속

이 아님이 없는 것이죠.

어제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일체 삼세 부처님의 마음과 일체 만물만생이 다 스승이 돼 준 까닭에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고, 행동 하나도 할 수 있었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감사함을 어찌 말로 얍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지금처럼 배불리 먹지 못했을 때여서 겨울에도 누구 말마따나 배는 등에 달라붙고 땀은 뻘뻘 흐르는데, 물 한 모금을 먹으려고 도랑에 가니까 큰 뱀이, 그건 뱀도 아니고 구렁이였던 것 같은데 틀고 앉았는 겁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기절을 했을 텐데 아주 침착해지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침착했던 게 아니구요. 내 바른대로 얘기하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는 누구나 다 죽는 건데 그까짓 것 죽는 것이 뭣이 그렇게 어려우냐. 네가 인연이 돼서 나를 물어 죽인다 하더라도 너를 원망 안 한다.' 그러고서는 보니까 목마르다는 생각이 싹 없어지면서 뭐가 보이느냐 하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원이 보이는 겁니다. 원!

원이 보여서 무심코 '아, 이 세상은 모가 나지 않고 저렇게 둥글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뱀이 어느 틈에 머리를 번쩍 들고 혓바닥을 낼름낼름 하는데 '고개를 들었으니 백(白)이면서 바로 법이로구나. 고개를 일으켰으니 법이고 혓바닥을 내밀었으니 행동 하나하나가 살아 있구나.' 하는 걸 느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짓도 안 하고 가지도 않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 뱀도 오히려 두려웠던지 길게 몸을 끌고 가는 겁니다. 아, 그걸 보면서 '원에 모든 진리는 하나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또 느꼈습니다. 그러니 모든 매사 하나하나가 스승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꼭 말을 해야 스승입니까. 꽃이 피고 지는 것도 스승이요, 밥을 먹고 똥을 싸는 걸 봐도 스승이요, 서로 악다구니처럼 싸움을 하는 것도 스승이고….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감사함을 느낀다면 누구를 원망할 수 있으며, 누구를 증오할 수 있으며,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건방지다고 하겠지만 나는 여러분과 둘이 아닌 마음, 이 세상천지가 다 들이 아니게 전달을 하고 돌아갑니다. 마음과 마음이 말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은행나무와 은행나무가 사랑하고, 사과나무와 사과나무가 사랑하고, 진달래나무와 진달래나무가 사랑하고, 싸리나무와 싸리나무가 사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랑 빼놓고 없습니다. 모두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도 마음을 너그럽게 굴렸다 졸였다 할 수 있는 자동적인 자유자재권이 있어야 되는데, 곤충들은 자유자재권이 없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한테 자기 몸을 다 바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뺐다 끼웠다 하는 지혜에 달려 있는데 그걸 둥굴릴 수가 없고 자유자재할 수 없이 곧이곧대로 사니까 곤충으로밖엔 못 살죠.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좀더 마음이 탁 트여서 훌떡 넘어가야 합니다. 귀신이 무섭다고 하는데, 사람이 살다 죽은 것이 귀신인데 귀신이 뭣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믐밤에 묘지에 가서 밤을 새우라면 무서워서 쩔쩔 매실 거지만 그것도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을 좀 활짝 여세요. 우리 몸뚱이는 문을 열고 닫고 다니지만 마음은 벽도 소용없고 봇장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짜 믿으세요. 왜 믿지 못하고 줬다 뺐었다 줬다 뺐었다 이러십니까. 지혜롭게 믿고 밀고 나가세요.

내가 여러분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지혜를 넓히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주기 때문에 지혜를 넓혔고, 사랑도 할 줄 알았고, 네 자식 내 자식 따로 없는 것도 알았고, 네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없다는 것도 알았기에 여러분이 정말 저에게는 스승이며 부처이십니다. 그러니 어디 따로 있습니까. 더불어 같이 도반이요, 더불어 같이 가지 않습니까.

이만하고, 공부하시면서 어떠한 체험이라든가 또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 질문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옛 선사가 이르시기를 "처음에 나였다가 나중에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부처였는데 나중에 내가 되었더라." 하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만 스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스님: 네. 그래요. 나중에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그냥 부처입니다. 그대로 부처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를 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를 구해서 나중에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구하니까 그대로 부처가 되더라는 얘깁니다. 부처 아닌 부처요, 자유인이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나를 모르고 있다가 나를 찾았다는 겁니다.

▲질문자1: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님을 모시고 가르침을 듣는 법회 때마다 저희들 중 몇 사람이 의문 나는 점을 여쭈곤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어서 답을 얻으려 하기 보다는 스스로 의증을 들고 주인공의 답을 들을 때까지 참구해 들어가야 함이 옳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 바른 지견인지 가르침 바랍니다.

▲스님: 네. 그것이 바르죠. 그런데 말입니다, 스님네들이나 물론 살림하시는 여러분이나 다 그렇습니다만 스님네들은 모든 것을 다 맡겨 놓고 거기서 답이 나올 때를 지켜보지만 살림하시는 분들은 질문도 해야 합니다. 질문이 아주 없어서도 아니 되고 물어보기만 해도 안 됩니다. 길 가는 요령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길 가는 요령을 알아서 반드시 맡겨 놓고 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길을 알아 가지고 맡겨 놓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맡겨 놓는 거하곤 다릅니다.

▲질문자1: 세번째 질문, 한 선사가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경계를 인식하는 주체가 남아 있는 한 인식된 모든 것은 속임수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식하는 주체가 사라진 경계란 어떤 경지일까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그때는 주인공만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 나름대로 헤아려 봅니다만 이에 대해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그러니 아까도 얘기했죠. 물맛을 알려면 내가 직접 먹어봐야 안다구요. 정말 뜨거운지, 미지근한 건지, 따뜻한 건지, 찬 건지 먹어본 사람이나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먹어보지 않은 이상에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로만 듣고, 책을 보고, 이론적으로만 해나가면 모두 거짓말이 되고 모두 헛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 보고 '이 물은 마시니까 시원하더라' 하고 주는 것이 바로 약사보살이 감로수를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먹어보지도 않고 물맛이 어떻겠다 생각하고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 아님이 없을 때는 바로 내가 물이 되는 겁니다. 물맛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물을 줘도 그때는 아주 맛이 나고 감로수가 되는 거죠.

지혜를 얻으려면 나부터 먼저 알아야 지혜가 늘어가요. 나부터 알아야 해요. 우리 형제 법우님들께서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틔어야 남도 이끌어갈 수 있지 내가 눈을 뜨지 않고, 내가 귀를 열지 않고 남을 이끌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진짜로 보시해야 합니다. 금 한 덩어리 주고서 늘려라 그랬더니 그 금이 없어질까봐 늘리지 않았다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놓고 체험하고 가면서 남들한테 마음공부를 전달해주게 되면 그만큼 공덕이 큰 겁니다. 이건 세세생생에 공덕입니다. 올바로만 관법을 일러준다면 그 또한 공덕이 되겠죠.

한 사람을 이끌면 수십억의 중생들을 이끈 셈이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집합소 하나를 포교했는데 집합소 안에 들은 중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 집합소 안에 있는 자생중생들이 전부 화해서 보살로 화했으니 그 얼마나 공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하면 주먹을 번쩍 들거나 주장자를 내리치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귀띔을 해줘 가면서 이렇게 해야죠.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는 도리를 어찌 알아서 산은 산대로 있고 물은 물대로 있는 도리를 알겠습니까.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67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처를 구해서 나중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구하니까 그대로 부처가 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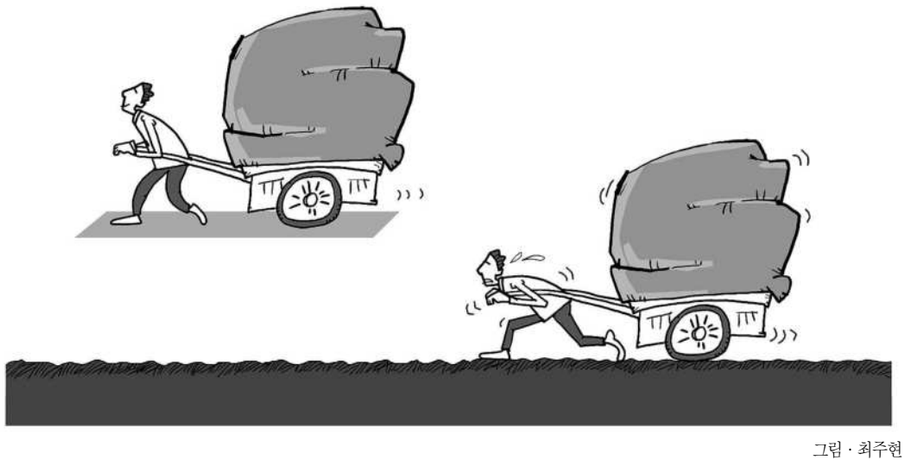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관상학 특강반 모집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지선법사 직강◀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中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관절과 연골에
글루코사민 포르테

관절염 치료제 BDX-1(특허 제0429595호)

BDX-1은 2000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총 10억여원의 개발비를 투자하고 중소기업청이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하여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카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활성평가 연구실에서 30여 차례 이상의 효능 및 독성실험 등 임상 실험을 거쳐 완료된 관절염 치료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원료입니다.
2004년 4월 국내 특허를 획득(특허 제0429595호 : 생약추출물을 포함하는 관절염치료 및 예방용 조성물의 제조방법 및 그 조성물) 하였습니다.

· 골관절염
· 통증을 감소 및 활동성 향상
· 관절손상 보호
· 항염증 작용
· 혈액과 관절에 쉽게 흡수되어 항염증, 진통작용
· 활동성을 향상
·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결석, 사고등으로 인한 관절계통의 상처 치유



건강기능식품
900mg 60정×2

관절과 연골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 포르테정은 엄격한 품질관리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글루코사민 포르테"를 1개월만 복용하면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2~3개월만 복용하면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주)제이팜제약
주문 및 상담전화 : 02-598-9834

당 하(茶)당 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승복 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조끼 60,000 두루막 170,000

3. 면 솜없이 누비(한국산 숯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조끼 60,000 두루막 160,000

4.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조끼 70,000 두루막 200,000



5. 모직 특수솜 누비(물세탁)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조끼 80,000 두루막 23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제일모직 250,000
실크 · 금낭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T, 니트모자, 마후라, 가방, 신도용 쪼끼, 바지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몸 지치고 · 가슴 답답…

건강하면 성적도 오른다



수능 D-7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중압감 탈피하자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10일 현재 7일 앞으로 다가왔다. 남은 기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수능 시험의 성패도 좌우된다. 수능 D-7일의 최대 복병인 '슬럼프와 건강 이상'도 대비만 철저히 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험에 대한 중압감으로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와 두통, 집중력 저하, 불면증, 변비 등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관리법을 알아본다.

□음식으로 챙기는 수험생 건강관리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음식**=비타민과 칼슘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씻어 주는 보약이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할 때는 감기예방에도 효과적인 유자차를 마시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체내에 칼슘이 부족하면 쉽게 스트레스를 느끼고 가벼운 일에도 짜증을 내기 쉽다. 이럴땐 호박죽이나 멸치를 섭취하면 항스트레스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음식**=수험생이 한정된 수험기간 동안 집중력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숙면이 필수적이다. 하루 5시간 이상 잠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시험에 대한 과도한 중압감으로 숙면을 취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수험생이라면 상추와 파김치 또는 호두와 대추를 넣은 죽을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끈한 우유나 살짝 대친 양파를 먹는 것도 숙면을 취하는 좋은 방법이다. 허브 오일로 샤워를 하거나 라벤더 향의 초를 피우는 아로마 요법도 숙면에 좋다.

△**집중력 향상과 피로회복에 좋은 음식**=비타민이 다량 함유된 토마토와 당분이 많은 꿀을 섞은 토마토 샐러드는 지친 수험생에게 원기를 회복시켜 준다. 오미자차, 호도, 잣 등을 간식으로 먹어도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식초를 듬뿍 넣은 상추 겉절이도 피로회복에 특효다. 한편 커피, 초콜릿, 사탕도 피로회복에 다소 도움이 되지만 민감한 수험생에게 설사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삼가는 편이 좋다.

□시험 당일 컨디션 유지하기

시험 당일 수험생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인해 자칫 집중력과 마음의 안정이 흐트러질 수 있다. 이날 수험생은 평소보다 20분 정도 일찍 일어나 간단한 심호흡법이나 스트레칭으로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좋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심호흡법으로는 가부좌(일명 책상다리)를 틀고 눈을 감은 뒤 6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 키고 10초간 서서히 숨을 내뱉기를 30회 반복하면 심신의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시험도중 목이 뻣뻣할 경우 풍지풍문혈(목뼈를 기준으로 양옆 4~5㎝)을 마사지하면 한결 부드러워진다.

또 오전 시험을 치른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간단한 맨손체조나 스트레칭으로 경직된 몸과 마음을 푸는것도 자칫 졸릴 수 있는 오후 시험을 대비하는 한 방법이다.

□급할 때 손쉽게 할 수 있는 처방법

△**현기증, 편두통**=녹용과 당귀를 달여 먹는다. 로즈마리 아로마 양초를 태운다. △**눈의 피로, 충혈**=구기자, 결명자차 음용, 손바닥을 문질러 발생된 열로 눈 주위를 지압. △**스트레스성 위염**=석창포, 복령을 달여 먹는다. △**변비**=감식초와 야쿠르트를 각각 1/2씩 섞어서 녹즙으로 마신다. △**배에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시금치, 사과, 야쿠르트를 각각 1/3씩 섞어 녹즙으로 음용. △**축농증, 비염**=한약제인 세신, 신이를 훈증(김을 코로 맡는 것). △**급체**=경외기혈(검지발가락 첫째마디)을 지압한다. △**목이 뻣뻣한 경우**=풍지풍문혈(목뼈를 기준으로 양옆 4~5㎝부위)을 마사지한다

노병철 기자

〈도움말=이호섭 원광대 한방생리학과 교수〉

◇수험생 10대 수칙 〈도움말=이만기 메가스터디교육연구소장〉

1. 어려운 문제는 너무 집착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라.
2. 문제와 지문은 반드시 끝까지 읽어라.
3. 듣기평가에서는 보기를 먼저 읽어라.
4. 답안지 작성 후 재확인은 필수다.
5. 쉬는 시간 답을 맞춰보지 말고 다음 시간을 대비하라.
6. 시험 시작 5분전에는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어라.
7. 시험 종료 5분전까지는 정답을 답안지에 옮겨 적어라.
8. 두꺼운 옷을 한번 입기보다 얇은 옷을 겹쳐 입어라.
9. 쉬는 시간에는 가급적 화장실을 다녀오고 신선한 바람을 쐬라.
10. 학부형은 수험생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30

면역력 강화시켜 오래산다

아유르베딕 마사지의 놀라운 효과들 ii

류머티즘이나 좌골 신경통 등은 바타 도샤의 과잉 발생으로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들이다. 바타로 인한 병들은 대장에 자리잡고 있다. 때문에 관장을 비롯한 장 치료와 규칙적인 오일 마사지가 좋은 치료법이다.

참기름에 적은 양의 마늘을 넣은 후 검정색이 될 때까지 달인다. 그런 후 호로파 향신료를 1스푼 첨가해 2분 정도 더 끓인다. 다시 아위스저를 조금 넣어 잘 섞은 후 3분 정도 끓인다. 이번엔 오레가노씨를 한 티스푼 집어넣어 잘 섞은 후 갈색이 되도록 끓인다. 식힌 후 라벤더 향을 섞은 오일을 사용해 마사지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시력을 향상시킨다

아유르베다에 의하면 시력은 피타 도샤의 영향을 받는다. 피타 도샤가 자리잡고 있는 소화기관의 질환과 시력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변비, 소화 불량, 위산 과다와 함께 피타 도샤 도샤의 부조화는 시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다. 이럴 때 잠자기 전에 코코넛 오일이나 참기름으로 배 끝 부위를 시계방향으로 마사지하면 시력이 향상된다. 눈병으로 시력이 약화된 경우에는 엄지와 둘째 발가락 사이를 마사지하는 것과 동시에 척추와 목, 머리를 규칙적으로 기름 마사지한다.

눈은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데 눈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은 눈의 생기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한다. 눈 속에 양파 주스나 꿀, 우유 등에서 걸러낸 기름인 기를 넣어주면 눈물이 나온다. 이것은 눈을 씻어내고 회복시키는 작용을 해 눈을 건강케 한다. 반면 슬픔, 분노, 억울함, 병들어서 흐르는 눈물은 신맛이 나기 때문에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눈이 우리 신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유르베다에서는 건강한 눈을 갖기 위한 방법으로 눈물이 나올 때까지 불꽃을 응시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말한다. 관자놀이를 오일이나 기로 마사지하는 것도 좋다. 또 콧속을 물이나 기름으로 깊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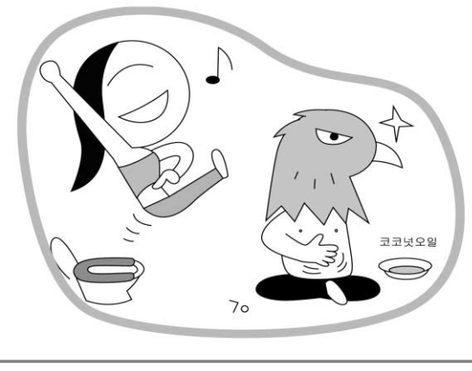
체력을 강화시킨다

지압을 하거나 오일을 사용해 몸을 문질렀을 때 우리 몸은 혈액뿐만 아니라 생명력에 필수적인 모든 유체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근육을 주무르고 압박을 가해 축적된 독소를 몸 밖으로 빼내면 세포나 조직 속엔 새로운 영양소가 기(氣)를 채운다. 그 결과 몸 속의 면역체가 더 강해지고 체력, 정력, 생식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섯째, 오래 살게 한다.

마사지를 하면 우리 몸 속은 전기 화학적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 조화란 독소가 제거되면서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이다. 자연히 오래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포천 중문의대



김재덕 역학교육원

역학, 음양오행, 인성컨설팅 강사 주간지 Goodday 365 "미용역학 삼정의 인연법,사주에어" 고정연재중 월간뷰티패션 "역학풀이" 연재중

실력있는 역학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모집과정 : 수시모집 강의 : 주 1회(화요일) 사주통변이 부족하신 분, 책을 보고 독학하신 분 · 사주통변이 자신 없는 분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관상학 (특강 월2회 화요일)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 011-9702-2237

탈종공고

● 사찰명 : 정토사
● 주 소 : 서울 종로구 평창동 523-61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28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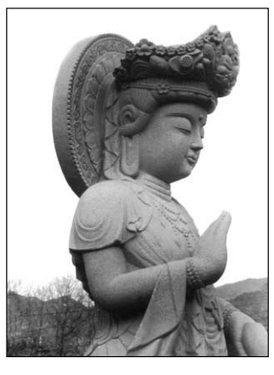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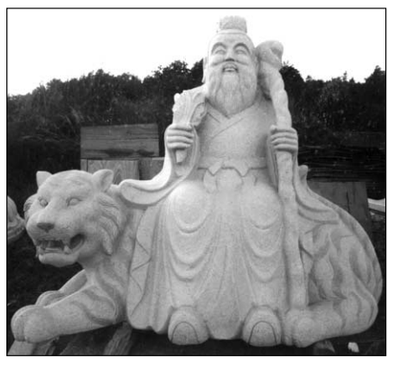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유산증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캠페인
개도국 어린이 식량 · 교육 지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눔은 유산증여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회장 현승종)가 유언을 통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남기는 ‘유산증여’ 캠페인을 11월 10일부터 실시한다.

유산증여는 본인 뿐 아니라 상속인도 참여가 가능하며, 유니세프에 기부의사를 표시한 후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언의 검증을 거쳐 집행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유니세프에 기부한 재산은 모두 비과세 처리된다.

이렇게 모여진 유니세프 증여유산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영양 및 보건환경 개선, 교육지원, 재해와 전쟁으로 피해받는 어린이들의 긴급구호활동에 쓰여진다.

현재 개발도상국 5세미만 어린이 3명중 1명이 영양실조이며, 전 세계적으로 1억1천만명의 어린이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53년 한국전쟁 당시부터 1993년까지 40여년간 경제발전단계에 맞춰 총 2천3백만불 상당의 분유와 담요, 의약품을 지원받아왔다.

1994년 설립돼 도움을 받아야 했던 처지에서 공여국의 위치가 된 선진국형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442억원의 기금을 전 세계 개발도상국 어린이를 위한 영양, 보건, 기초교육, 긴급구호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현승종 회장은 “유니세프에 유산을 남기면 세계 어린이들에게 ‘생명유산’을 물려주는 셈이 된다”며 “유산증여는 굶주리는 어린이를 구하는 식량이 되고, 병든 어린이를 치료하는 약이 되며, 물이없어 죽어가는 생명수가 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후원자개발부 080-733-7979, (02)723-8215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점심식사를 타기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짐바브웨 초등학생들.



본사 서정만 이사(가운데)가 북한 및 불교국가, 세계 재난지역돕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제이티에스에 의류를 전달했다.

“북녘동포에게 옷 전해주세요”

동대문 · 남대문 상인 등 2천여벌 기증

“북한동포들에게 의류를 전달해줬으면 합니다.”

본사는 11월 4일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 기증된 2천여벌(싯가 6천여만원)의 의류를 한국제이티에스(이사장 법륜)에 전달했다.

이날 한국제이티에스 의류 전달식에서 본사 서정만 이사는 “의류들이 북한을 비롯한 해외동포들과 불교국가, 해외재난지역에 전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천여벌의 의류는 동대문 신평화상가 상인들이 1천여벌을, 남대문 한양니트 1천여벌, 박미숙(서울 서초동) 씨등 개인과 단체에서 20여벌을 기증했다. 기증의류는 스웨터와 그라운드티등 니트류 스커트 티셔츠 바지 등이다.

김원우 기자

총지종 강남자활후견기관 개관

저소득층 자립서비스 제공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강남자활후견기관의 위탁운영을 받은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승)은 11월 11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통리원에서 개관 불사 및 현판식을 개최한다.

통리원 2층에 사무실을, 지하에 작업장을 마련한 강남자활후견기관은 앞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강남지역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산후, 간병, 봉제, 차량 광택 및 세차, 자전거 이동수리 등의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여기에는 관장을 포함해 총 6명의 직원이 배치된다.

한편 강남자활후견기관은 근로능력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으로 자활서비스를 제공해 자활의욕과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2001년 7월부터 성모자애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내부사정으로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인수, 위탁운영하게 된다.

박봉영 기자

“골수이식 했지만 치료비 막막합니다”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앓는 김영태 씨



2003년 11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김영태(남 · 35 · 사진) 씨. 김 씨는 6월에 희망이었던 골수이식수술까지 마쳤으나, 그동안 진 빚의 상환과 앞으로의 치료비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씨는 간수치가 800이상이며(정상수치:25~50), 피부병변이 있어 회복여부에 집중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김영태 씨의 수술비는 농사를 짓고 있는 아버지가 대출을 받고, 큰형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해 마련한 돈으로 근근히 감당해왔다. 형제들마저 이제 더 이상의 재정지원은 어려운 상태다.

김영태 씨는 1996년 결혼 후 각종제품에 글자 새기는 일을 하면서 개인 사업체도 운영해 고정된 수입으로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다. 하지만 작년부터 자금난으로 사업체의 문을 닫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온데 이어 설상가상으로 백혈병이라는 선고까지 받았다. 더구나 어머니가 지난 6월 병원에서 골수이식수술을 앞둔 아들의 얼굴을 본 뒤, 정신적 충격으로 갑자기 운명하는 아픔도 겪어야 했다. 현재 가족들은 친척집을 오가며 지내는 형편이다. (02) 734-8050

김원우 기자

우리이웃 현대불교신문 · buddhanews.com

나눔의 성금

강문선 – 21만6천880원

진영숙 이선자 김기영
그린포토 지산기획
– 21만3천360원

총누적금액: 26,829,570원

알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눔스티커 신청

정명석(충북 충주시 교현1동)
– 스티커 10장
송암사(전남 순천시 서면)
– 스티커 100장

나눔스티커 신청

양산 불광사 주지 경보 스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공을 무료로 가르치고 싶다”고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055) 386-8605 (핸드폰)011-881-7664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십시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보시중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을수 있습니다.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시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 (02)737-0090, 팩스(02)737-0697

“어린이 ·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 **어떻게 참여하나**
- –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 1구좌 1만원입니다.
-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온라인구좌/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좋은벗 풍경소리 (02)723-9836**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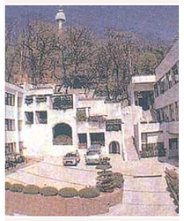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대원불교대학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나큰 원력을 일으킵니다" 미래불교 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열린 교육도량
www.buddhaschool.or.kr www.idaewon.or.kr

대원불교대학은 동국제강(주) 창업주이며, 불교방송 개국의 모태인 (재)대한불교진흥원 설립자이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불교 대중화의 원력에 따라 수업료 전액 장학 혜택을 주는 불교계 최초의 교양대학입니다.


◇ 故 대원 장경호 거사


◇ 대원불교대학


◇ 입학식


◇ 불적답사


◇ 불적답사 세미나

2005학년도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서울 · 부산) 모집안내

■ 모집과정 [2년재 4학기 / 주 2일, 4과목]
- **●출강과정 :** · **대 학 :** 서울(불교학과 주간반 : 100명) / 부산(불교학과 주 · 야간반 :100명)
  · **대학원 :** 서울(불교학과 야간반 : 5명) / 부산(불교학과 야간반 : 20명)
- **●통신과정 :** 00명(출강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강의 테이프를 발송해 드립니다.)

■ 지원자격
- **●대학원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구술테스트에 의해 능력이 인정되는자 **●대 학 :** 체계적인 불교 공부를 원하는 자.

■ 전형일정
- **●원서교부 :** 2004년 12월 1일 ~ 2005년 2월 14일까지 **●원서접수 :** 2004년 12월 1일 ~ 2005년 2월 21일까지
- **●대학원 면접 및 구술시험일 :** · **서울 :** 2005년 1월 22일(토) 14:00 / 서울 대원불교대학 강의실
  · **부산 :** 2005년 1월 29일(토) 14:00 / 부산 대원불교대학 강의실
- **●합격자 발표 :** · **대 학 :** 2005년 2월 25일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대학원 :** 2005년 2월 4일(개별통보)

■ 전형료 및 수업료
- **●전형료 :** 대학 과정 20,000원, 대학원 과정 50,000원 **●수업료 :** 전액 장학 혜택 (소정의 기성회비 납부 – 학기당 8만원 / 분납가능)
- **●전형료 납부 :** 국민은행 098-01-0230-530 (예금주 – 한국불교대원회)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서울 :**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 02)754-1613,773-9171 **●부산 :** 부산 금정구 장전동 382-3 / 051)583-7700, 583-7711~2

■ 제출서류
1)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2)학업 및 연구 계획서 1부(대학원 과정)

▣ 전임교수진 및 담당과목
- **●장휘옥 –** 부산대학교 화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과정 졸업, 일본 동경대학교 인도철학과정 석, 박사과정 졸업, 문학박사
  · 지도과목: 정토사상, 화엄사상, 중국불교사상사, 한국불교사상 등
- **●허경구 –**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중퇴,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동대학원 불교학과 석, 박사과정 수료, 인도 바라나시힌두대학교 빨리어, 불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 지도과정: 인도불교사, 구사학, 경전성립사, 대승불전강독 등
- **●김사업 –**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석, 박사과정 졸업, 일본 국립 경도대학교 문학연구과(불교학과정) 박사과정 수료, 철학박사
  · 지도과정 : 중관학, 유식학, 여래장사상 등
- **●최봉수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조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석,박사과정 졸업, 철학박사
  · 지도과정 : 불타론, 초기불교연구, 초기불전강독 등



부산 대원불교대학 개교 기념 특별기획강좌 [무료]

■ 불교신행 경전 특강(8주간)
- **●개강일시 :** 2004년 11월 23일 화요일 (매주 화.금 / 주간반 오후 2시, 야간반 오후 7시)
- **●장 소 :** 대원불교대학 4층 강의실 (금정구 장전동 소재)
- **●수 강 료 :** 전액 무료(단, 무단결석 시 재적)
- **●모집인원 :** 각 80명 (수간신청서를 심사 후 합격 통보)
- **●문 의 :** 051)583-7700, 583-7811~2 / 02)754-1613,773-9171

■ 과목 및 담당교수
- **●범본 천수경 정해 (최봉수 교수)**
  다라니는 해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만 듣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매일 독 송하지만 왠지 떨칠 수 없는 허전함이 있으시다구요? 이제 최봉수 교수의 특강을 주목하십시오. 다라니의 비밀을 명쾌한 강의로 풀어드립니다.
- **●반야심경 정해 (김사업 교수)**
  불교 모든 의식에 빠짐없이 등장한 반야심경, 그러나 난해하기만 합니다. 좀더 쉽고 우리가슴에 와닿는 반야심경 강의는 없을까? 이번 김사업 교수의 특강은 그러한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 드립니다. 본, 한역본을 충실히 비교하며 생활속의 살아있는 반이심경! 기대하십시오.
- **●법구경 정해 (허경구 교수)**
  불교 원전 중 그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법구경을 2500년전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재생시킨 것과 같습니다. 군더더기기 없으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지는 법구경, 팔리어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 진행되는 허경구 교수의 강의는 불교의 진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 **●불교수행론 특강 (장휘옥 교수)**
  참선하시나요? 위빠사나를 하신다고요? 아니면 염불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불교 신행을 점검하십시오 . 세계적인 수행처를 세계적인 수행처를 방문하여 체험한 장휘옥 교수 수행의 체험 이야기와 이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 서울캠퍼스 :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 754-1613
· 부산캠퍼스 :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382-3 / (051) 583-7700

2004
포교사 고시 실전 모의고사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499호 부록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buddhanews.com 불기 2548년(서기 2004년) 11월 10일 수요일(음력9월28일)

조계종11월 28일(美 LA지역 27일) 교육단체련 12월 5일

전국 불교대학이 출제한 문제집 첫 발행…응시생 마지막 점검 · 불자들에겐 공부 자료



조계종 포교사고시(국내 11월 28일, 미국 LA 11월 27일)와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고시(12월 5일)가 11월 10일 현재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포교사고시를 준비하는 불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포교사고시 예상 문제집'을 부록으로 발간합니다. 이 부록은 포교사고시를 준비하는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불자들이 불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점검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불교교리와 사찰예절, 불교사, 불교문화, 불자의 신행 등 주요 예상문제를 중심으로 불광불교대, 대구불교대 등 전국 13곳 불교대학에서 출제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지는 기출문제 유형을 토대로 난이도별로 1회당 객관식 30문항, 주관식 단답형 7문항, 서술형 3문항 등 총 40문항씩 4회로 구성해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 면 안 내

2 포교사고시 일정
3~14 모의고사 문제
15 전국 불교대학 안내

가장 빠른 불교 뉴스 buddhanews.com

문제출제 도움 준 불교대학

- 광주불교대학(학장 혜향)
- 광주불교문화대학(학장 행법)
- 대구불교대학(학장 지성)
- 대광불교대학(학장 상진)
-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
- 밀양불교대학(학장 정무)
- 백제불교문화대학(학장 장곡)
- 봉은사불교대학(학장 원혜)
- 불광불교대학(학장 지홍)
- 안양불교대학(학장 현호)
- 원주불교대학(학장 원행)
- 영축불교대학(학장 지태)
-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안중철)

(가나다순)

포교사고시 일정 및 전형 안내

■ 조계종 포교사고시

조계종 포교사고시는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 제3조(선발)에 의거하여 포교활성화를 위하여 종단 및 불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불교적 소양과 전문적인 포교역량을 갖춘 인력을 선발, 양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1. 자격요건
조계종 사찰을 재적사찰로 정하고 불기2548(2004)년 7월31일까지 신도오계 또는 보살계를 수지하고 신도등록을 필한 자로서,
1) 종단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졸업 및 졸업예정자
2)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개설 교과과정 중 부전공 이상의 학점(20학점)을 취득한 자
3)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불교관련학과 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자
4) 포교에 대한 원력과 신심이 투철하여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구본사 주지가 추천하는 자로서 포교원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선발되어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
5) 포교원 등록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포교원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선발되어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

2. 실시일시
국내 : 불기2548(2004)년 11월 28일(일) 09:00~12:00
L A : 불기2548(2004)년 11월 27일(토) 16:00~19:00

3. 전형유형
서류전형→ 1차 고시→ 1차 합격자 선발(12월 6일)→ 2차 고시(12월 12일)→ 2차 합격자 선발(12월 27일)→ 연수/최종합격자 선발 및 품수(추후 공고)
※ 추천자 연수교육 – 추후 연수일정 개별통지

4. 전형방법
1차 필기시험은 1, 2교시로 나눠 총 140분간 진행되며, 각 교시는 불교교리와 불교역사, 포교방법론 등 조계종 신도 전문교육기관 교과목 내용으로 객관식 30문항과 주관식 단답형, 서술형 10문항으로 총 40문항씩 진행된다. 2차 고시는 1차 고시 합격자에 한해 논술과 면접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정위원회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논술은 부처님 법의 이해와 실생활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면접은 면접관 2~3명이 부처님 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포교활동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원력을 면접 질문지를 이용해 평가하게 된다.

5. 포교사가 되면
포교사고시에 합격하면, 조계종 포교사단에 소속돼 불법 홍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불교상담과 사찰안내, 군포교, 탈북주민 돕기, 교도소 교화활동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종교 편향 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종단외호사업과 장기기증 등의 생명나눔사업, 환경운동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포교사단 내 염불포교분과위원회, 교도소분과위원회, 신행단체분과위원회 등 16개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팀별로 진행되며, 매년 2~3차례 분과별연수회와 팔재계 등의 특별교육을 통해 활동사항과 향후활동계획들을 점검한다.

6. 문의
조계종 포교원 (02)2011-1893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고시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는 불자로서의 기본 소양, 불교교리의 이해, 사회봉사 참여의식, 불자로서의 가치관 등의 내용으로 불교교육능력평가고시를 시행, 실천불교를 위한 정법포교의 선구자역할을 할 불교포교사를 배출하기 위해 실시한다.

1. 자격요건
연합회에 등록된 교육과정 1년 이상 교양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실시일시
불기2548(2004)년 12월 5일(일) 13:00~17:00

3. 전형유형
서류전형→ 1차 시험(필기시험 및 면접)→ 최종합격자발표(2005년 1월 10일)→ 최종합격자연수 및 품수(추후 공고)

4. 전형방법
고시는 80여분의 필기시험과 3시간여 동안의 면접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포교사로서의 기본소양과 불교교리 및 역사, 문화 등의 내용으로 객관식 50문제 단답형 주관식 15문제, 서술형 주관식 3문제 등 총 68문제로 출제된다.
면접은 2명의 면접관들이 직접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포교사로서의 활동 의지와 불교학의 이해, 정기적인 신행생활 등을 평가하게 된다. 최종합격자 선발은 필기 70% 면접 30% 비중으로 절대평가로 이뤄진다.

5. 포교사가 되면
동산불교대학과 보현불교대학 등 27개 불교대학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는 '실력을 갖춘 범종단 포교사'를 지양하며 소속 대학을 중심으로 군포교, 교도소 교화활동, 복지관 봉사 등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법당 만들기 운동'을 벌이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포교사의 역할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연합회 포교사들은 소속 대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만큼, 연 2회 품수교육(봄)과 정기교육(가을) 등을 통해 포교사들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향후활동 계획과 연계사업 등의 방안을 논의한다.

6. 문의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02)734-9595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전국 불교대학

■ 조계종 인가 불교대학

〈무순〉

대학명	주 소	연락처
조계사불교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조계사內	02-720-6742
봉은불교대학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봉은사內	02-516-5652
불광불교대학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80번지 불광사 교육관內	02-414-4407
화계불교대학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1동 487번지 화계사內	02-902-2663
인천불교대학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3동 86-6번지 법명사 內	032-576-9741
인천불교전법대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 1동 인천불교회관 2층	032-442-9906
김포불교대학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번지 중앙승가대학교內	031-980-7753
봉선사불교대학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번지 봉선사內	031-527-5974
충북불교대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216-1번지 용화사內	043-274-2159
광제사불교대학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89-9번지 광제사內	042-627-8600
백제불교문화대학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2번지	042-537-8214
통도사대전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427-55번지 통도사대전포교원內	042-531-1332
각원사불교대학	충청남도 천안시 안서동 산 98-83번지 각원사內	041-561-3545
강릉불교대학	강원도 강릉시 금학동 29번지 관음사內	033-647-7736
신흥사불교대학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90-2번지 원각사內	033-635-0106
원주불교대학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29번지 구룡사內	033-732-4800
동해불교대학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176번지 삼화사內	033-534-7661
대구불교대학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932-35번지 보현사內	053-256-3725
보리불교대학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번지	053-522-7611
영남불교대학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1301-20번지 관음사內	053-474-8228
경북불교대학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번지 불광사內	053-792-1353
천룡사불교대학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산 91-23번지 천룡사內	054-472-7989
구미불교대학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28-9번지	054-453-0571
김천불교대학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번지 직지사內	054-436-6174
문경불교대학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883-6번지	054-552-1710
안동대원불교대학	경상북도 안동시 목성동 57-1번지 대원사內	054-858-6033
포항불교대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1동 88번지 죽림사內	054-247-4688
대광불교대학(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번지 통도사부산포교원	051-816-2245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2동 157-1번지 부산불교회관5층	051-867-9944
금정불교대학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1동 393-12번지 불교회관內	051-866-7277
울산불교교육대학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616-1번지 성수빌딩 6층	052-266-3318
정토불교대학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803-5번지 정토사內	052-258-9944
통도사불교대학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통도사內	055-382-7182
밀양불교대학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692번지 용궁사內	055-354-4464
영축불교대학	경상남도 마산시 추산동 65-1번지 정법사內	055-242-8393
봉림불교대학	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 산139-9번지 봉림사內	055-237-2266
불지 수다라불교대학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93번지 은아아파트 불지사內	055-262-6663
경남불교대학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73-39번지 동산빌딩 7층	055-266-8150
대광불교대학(진해)	경상남도 진해시 태백동 산84-14번지 대광사內	055-545-9595
화엄불교대학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6-5번지 전북불교회관內	063-277-3497
이리불교대학	전라북도 익산시 갈산동 32번지 관음사內	063-854-1578
남원불교대학	전라북도 남원시 도통동 392-1 깨달음	063-632-6936
광주불교문화대학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52-17번지 봉산빌딩 4층	062-228-9098
광주불교대학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51-3번지 향림사內	062-375-7633
강진불교대학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23번지 롬비니유치원內	061-432-0837
목포불교대학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3동 1744-3번지 4층	061-279-0577
해남불교대학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225-6번지	061-534-3355
제주불교문화대학	제주도 제주시 도남동 47-12번지	064-722-2829
서귀포불교대학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256-2번지	064-733-8882
LA불교대학	USA 4279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213-380-3302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소속 불교대학

대학명	주 소	연락처
동산불교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0	02-732-1206
한국불교통신대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51-14 금강선원	02-969-2410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B/D 3층	02-733-1959
일붕삼장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93	02-379-3511
해동불교범음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 경동B/D 3층	02-741-0495
경인불교대학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252-3	032-427-8400
새세계불교대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77-3	032-437-9760
동함불교대학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1동 46-2 동함사	032-423-5369
하얀불교대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0-1	031-707-0108
동국불교연수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53-83	031-449-2393
불이선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95-7 지하1층 불이선원	016-266-3090
영탑산사 불교대학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 369-1	031-867-4131
자광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649 자광사	042-822-9219
보현불교대학	대전광역시 동구 대1동 207-13	042-624-6555
법왕사보현불교대학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1726번지 (법왕사)	041-544-5336
세계정토불교대학원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259-1 (정암사)	043-651-2361~4
강원불교대학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1가 78-45 석왕사	033-251-5040
경북불교대학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2동 로얄상가 5층	054-632-8226
부산불교문화대학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54 약불사內	051-637-2271~2
동국불교전법대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2동 62-398	051-642-6242
불교복지보건대학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3-16(5층)	016-563-1080
부산불교전법대학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12-23번지 호상빌딩4층	051-467-4665
금화사불교대학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2동 201-1	051-582-3042
대한불교교사대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157-1 (부산불교회관 5층)	051-852-0852
만불불교교양대학	안해진	051-524-7364
울산시민불교대학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482-109	052-252-8666
금강불교대학	경상남도 창원시 동정동 777 연세조경원	055-253-0108

인도 코살라국의 부유한 바라문 집안 출신으로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한 날 한 시에 태어났다. 어릴 적에 이미 4베다와 학문에 통달하였지만 속세를 떠나 수도하던 중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아라한이 된 뒤 부처님의 법을 널리 설하여 중생을 교화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언변이 뛰어나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설법제일'로 알려졌다.

34. '회삼귀일(會三歸一)'을 중심사상으로 하며, 중국에서 천태지의 대사가 천태종의 소의경전으로 삼은 경전은?

35. 섭대승론에서는 해탈을 이루는데 있어 3가지 선정인 3해탈문(三解脫門)을 설명하고 있다. 3해탈문의 종류를 나열하시오.

36. 대승불교 계율정신의 실천 덕목은 3취정계(三聚淨戒)에 중심을 두고 있다. 3취정계를 나열하시오.

37. 기둥이 아래서 위로 곧바로 직선으로 뻗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가운데를 불룩 부풀게 하고 윗부분을 좁게 마무리하여 팽팽한 탄력감을 느끼게 하는 기둥으로, 부석사 무량수전의 기둥이 대표적이다.
이 기둥의 이름은?

38. 선법의 최초 전래인 삼처전심(三處傳心)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39. 종교는 '신성함'으로 특징을 지으면서 신앙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신성함'을 내포한 종교는 '성스러움'을 본질로 하고 있기에 '종교의 성역화'라는 말이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불교가 내포한 '성스러움'은 '성(聖)'과 대비하여 볼 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40. 성보 문화재로 불리는 불교문화재는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성보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견해를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정답

1.① 2.③ 3.① 4.④ 5.① 6.③ 7.② 8.③ 9.② 10.③
11.④ 12.④ 13.③ 14.①-다 ②-라 ③-가 ④-나 15.③ 16.② 17.④
18.⑤ 19.③ 20.③
21.① 22.② 23.④ 24.③ 25.② 26.① 27.② 28.④ 29.① 30.③

31. 부도
32. 사음, 악구, 진에
33. 부루나
34. 법화경
35. 공(空), 무상(無相), 무원(無願)
36. 섭률의계(攝律儀戒), 섭선법계(攝善法戒), 섭중생계(攝衆生戒)
37. 배흘림 기둥

38. 부처님께서 세 곳에서 가섭에게 법을 전한데서 유래한 말.
첫째, 염화시중(拈花示衆)의 미소(微笑)란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연꽃 한송이를 들고 아무런 말도 없이 있을 때 모인사람들은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했으나, 가섭만이 그 뜻을 알고 미소를 지었다.
둘째, 다자탑전 분반좌(多子塔前 分半座)란 부처님께서 일찍이 가섭을 알아보고 다자탑
앞에서 자리의 반을 내주어 나누어 앉음을 말한다.
셋째, 곽시쌍부란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가섭이 나중에 오니 관속에서 두발을 내밀어 마음을 전한 것을 말한다.

39. 불교는 무신주의(無神主義)이면서 유심주의(唯心主義)에 본질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신(神)과 관련된 '성스러움'으로 신앙체계를 갖지 않는다. 오히려 '성스러움'의 뜻을 부정과 오염된 것으로부터 또 다른 신성함과 성스러움을 띤 영역을 설정하여 이원화(二元化)로 보지 않으며 청정(淸淨)으로 성(聖)을 관계지으면서, '올바른 것'인 '정(正)'을 성(聖)의 내용으로 삼는다.
이 점은 여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성스러움'의 본질을 명백하고 자명하게 드러내고 있기에 타 종교와 다른 점으로 내세우며, 궁극적 목표도 '올바른 것'인 '정(正)'을 체현하므로 각(覺)을 이루고 일체 고(苦)에서 해탈 열반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40. 우선 불교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 문화와 사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또한 복원과 관리는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연구 검토 후에 이뤄져야 한다. 사찰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굴과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 불교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정부 및 종단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며, 성보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적 · 물적 기반도 다져져야 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 · 737-8881(대)

모의고사 (제1회분 · 시간 70분)

1. 다음 중 불전 사물이 아닌 것은?
① 운판 ② 범종 ③ 풍경 ④ 법고

2. 기도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참회하는 마음
② 분별하는 마음
③ 자비로운 마음
④ 부처님의 가피에 대한 믿음

3. 부처님의 부촉을 받아 도리천에서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고 무불세계(無佛世界)의 육도중생을 교화하며,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기 전에는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운 대비원력의 보살이다. 어떤 보살에 대한 설명인가?
① 관세음보살 ② 지장보살 ③ 대세지보살
④문수보살 ⑤ 보현보살

4. 불교가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신도조직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불교에 우호적인 전문인과 생활인의 조직화
② 개인의 종교 체험을 위한 불교 의식 개발
③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활동 등 실천 활동 강화
④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 포교활동 강화

5.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을 때 뒤늦게 찾아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두 발을 내 보이셨다. 이때 뒤늦게 찾아 온 제자는?
①교진여 ②사리불 ③아난다 ④마하가섭

6. 빔비사라왕이 부처님께 귀의한 후 승단을 위해 지어 시주한 수행처는?
① 화엄동산 ② 기원정사 ③죽림정사 ④녹야원

7. 다음 중 우리나라 근현대 시대에 활동한 선승이 아닌 인물은?
① 만공 ②학명 ③범해 ④전강

8. 다음중 사섭법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보시 ②지계 ③애어 ④이행

9. 다음 중 사찰 예절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일주문을 들어서면서 합장 반배를 한다.
② 법당을 출입할 때는 중앙의 어간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법당에 들어가면 하단에서부터 초와 향을 먼저 사르고 절을 한다.
④ 산신각 등 대웅전 이외 전각에는 제사나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출입하지 않는다.

10. 다음 중 사부대중과 관계없는 것은?
① 비구 ②비구니 ③행자 ④우바이

11.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최초로 설법하신 내용은?
① 육바라밀과 십이연기 ②사섭법과 육근
③ 사성제와 팔정도 ④ 삼법인과 육경

12. 부처님의 명호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응공 : 무엇보다 위에 계신 분
② 정변지 : 모든 이치를 바르게 깨달은 분
③ 명행족 : 마땅히 공양을 받아야 할 분
④ 무상사 : 깨달음과 실천을 함께 갖춘 분

13. 불교가 베다나 바라문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베다의 영향을 받은 사상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인과응보사상
② 윤회의 관념
③ 무지와 고 및 지와 해탈
④ 연기사상

14. 전남 해남 대흥사 천불전은 매우 유명하다. 이 천불전의 옥석으로 조성한 천불상은 삼존불을 장엄하고 있다. 이 삼존불의 조성 재료는 무엇인가?
① 돌 ② 나무 ③ 옥석 ④ 철

15. 충남 서산군에 있는 백제시대 작품으로 1958년 발견되어 보물 제432호로 지정, 보호되어 오다가 2004년 8월 30일부로 국보 제307호로 지정된 보물은?
① 경주 남산 ② 팔만대장경
③ 태안 마애삼존석불 ④ 불국사 석굴암

16. 비로자나부처님의 수인으로, 중생과 부처가 하나임을 나타내고 있는 수인은?
① 사무외인 ② 여원인
③ 지권인 ④ 전법륜인

17. 불교에서는 우주의 생성과 전개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① 브라흐만의 위신력 ② 중생의 업력
③ 만유인력 ④ 지수화풍

18. 다음 중 사찰의 어원과 의미의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① 범어 상가람마의 어원으로 화합승단을 의미한다.
② 몸과 마음이 청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청정원(淸淨院)이라 한다.
③ 저절로 와서 절하고 가는 곳이라고 하여 절이라고 한다.
④ 온갖 세속적인 갈등과 번민을 초월한 집으로 출세사(出世舍)라 한다.

19. 해인사 팔만대장경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① 몽고의 침임으로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자 고종 23년(1236)에 조판한 것이다.

②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조판한 대장경이다.
③ 경판의 총수가 81, 258개이므로 팔만대장경이라 한다.
④ 조선초까지 강화도 선원사에 보관하다가 합천 해인사로 옮겼다.

20. 다음은 불기(佛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불기는 네팔에서 열린 제 4차 세계불교도대회에서 결정되었다.
② 제 4차 세계불교 대회가 열린 그 해(1956년)를 불기2500년으로 정했다.
③ 부처님 탄생 년도를 불기 1년으로 결정하였다.
④ 실제로 부처님의 탄생연도는 기원전 628년이 된다.

21. 우리나라 구산선문 중 무염 스님의 사상을 계승했던 산문은?

① 가지산문 ② 사굴산문
③ 성주산문 ④ 봉림산문

22. 다음은 사성제의 가르침이다. 설명이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사성제는 바라문사상에 있는 내용을 불교적인 입장에서 재해석했다.
② 사성제중 고성제는 팔고(八苦)를 말하는데 생로병사와 애별리고 · 구부득고 · 원증회고 · 오음성고를 말한다.
③ 사성제는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설한 최초의 법이다.
④ 사성제 중 멸성제는 해탈 · 열반을 말하고 도성제는 팔정도를 말한다.

23. 다음은 대승보살도의 수행인 육바라밀이다.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육바라밀은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지혜 바라밀을 말한다.
②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마침내는 나와 남을 파멸한다. 이러한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 보시바라밀을 수행한다.
③ 보시바라밀은 재시 법시가 전부이다.
④ 보시바라밀은 세 가지가 청정해야 되는데 즉 주는 자 · 받는 자 · 물건이다. 이것을 삼륜청정이라 한다.

24. 중생이 무명(無明)에 의해서 삼세(三世)에 걸쳐 윤회하는 것을 12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 십이연기설이다. 이중 유전연기(流轉緣起) 또는 환멸연기(還滅緣起)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유전연기 : 수(受)→촉(觸) ②환멸연기 : 유(有)→생(生)
③환멸연기 : 무명(無明)→행(行) ④유전연기 : 식(識)→명색(名色)

25. 업감연기론(業感緣起論)에서는 삼세육도 윤회하는 근본의 연기주체를 업(業)이라고 한다. 이중 표업(表業)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구업(口業) ②현재적 행위 ③3업(三業) ④사이업(思已業)

26. 아뢰야식연기론(阿賴耶識緣起論)에서 아뢰야식의 뜻과 다르게 설명한 것은?

①장(藏)의 뜻을 지니고 있다.
②능장(能藏)과 소장(所藏)으로 되어 있다.
③사량식(思量識)이라고도 한다.
④이숙식(異熟識)이라고도 한다.

27.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단군신화가 기록되어 있다.
② 불교 인물들과 이야기를 많이 담은 역사서적이다.
③ 고려 충렬왕 때 일연 스님이 편찬하였다.
④ <삼국사기> 보다 먼저 편찬되었다.

28.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수행하는 과정을 42단계로 설하고 있는데 그 중 십주(十住)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발심(發心) ② 환희(歡喜) ③ 치지(治地)
④ 생귀(生貴) ⑤ 동진(童眞)

29. 다음 중 각 종교의 교리가 맞지 않는 것은?

① 불교 – 연기법 · 사성제 · 삼법인
② 기독교 – 성본주의(聖本主義)
③ 유교 – 인(仁) · 의(義) · 예(禮) · 지(智) · 신(信)
④ 이슬람교 – 육신오행(六身五行)

30. 고봉 원묘 선사의 <선요>에서는 화두를 들고 참선수행을 할 때 갖춰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대신심(大信心)
② 대분심(大憤心)
③ 대의심(大疑心)
④ 대가피(大加被)

31. 니르바나(nirvana)라는 범어의 음역으로 한자로는 멸(滅) · 적멸(寂滅) · 멸도(滅度) · 적(寂)이라고 하고 해탈과도 같은 것으로 활활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완전히 꺼버리고 깨달음, 즉 보리를 완성한 경지를 말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32. 총림(叢林)은 선원(禪院) · 강원(講院) · 율원(律院)이 있는 종합 수행도량이다.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에는 5군데 총림이 있다. 총림의 이름과 사찰명을 쓰시오.

33. 부처님께서는 여덟까지 괴로움(팔고)에 대해 말했다. 그 중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을 무엇이라고 하나?

34. 불교의 가르침을 함축하여 표현하는 운문체의 짧은 시구를 무엇이라 하는가?

③ 부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 가르치신 진리이다.
④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다.

20. 다음 중 승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산스크리트어의 '상가'의 음을 따서 옮긴 말이다.
②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③ 비구들의 교단이라는 뜻이다.
④ 고대 인도에서는 본래 '공화국'이나 '조합'을 뜻하는 말이었다.

21. 다음 중 원효대사가 여러 가지 대립된 학설을 회통하고자 저술한 책은?

① 십문화쟁론
② 금강삼매경론
③ 대승기신론소
④ 판비량론

22. 다음 중 사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고대 인도에서 출가한 수행자들을 통틀어 일컬었던 말이다.
② 부처님을 따르는 수행자들만을 일컫는 말이다.
③ 바라문이나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수행자들이다.
④ '모든 악을 종식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23. 다음 중 보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산스크리트어 '보디사트바'의 준말이다.
②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③ 성도하기 전의 부처님이나 전생의 부처님을 가리킨다.
④ 부처님을 보좌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분들만을 가리킨다.

24. 부처님께 출가한 사람으로 순서가 바른 것은?

① 교진여 – 목건련 – 사리불 – 마하파자파티
② 야사 – 야사부모 –교진여 – 가섭3형제
③ 교진여 – 야사부모 –가섭3형제 – 마하파자파티
④ 야사부모 – 교진여 –마하파자파티 – 가섭3형제

25. 고대 인도에서 정통 출가 수행자의 사의지(四衣止)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분소의 ② 안거 ③수하좌 ④ 부란약

26.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고려 고종이 강화도에서 대장도감본사와 진주에 분사를 설치하고 대장경 제조에 착수하였으며, 고려 재조대장경 또는 팔만대장경이라고도 한다.
② 서기 1236년부터 16년간에 걸쳐 제조하여 1251년(고종38년) 10월 11일에 완성하였다. 이날을 기념하여 오늘날 '책의 날'로 정하여 경축하고 있다.
③ 팔만대장경은 해인사 장경각에 보관되어 있으며 고려판 대장경이다. 1,511부 6,802권 81,258판이며 한판이 양면으로 되어 있어 안팎으로 총 162,516면이다. 일면은 33항(줄)이고 일항(줄)은 14자이고 1판의 한 끝에 경명, 권수, 장수를 천자문으로 함호를 새겼다.
④ 진호국가의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반야경이 팔만대장경의 서두에 위치하여 대장경을 여는 경전으로 각인되어 있고, 불교국가에 대한 문화국가로서 국위선양과 인쇄 및 출판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27. 헌혈이나 장기기증을 통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육신을 보시함으로써 고통속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대승보살도 실천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① 불교환경연대 ② 생명나눔실천본부
③ 맑고 향기롭게 ④ 참여불교재가연대

28. 염불(念佛)이란 부처님을 염하는 수행이다. 그 내용이 바르지 않는 것은?

① 염불수행의 원형으로 염불(念佛), 염법(念法), 염승(念僧)이 있다. 불교의 일반적인 방법이다.
② 깊은 삼매에 들어 아미타불을 염하면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해 죄가 소멸되고 부처님을 보며 극락왕생한다는 염불은 정토종의 염불이다.
③ 정토염불에는 칭명염불과 관상염불이 있는데, 칭명염불에는 정심(定心)염불, 산심(散心)염불의 구분이 있고 횟수를 세는 염불과 시간을 정하는 염불법이 있다.
④ 관상염불은 아미타불에 생각을 응집시켜 그 광대한 구제의 대비 원력에 의해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16관법으로, 수행법은 주로 아미타경에 의한다.

29. 사천왕의 방위와 지물의 관계가 틀린 것은?

① 동–지국천 – 여의주 ②남–증장천 – 칼
③ 서–광목천 – 용 ④ 북–다문천 – 탑

30. 다음 중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통도사, 상원사, 봉정암, 건봉사, 법흥사
② 통도사, 부석사, 봉정암, 보문사, 법흥사
③ 통도사, 상원사, 봉정암, 법흥사, 정암사
④ 통도사, 상원사, 봉정암, 부석사, 건봉사

31. 고승대덕이 입적하면 다비를 한 후 그 사리를 수습하여 묘탑을 세웠다. 최근에는 불탑에 대비하여 승탑이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돌로 되었고 겉에는 불교 관련 무늬들을 새겼다. 이것을 부르는 관용적 명칭은?

32. 다음 천수경의 십악참회 중 ( )을 채우시오.
"살생중죄금일참회 투도중죄금일참회 ( )중죄금일참회 망어중죄금일참회 기어중죄금일참회 양설중죄금일참회( )중죄금일참회 탐애중죄금일참회 ( )중죄금일참회 치암중죄금일참회

33.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부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모의고사 (제4회분 · 시간 70분)

1. 불교의 인사법인 합장에 담긴 의미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항상 상대방에게 복종하겠다는 표시이다.
② 나와 너의 마음이 하나의 진리 위에 서로 만났음을 뜻한다.
③ 존경과 감사, 진실과 자비의 마음을 뜻한다.
④ 흩어진 생각과 마음을 한곳으로 집중하는 의미가 있다.

2. 법신불의 덕목이 아닌 것은?
① 계향 ② 정향 ③ 해탈지견향 ④ 광명향

3. 다음중 화신불은?
① 석가모니불 ② 비로자나불 ③ 노사나불 ④아미타불

4. 오체투지(五體投地)의 예는 자신을 무한히 낮추면서 상대방에게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몸의 동작으로서 가장 경건한 예법인데, 여기서 땅에 닿아야 할 몸의 다섯 부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양 팔꿈치 ② 양 무릎 ③ 이마 ④배

5. 정신 일반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색 ② 수 ③ 상 ④ 행

6. 아미타불의 정토는?
① 미륵정토 ② 약사정토 ③ 극락정토 ④ 화엄정토

7.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는?
①신라 의상대사 ②신라 도의국사
③고려 보우국사 ④고려 보조국사

8. 경주 분황사의 국보 제30호로 지정되어 있는 탑의 정확한 이름은?
① 구층목탑
② 구층석탑
③ 구층모전석탑
④ 구층전탑

9. 대승불교가 스스로 대승, 즉 큰 수레라고 칭한 이유는 무엇인가?
① 큰 수레에 타고 이동하였으므로
② 출가자와 재가자를 막론하고 성불에 이르게 하므로
③ 승가의 중심이 되는 출가자 중심이므로
④ 출가자 재가자를 모두 배제하므로

10. <법화경> 법사품에 나오는 법사의 자세가 아닌 것은?
① 대자비심(大慈悲心) ② 일체법공(一切法空)
③ 대분심(大忿心) ④ 유화인욕(柔和忍辱)

11. 금강경에서 나오는 4상이 아닌 것은?
① 아상 ② 인상
③ 중생상 ④ 보살상

12. 보시를 행할 때는 삼륜이 청정해야 한다고 한다. 삼륜청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주는 자 ② 받는 자
③ 주고받는 물건 ④ 주고받는 장소

13. 다음 ( )안에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진리의 본체라는 뜻으로 부처님께서는 참다운 이치를 깨달은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진리의 몸이기 때문에 ( )이라고 한다.
( )은 보살로서 수행하고 있을 적에 세운 원력과 수행의 결과로 나타난 한량없는 공덕의 몸을 받는 부처님을 말한다.
( )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그 모습을 직접 나타낸 부처님을 말한다.
① 보신불 – 화신불 – 법신불
② 법신불 – 화신불 – 보신불
③ 법신불 – 보신불 – 화신불
④ 보신불 – 법신불 – 화신불

14. 부처님의 생애를 말할 때 불시사상(佛示思想)이라 하여 그 성지(聖地)와 관련하여 설명되기도 한다. 각각 해당되는 것과 연결하시오.

① 탄생	가)바라나
② 성도	나)구시라
③ 설법	다)가비라
④ 열반	라)마갈타

15. 지루가참(支婁迦懺)이 번역한 소품(小品)반야경 이역(異譯)으로 불리는 경전은 다음에서 어느 경전인가?
① 금강경(金剛經) ②반야심경(般若心經)
③도행반야경(道行般若經) ④대반야경(大般若經)

16. 설법을 듣기전 산란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하는 순서는?
① 청법 ②입정 ③축원 ④사홍서원

17.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보처로 지혜가 뛰어난 공덕을 지닌 보살이다. 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청련화를 쥐고 있으며 사자를 타고 있는 이 보살님의 이름은?
①보현보살 ②미륵보살
③보적보살 ④문수보살

18. 부처님은 연기법(緣起法)을 깨닫고 인생고(人生苦)를 구제하는 진리를 설했다. 12연기의 순관에서 잘못된 것은?
①무명(無明) ②행(行) ③식(識) ④명색(名色)
⑤육정(六情) ⑥촉(觸) ⑦수(受) ⑧애(愛) ⑨취(取)
⑩유(有) ⑪생(生) ⑫노병사(老病死)

19. 다음 중 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산스크리트어 '다르마'를 한자로 옮긴 말이다.
② 보편적인 진리라는 뜻이 있다.

35. 부처님 가르침을 경전화한 목적을 4가지로 추려 써 보세요.

36. 불교교리의 용어 중 중생(衆生)과 유정(有情)이 혼용되고 있다. 다음 중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불교교리에 중생과 유정이라는 용어가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혼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이 중국으로부터 전해져 한역본으로 번역될 때 신역의 대가인 현장법사가 한역본을 출간하기 이전에는 ( )이라 해석하고, 현장법사 이후의 새로운 해석에서는 ( )이라 하였다고 불교사전에 기록돼 있다.

37. 한역 4아함경 명칭을 쓰시오.

38. 대승불교의 실천은 '보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보시를 설명하시오.

39. 한국불교의 포교방향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40. 한국 탑은 어떤것이 있고, 주종은 몇 층탑이며, 그 중 가장 뛰어난 탑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답

1.③ 2.② 3.② 4.④ 5.④ 6.③ 7.③ 8.② 9.④ 10.③
11.③ 12.② 13.④ 14.② 15.③ 16.③ 17.② 18.③ 19.② 20.③
21.③ 22.① 23.③ 24.④ 25.③ 26.③ 27.④ 28.② 29.② 30.④

31. 열반
32. 조계총림– 송광사, 고불총림–백양사, 영축총림–통도사, 해인총림–해인사, 덕숭총림–수덕사
33. 애별리고
34. 게송
35. 불설의 통일, 불설의 유실방지, 불설의 왜곡방지, 불설의 보전 및 전승
36. 중생, 유정
37. 장아함(長阿含) · 중아함(中阿含) · 잡아함(雜阿含) · 증일아함(增一阿含)

38. 옛날 인도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베풀어 주면 그 공덕으로 자신에게 좋은 과보가 돌아온다고 믿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수행자들을 만나면 자신의 복을 짓게 해준다고 믿고 기쁜 마음으로 베풀어주었다. 까닭에 도움을 받는 사람을 복전 또는 복밭이라고 했다. 불교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보시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보이신 연민과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에게 항상 연민과 사랑의 마음인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보시이다
보시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재시 : 재물을 베풀어 주는 것
2) 법시 :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주는 것
3) 무외시 : 두려움을 없애 주는 것
자기 것을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과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시는 자신의 것을 남에게 기쁜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다. 보시는 우리의 집착과 그로 인해 생긴 모든 번뇌를 없애주는 길이기도 하다. 탐욕을 버리는 가장 좋은 길은 첫째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요, 둘째 행동으로 나의 것을 남에게 베풀어 주는 마음이라 한다.

39. 어린이 · 군부대 · 경찰 , 농 · 어촌 등 각자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면 됨.

40. 한국의 탑에는 목탑, 전탑, 모전석탑, 석조탑, 금동탑 등이 있고, 주종은 3층석탑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3층석탑 이라면 통일신라시대 불국사 경내에 조성된 다보탑(국보20호)과 석가탑(국보21호)이라 하겠다.
다보탑과 석가탑이 나란히 둘로 앉아있게 조성된 것은 <법화경>의 '견보탑품' 에 의한 것이며 석가탑은 석가여래의 상주설법의 상, 다보탑은 다보여래상주증명의 상에 따른 것이다. 즉 다보여래와 석가여래가 동서로 나란히 앉아 하나는 설법하고 하나는 증명하는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석가탑은 1966년 10월 개보수 공사 시 이층 탑신부의 사리함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되었고, 측천무후의 글자가 있어 세계최고의 오래된 목판인쇄물로 인정되어 국보 제126호로 지정되어 있다.
석가탑의 축조구조는 크게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기단부는 이층이고 탑신부는 옥개석 받침이 있는 옥개석 지붕형이 3층이고 상륜부는 위로부터 아래로 찰주, 보주, 용차, 수연, 보개, 보륜, 앙화, 복발, 노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탑은 전통적으로 층수는 3층, 각은 4각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층수는 홀수층 각은 짝수각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관례이다.
다보탑은 세련되고 정교함이 신라귀족들의 화려한 예술성을 나타내고 있어 여성적인 미를 보여주고, 석가탑은 단순함과 안정감이 조화된 남성적인 미로 신라지배층의 부귀영화가 지속되기를 기원했던 신앙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모의고사 (제2회분 · 시간 70분)

1. 다음 중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① 인도 북부의 카필라에서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서 태어나셨다.
② 석가족 사람으로서 성은 고타마이며 이름은 싯다르타이다.
③ 성도하신 뒤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법을 설하셨다.
④ 바이샬리에서 사부대중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열반에 드셨다.

2. 다음은 부처님의 십대제자에 대한 설명이다. 누구에 대한 설명인가?
'부처님께 귀의한지 8일만에 바른 지혜의 경지 즉 아라한(阿羅漢)의 과위를 증득한 그는 항상 의식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심신을 수련하는 두타행을 행하였으며, 으뜸가는 제자로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후 불교교단을 운영하게 되었다. 부처님 입멸 후 500명의 제자들을 모아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經) · 율(律)을 결집하였다. 선가(禪家)에서는 부처님 법을 전한 제1조 조사로 받들고 있다.'

① 사리불-지혜제일
② 수보리-해공제일
③ 마하가섭-두타제일
④ 우버리-지계제일

3. 한량없는 광명의 부처님, 한량없는 생명의 부처님이라는 의미로 중생의 번뇌의 어둠을 밝히고 한량없는 생명을 지닌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부처님은?

① 시기불 ② 아미타불 ③ 비바시불 ④ 문수보살

4. 불교신도로서 지녀야 할 근본적인 생활 자세는?

① 매일같이 사찰을 참배하여야 한다.
② 하루에 사분정근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③ 삼보를 굳게 믿고 자리이타행을 실천한다.
④ 가정에서도 발우공양을 실천해야 한다.

5. 선종의 제 6대조인 혜능은 신주에서 태어나 세살 때 부친을 잃고 가난하게 자랐는데 어느 날 나무를 짊어지고 팔러 다니는 중 다음의 경전 읽는 소리를 듣고 출가를 결심하였다. 그 경전은 무엇인가?

① 화엄경 ② 열반경 ③ 법화경 ④ 금강경

6. 다음은 대승불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① 많은 사람을 구제하여 태우는 큰 수레라는 뜻으로, 일체중생의 제도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② 인도에서 시작하여 동남아쪽으로 간 불교로 자기 스스로의 해탈을 추구한다.
③ 자기만의 구제보다는 이타(利他)를 지향하는 보살의 역할을 그 이상(理想)으로 삼고 광범위한 종교 활동을 하였다.
④ 석가에게만 한정하던 보살(菩薩)이라는 개념을 넓혀 일체중생의 성불(成佛)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7. 다음은 포교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① 불법을 널리 홍포하여 중생을 교화한다.
② 지혜와 자비의 불타정신을 사회에 구현한다.
③ 불국정토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사설포교당을 설립하고 운영한다.

8.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석가는 성이고 모니는 이름이다.
② 모니는 성이고 석가는 이름이다.
③ 석가모니는 석가족 출신의 위대한 왕자라는 뜻이다.
④ 석가모니는 석가족 출신의 위대한 성자라는 뜻이다.

9. 여래십호(如來十號) 중 '역사와 사회속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세간사를 꿰뚫음과 아울러 형이상학적인 고도의 철학적 원리를 깨달아 고통받는 사람을 구제해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밝힌다'는 뜻을 갖는 것은?

① 응공 ② 정변지 ③세간해 ④ 무상사

10.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 하늘세계의 천인들을 제도하고 수행하시던 곳은?

① 사왕천 ② 도리천 ③ 야마천 ④ 도솔천 ⑤ 화락천

11. 부활된 승과고시에 급제하여 선교양종판사를 지내고 봉은사 주지를 맡은 바 있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군을 조직할 것을 제안하고 친히 격문을 돌려 구국에 앞장선 스님은?

① 서산 휴정스님 ② 사명당 유정스님
③ 허응당 보우스님 ④ 태고 보우스님

12. 다음 중 발우공양을 할 때 소심경의 주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부처님을 회상하면서 그 공덕을 찬탄, 공경, 예배하는 마음.
②모든 중생의 노고와 은혜를 고맙게 여기는 감사하는 마음.
③조금도 낭비없이 철저히 위생적으로 청결 공양하겠다는 마음.
④배고픈 중생과 함께 평등히 나누어 먹겠다는 자비의 마음.

13. 사원의 구조에 있어서 문(門)의 순서를 가장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일주문→해탈문→사천왕문→불이문
② 일주문→사천왕문→해탈문→불이문
③ 일주문→불이문→사천왕문→해탈문
④ 일주문→사천왕문→불이문→해탈문

14. 다음중 소승불교, 대승불교, 비밀불교, 선불교 중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잘 짜여진 것은?

① 소승불교 - 이욕해탈(離欲解脫)
② 대승불교 - 신앙해탈(信仰解脫)
③ 비밀불교 - 무심해탈(無心解脫)
④ 선불교 - 자비해탈(慈悲解脫)

15. 다음은 불교의 4대 명절이다. 1년 중 다가오는 순서가 올바른 것

의 순서로 함(函)의 호수를 정하여 분류 · 배치하고, 권차(卷次)와 정수(丁數)의 순으로 가장(架藏)하였다.'

33.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경전은?

(　　)은 한자 270자의 아주 짧은 경전이지만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경전으로 꼽혀서 대승 불교권에서는 가장 많이 독송되는 경전이다. 불교 의식 때 거의 반드시 독송한다.

34. 삼업(三業)과 그에 따른 십선업(十善業)을 구분하여 단답하시오.

35. 불교의 계율은 청정한 삶을 유지하여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 가운데 살생을 금지한 불살생계는 가장 중시되는 계율이라 할 수 있다. 이 불살생계를 적극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행하는 일을 무엇이라 하는가?

36. 십이연기를 해석하는 관법으로 순관(順觀)과 역관(逆觀)이 있다. 순관은 연생법(緣生法)이라 하고 역관을 연멸법(緣滅法)이라 하는데, 이러한 연기법을 각각 무슨 연기라고 하는지 기술하시오.

37. 칠불통계(七佛通戒)를 설명하시오.

38. 승가에 대해 서술하시오.

39. 팔정도(八正道)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40. 묘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정답

1.② 2.② 3.④ 4.② 5.③ 6.② 7.② 8.④ 9.② 10.④
11.④ 12.④ 13.③ 14.③ 15.② 16.④ 17.① 18.④ 19.⑤ 20.②
21.① 22.③ 23.①-나 ②-라 ③-가 ④-다 24.② 25.① 26.② 27.④
28.③ 29.① 30.③

31. 윤장대
32. 고려대장경
33. 반야심경

34. 삼업(三業) 신(身) 구(口) 의(意) 십선업(十善業)

신업(身業)-불살생(不殺生) 살생하지 말 것.
　　불투도(不偸盜) 훔치지 말 것.
　　불사음(不邪淫) 삿된 관계를 갖지 말 것.

구업(口業)-불망어(不妄語)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할 것.
　　불양설(不兩舌) 이간질 하지 말고 화합할 것.
　　불악구(不惡口) 욕설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로 대할 것.
　　불기어(不綺語) 아첨하는 말을 하지 말고 바른말을 할 것.

의업(意業)-불탐(不貪):탐욕을 버리고 너그러운 생활을 할 것.
　　불진(不瞋):성내지 말고 이해하고 화합할 것.
　　불치(不癡):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바른 견해로 생활할 것.

35. 방생
36. 유전연기(流轉緣起) 환멸연기(還滅緣起)
37. 제악막작(諸惡莫作) 모든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중선봉행(衆善奉行) 모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의(自淨其意) 스스로 마음가짐을 깨끗이 하라.
　시제불교(是諸佛敎)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38. 승가는 화합된 무리가 집단의식을 구현하는 곳이며 또한 불법에 의하여 질서가 유지되는 조직을 의미한다. 즉, 불교에 귀의하였다고 해서 교단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원시불교시대에는 비구(比丘) · 비구니(比丘尼) · 우바새(優婆塞) · 우바이(優婆夷)로 승가가 구성되었으며, 이 중 우바새와 우바이는 재가(在家) 남자신도와 여자신도를 각각 일컫는다.

39. 팔정도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맨 처음 설법하신 사성제 가운데 도성제에 해당되는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없애고 열반에 이르는 길로서 팔정도, 즉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보여 주셨다.
바른 견해[正見], 바른 사유[正思惟], 바른 말[正言], 바른 행위[正業], 바른 생활[正命], 바른 노력[正精進], 바른 마음챙김[正念], 바른 선정[正定]이 그것이다. 팔정도는 불교 수행의 요체로서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의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수행 내용에 따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삶과 사물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며, 둘째는 바른 견해에 근거하여 실천적 노력을 하는 것이며, 셋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체험하는 수행이다.

40. 서경(西京)의 승려로서 인종13년(1135)에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금(金)에 대항해서 정금론(征金論)을 주장하고 칭제건원(稱帝建元)을 내세우면서 서경천도를 꾀하려는 웅대한 포부까지 내걸었으나 개경파인 김부식(金富軾) 일파에게 진압되었다.

④보명의 것이나 곽암의 것이나 모두 그림은 원상을 그리고 그 안에 열 단계를 묘사하고 있다.

17.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일을 한다' '함께 힘을 기울인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하는 일' 이라는 의미를 가진 수행의 한 방편은?

①울력 ② 사경 ③ 도량석 ④ 포살

18. 다음 중 12연기를 바르게 풀어 놓은 것은?

① 무명(無明)-행(行)-식(識)-명색(名色)-촉(觸)-육입(六入)
② 애(愛)-수(受)-취(取)-유(有)-생(生)-노사(老死)
③ 명색(名色)-육입(六入)-촉(觸)-애(愛)-수(受)-취(取)
④ 육입(六入)-수(受)-애(愛)-취(取)-유(有)-생(生)
⑤ 무명(無明)-식(識)-행(行)-명색(名色)-육입(六入)-촉(觸)

19. 다음 중 중국의 선맥(禪脈)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홍인 - 혜능 - 남악 - 석두
② 신수 - 청원 - 석두 - 마조
③ 달마 - 혜가 - 도신 - 승찬
④ 도신 - 홍인 - 혜능 - 신수
⑤ 혜능 - 남악 - 마조 - 지장

20. 고려시대 승정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않은 것은?

① 광종 9년에 처음으로 과거제도를 시행하였다.
② 승과는 종파별로 시행되었으나 승계체계는 동일하였다.
③ 수행기간과 능력에 따라서 상위의 승계로 승진하였다.
④ 승계를 가진 승려가 중요한 계율을 어길 때에는 승계는 물론이고 승려로서의 신분을 박탈당했다.
⑤ 불교와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승록사(僧錄司)를 두었다.

21. 불교의 사상적 요체는 지혜의 구현과 자비의 실천에 있다. 그렇다면 다음에서 삼종자비(三種慈悲)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불연(佛緣)자비 ②법연(法緣)자비
③중생연(衆生緣)자비 ④무연(無緣)자비

22. 다음 발보리심(發菩提心) 가운데서 삼대(三大) 보리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호법발원심(護法發願心) ②무량대비심(無量大悲心)
③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 ④청정범행심(淸淨梵行心)

23. 유식사상(唯識思想)과 지혜의 성취 중 연관성이 있는 것끼리 연결시키시오.

①전오식(前五識)	가)평등성지(平等性智)
②의식(意識)	나)성소작지(成所作智)
③말나식(末那識)	다)대원경지(大圓鏡智)
④아뢰야식(阿賴耶識)	라)묘관찰지(妙觀察智)

24. 천태삼대부(天台三大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법화문구(法華文句) ②법화경(法華經)
③마하지관(摩訶止觀) ④법화현의(法華玄義)

25. 불교경전의 교리적 발달과정을 보면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의 방향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은 다음의 어느 계통에 속하는 것인가?

①대승시교(大乘始敎) ②대승원교(大乘圓敎)
③대승돈교(大乘頓敎) ④대승종교 大乘終敎)

26. 일반적으로 보리에는 삼종보리가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①진성보리(眞性菩提) ②명심보리(明心菩提)
③방편보리(方便菩提) ④실지보리(實智菩提)

27.다음 중 법패와 관련 없는 용어는?

① 홑소리 짓소리 ②상주권공
③ 안채비 바깥 ④도드리

28. 조계종 총무원장・교육원장・포교원장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법장 스님-무비 스님-도영 스님
②정대 스님-청화 스님-정련 스님
③법장 스님-청화 스님-도영 스님
④정대 스님-무비 스님-정련 스님

29. 백제가 일본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래시킬 때 가지고 갔다고 전해지는 경전은?

① 금강명경
② 화엄경
③ 법화경
④ 금강경

30. 경찰 포교, 유치인 선도, 청소년 선도 등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는?

①군승단 ②파라미타 ③경승단 ④포교사단

31. 경전을 넣는 책장에 축을 달아 회전하도록 만든 나무로 된 책장으로 이것을 돌리기만 하면 경전을 독송하는 것과 같은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예천 용문사에 있는데 이것의 명칭은?

32.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쓰시오.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32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경판은 8만 1258판이다. 8만여 판에 8만 4000번뇌에 해당하는 법문이 실려 있다.1237년(고종 24)부터 16년간에 걸쳐 고려에 침입한 몽골군의 격퇴를 발원(發願)하여 대장도감(大藏都監)과 분사도감(分司都監)을 두어 만든 것이다. 경판고 안에 5층의 판가(板架)를 설치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판가는 천지현황(天地玄黃) 등의 천자문(千字文)

은?

① 부처님 오신날 → 출가재일 → 성도재일 → 열반재일
② 출가재일 → 부처님 오신날 → 열반재일 → 성도재일
③ 부처님 오신날 → 성도재일 → 출가재일 → 열반재일
④ 출가재일 → 열반재일 → 부처님 오신날 → 성도재일

16. 포살(布薩)이라는 의례는 보름과 그믐날 비구들이 한 곳에 모여 계율의 각 조항을 소리 내어 읽고 지은 죄를 참회하는 것이다. 이 포살일에 재가 불자도 계(戒)를 지키고 설법을 듣고 대중공양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데 다음에 해당되는 것은?

① 오계(五戒)
② 십선계(十善戒)
③ 팔재계(八齋戒)
④ 칠불통계(七佛通戒)

17. 인도 불교 미술의 발상지인 두 곳의 이름이 맞게 짝지어 진 것은?

①간다라 - 마투라 ②간다라 - 굽타
③굽타 - 마투라 ④사르나스 - 간다라

18. 다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도구법여행기이다. 여행자와 그 여행기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혜초 -왕오천축국전
②현장 - 대당서역기
③법현 - 불국기
④송운 - 남해기귀전

19. 최근 조계종에서 복원불사를 진행하고 있는 북한 금강산에 위치한 사찰은?

① 신계사 ②영통사 ③유점사 ④장암사

20. 다음 중 팔상도의 설명이 틀린 것은?

① 비람강생상 : 마야 부인이 룸비니 동산에서 왕자를 출산 하는 장면
② 사문유관상 : 싯다르타 태자가 동서남북 문을 나가 생로병사의 현장을 목격하는 장면
③ 유성출가상 : 싯다르타 태자가 성을 넘어 출가하는 장면
④ 수하항마상 : 싯다르타 태자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

21.다음 중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 되지 않은 것은?

① 석굴암 ② 팔만대장경 ③불국사 ④해인사

22. 불교에는 가장 중요한 3가지 보물이 있다. 다음 중 삼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부처님 ②사천왕 ③경전 ④스님

23. 불교신행생활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 간경(看經) ②이타행(利他行)
③육바라밀 ④사군자(四君子)

24. 절을 하는 의미와 공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삼보에 대한 예경 ②신에 대한 경배
③상대방에 대한 존경 ④ 하심하는 수행

25. 불교교단 구성의 필요충분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사부대중이 성립하게 된 시점은?

① 5비구의 출가
② 빔비사라왕의 귀의
③ 마하파자파티의 출가
④ 위제희 부인의 귀의

26. 오온(五蘊)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색온은 사대와 사대소조색으로 형성된다.
② 오온 중 행온(行蘊)은 표상작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③ 수온(受蘊)은 느낌으로서 고(苦), 락(樂), 사(捨)가 있다.
④ 식온(識蘊)은 식별로서 인식과 판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7. 반드시 순서와 차례를 지키며 진행되는 특징을 갖는 아홉 단계의 선정을 구차제정(九次第定)이라고 한다. 그 순서가 바른 것은?

① 공무변처-식무변처-비상비비상처-무소유처-상수멸정-색계사선
② 색계사선-식무변처-비상비비상처-식무변처-무소유처-멸수상정
③ 식무변처-비상비비상처-식무변처-무소유처-상수멸정-색계사선
④ 색계사선-공무변처-식무변처-무소유처-비상비비상처-멸수상정

28. 신라에 불교를 수용시키기 위해 순교한 사람은?

① 이차돈 ② 아도
③ 법흥왕 ④ 원광

29. 다음은 부처님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인더스 지역이 인도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② 정치적으로는 부족장 중심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③ 잉여 농산물에 바탕하여 상공업과 화폐 경제가 발달하였다.
④ 부족간의 영토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였다.

30. 강원, 율원, 선원이 모두 있는 총림의 조실 스님을 말하는 명칭은?

①방장 ②주지 ③회주 ④율주

31. 본래 이것은 부처님의 사리(유골)를 모신 곳으로 모든 불자들의 순례의 대상이 되었다. 후에 아쇼카 왕이 부처님의 사리를 나누어 3000여 곳에 이것을 세워 불교가 널리 퍼지게 하였다. 이 불교건축물의 이름은?

32. 출가한 비구,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율로 분파에 따라 계의 수는 다르지만 보통 비구는 250계, 비구니는 348계를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계를 무엇이라 하는가?

33. 부처님께서 열반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훈으로 ' 자신과 진리를 등불로 삼아 의지하라' 는 내용을 담은 한자성어는?

34. 신도오계를 설명하시오.

35. 사홍서원 가운데 '불도(佛道)를 다 이루오리다' 라고 하는 불도무상서원성(佛道無上誓願成)의 총원(總願)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불도(佛道)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간단한 용어(用語)로써 기록하시오.

36. 삼법인의 제법무아가 뜻하는 바는?

37. 육법공양(六法供養)의 종류를 쓰고 각 공양에 상응(相應)하는 상징적 내용을 단답(短答) 하시오.

1) 2)
3) 4)
5)

38. 보살의 수행과정에서 발심과 더불어 믿음이 중시되는 이유를 논하시오.

39. 5재계와 8재계를 비교 설명하시오.

40. 사찰 운영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운영위원회 의원 수와 회장은 누가 맡는지, 운영위원의 임기는 몇 년인지,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 지 등)

정답

1.④ 2.③ 3.② 4.③ 5.④ 6.② 7.④ 8.④ 9.③ 10.④
11.① 12.③ 13.④ 14.① 15.④ 16.③ 17.① 18.④ 19.① 20.④
21.④ 22.② 23.④ 24.② 25.③ 26.② 27.④ 28.① 29.③ 30.①

31. 탑(스투파)
32. 구족계
33.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
34. 1) 생명을 죽이지 말라.
2)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
3) 간음을 하지 말라.
4) 거짓말을 하지 말라.
5) 술을 마시지 말라.

35. 보리도와 해탈문, 반야에 의한 성취
36. 우주 만상은 영원하지 못하므로 나 라는 존재도 영원성을 가진 것도 아니며 실재도 아니라는 것.
37. 1) 향-해탈향(解脫香)
2) 등-반야등(般若燈)
3) 꽃-만행화(萬行花)
4) 쌀-선열식(禪悅食)
5) 과일-보리과(菩提果)
6) 차-감로다(甘露茶)

38. 초기불교는 법에 대한 신심을 강조했다. 불자들은 정견(正見)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정견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믿음을 중요시 여겼다. 대승불교에서는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는데, 이는 중생이 견해에 대한 방향을 올바로 확립하고 그 믿음을 통해 나약한 마음을 없애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정견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보에 대한 믿음은 올바른 견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발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39. 오계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지켜야 할 계율로서 산 목숨을 죽이지 말 것, 도둑질 하지 말 것, 혼인의 순결을 유지할 것, 거짓말을 하지 말 것, 그리고 음주하지 말 것 5가지 이다.
팔재계는 포살일에 지키는 계율로서,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는 의식이다. 팔재계는 오계의 다섯가지 계율에 더하여, 화려하게 꾸미거나 향수를 바르지 말며 노래하고 춤추지 말 것,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말 것, 때 아닌 때 먹지 말 것 등 3가지를 더한 것이다.

40. 운영위원회는 소임을 맡은 승려와 신도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주지가 위촉할 수 있다. 운영위원 수는 7인 이상 30인 이내이며, 임기는 2년이다.
주지는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사찰 신도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운영위원회 역할은 사찰의 예산과 결산, 각종 불사와 사업에 관한 사항, 사찰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신도 교육 및 포교에 관한 사항, 신도의 자격 심의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모의고사 (제3회분 · 시간 70분)

1. 신도증은 몇 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는가?
① 매 1년 ② 매 10년
③ 매 15년 ④ 수시로

2. 우리나라에서 부처님의 4대명절 날짜가 틀린 것은?
① 부처님 탄생일 : 음력 4월 8일
② 부처님 출가일 : 음력 2월 10일
③ 부처님 성도일 : 음력 12월 8일
④ 부처님 열반일 : 음력 2월 15일

3. 사찰의 의미를 잘못 설명한 것은?
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도를 닦는 수행도량
② 불법을 널리 펴서 중생을 제도하는 전법의 장
③ 많은 대중들이 모여 살며 집회를 하고 여러 행사를 하는 곳
④ 전통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수하는 곳

4. 부처님의 가족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연결된 것은?
① 마하마야 - 어머니 ② 아난다 - 아들
③ 슛도다나 - 아버지 ④ 마하프라자파티 - 이모

5. 불법의 특성을 표현한 삼법인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제행무상 ② 제법무아
③ 인생무상 ④ 일체개고

6.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와 백화도량발원문(百花道場發願文)의 저자는?
①원효대사 ②의상대사
③진표대사 ④의천대사

7. 다음 중 37조도품(助道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사념처(思念處) ②오정심관(五停心觀)
③사정단(四正斷) ④칠각지(七覺支)

8. 부처님 당시 부처님의 측근에서 주치의 역할을 담당했던 선지식은 누구인가?
①라후라 ②수보리 ③아나율 ④기바

9. 반야심경의 '아뇩다라삼먁삼보리' 가르침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 ②무상적정대각(無上寂靜大覺)
③무상정변도(無上正遍道) ④무상정변지(無上正遍知)

10. 다음 중 대승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①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수행은 6바라밀이다.
② 불탑신앙의 전개와 더불어 발전하였다.
③ 대승경전을 신봉하고 그 교의에 따라 실천하는 불교를 가리킨다.
④ 대승불교는 수행보다는 보살들을 받드는 신앙을 강조한다.

11. 부처님 당시의 시대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① 경제적 부를 축적한 자산가들이 새로운 세력층으로 부상되었다.
② 부족적 계급제도가 무너지고, 군소국가가 구성되어 귀족정치나 공화제적 정치가 실행되었다.
③ 자유로운 사상을 품은 사람들이 출현하였다.
④ 사성계급의 확립으로 베다의 신성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12. 다음 가르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는 것은?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人天)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법을 설하라.'
① 흔히 '전도 선언' 이라고 하는 가르침이다.
② '순교이생(巡敎利生)의 명령' 이라고도 한다.
③ 아라한과를 증득한 60명 제자들에게 설하신 가르침이다.
④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설법이다.

13.부처님의 십대제자로서 기원정사에서 수행하던 중 졸다가 부처님의 꾸지람을 듣고 그 뒤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한 결과 육체의 시력은 잃었으나 지혜의 눈이 밝아 천안제일(天眼第一)로 불린 분은?
① 아난다 ② 목건련 ③ 아나율 ④ 수부티

14. 십이연기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십이연기를 관찰하는 방법에는 순관과 역관이 있다.
② 순관은 고(苦)의 발생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③ 역관의 과정을 유전연기라고 한다.
④ 인간에게 죽음이 있게 되는 근본 원인을 무명에 두고 있다.

15.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우협탄생설' 이 갖는 의미와 다른 것은?
①당시 인도의 사회제도는 카스트 사회이다.
②'우협탄생설' 은 인도의 신화와는 관련이 없다.
③당시 인도인들의 신분은 태어나는 신체 부위에 따라 출신 신분을 나타낸다.
④크샤트리아는 옆구리에서 태어난다.

16. 다음은 선의 수행단계를 소와 동자에 비유하여 그림으로 그린 심우도에 관한 설명이다. 이중 틀린 것은?
①심우도에는 보명의 것과 곽암의 것이 있다. 보명의 것은 소를 길들인다는 뜻에서 '목우도' 라 하고 곽암의 것은 소 찾는 것을 열가지로 묘사했다고 하여 '십우도' 라 일컫고 있다.
②송나라때 만들어져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으며 최근에도 사찰의 벽화로 많이 그려지고 있다.
③중국의 경우에는 십우도 대신 말을 묘사한 십마도를 그린 경우도 있고 티베트에서는 코끼리를 묘사한 심상도가 전해지고 있다.